

호남 일기자료 연구 학술세미나

호남 일기자료의

가치와 전망 : 현황과 과제

湖南 日記

資料

2024. 10. 24 목

13:30 - 17:00

국립광주박물관 소강당

주최·주관  한국학호남진흥원

· 발표 ·

조선시대 개인일기 자료 현황 및
활용·보급의 현재,
그리고 미래방향을 위한 제언

최은주
한국국학진흥원

조선시대 개인일기 자료 현황 및 활용·보급의 현재, 그리고 미래방향을 위한 제언

최은주(한국국학진흥원)

1. 머리말
2. 조선시대 개인일기 자료의 현황 및 DB구축
3. 조선시대 개인일기 자료의 국역 지형도
4. 조선시대 개인일기 자료의 활용 및 대중적 보급
5. 남은 과제, 미래방향을 위한 제언

1. 머리말

1990년대 말부터 일상사·미시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고, 2000년대 접어들면서 ‘생활사 연구’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동시에 연구 자료로서 조선시대 일기자료에 대한 관심도 급증하였다. 1996년 정구복이 약 280여 종의 일기목록을 제시한 후,¹⁾ 이듬해 1997년에는 염정섭이 국립중앙도서관·규장각·장서각·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일기자료를 조사하여 1,107종의 일기목록을 제시하였다.²⁾ 그 사이 인터넷이 보편화되고 지식 정보화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전통시대 기록유산 목록들이 빠른 속도로 DB화 되었는데, 2007년 황위주가 진행한 일기자료 현황 조사는 이러한 배경과 기존 성과를 바탕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황위주는 당시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연계 기관 및 도서관 27곳, 개별 조사 기관 및 도서관 6곳을 대상으로 인터넷 검색 시스템을 활용한 목록 조사를 진행하면서, 민족문화추진회의 한국문집총간과 전국대학도서관 논저목록을 함께 검토하는 방법을 통해 총 1,600여 종의 일기자료 목록과 그에 대한 관련 서지정보를 비교적 상세하게 제시하였다.³⁾

2007년도 이후부터는 앞서 있었던 조선시대 일기자료 현황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바탕으로 일기자료 하나하나에 대한 보다 진전된 연구와 정보화 작업이 가속화되었다. 정보화 작업의 경우 개인보다 기관이 주로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이러한 기관들은 주요 일기자료를 발굴 소

1) 정구복, 「조선조 일기의 자료적 성격」, 『정신문화연구』 19집(한국학중앙연구원, 1996). 이 논문에는 『한국민족문화백과사전』에 수록된 일기류 119종, 문집에 수록된 일기류 113종,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수집된 미발간 일기자료 13종, 한국정신문화연구원(현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수집된 미발간 일기자료 43종 등이 일기 자료의 간략 목록으로 제시되어 있다.

2) 염정섭, [자료소개]조선시대 일기류 자료의 성격과 분류, 『역사와현실』 24집(한국역사연구회, 1997). 이 논문에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154종, 규장각 소장 485종, 장서각 소장 162종,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306종 등 모두 1,107종의 일기 목록이 간략한 정보와 함께 제시되어 있다.

3) 황위주, 「조선시대 일기자료의 현황과 활용방안」, 『국역 조선시대 서원일기』(한국국학진흥원, 2007)

개하는 동시에 이미지와 원문텍스트를 중심으로 개별의 일기자료에 대한 지식 정보를 DB화하는 데 주력하였다.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조선시대 일기자료 관련 지식정보 DB는 진전에 진전을 거듭하여 고도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된다. 물론 그 과정에서 노출되는 한계도 포착되지만, 그 성과가 자료 활용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뚜렷한 실적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 발표문은 지금까지 다방면으로 이루어진 일기자료 현황에 대한 조사연구가 현재 어떤 방식으로 그 성과를 공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국역이 어떻게 어느 정도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활용 및 대중적 보급은 어디까지 나아갔는지 검토하고 소개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점차 고도화되어 가는 지식정보화의 흐름 속에서 인공지능 시대를 새롭게 맞이한 현재, 앞으로 조선시대 일기자료의 연구와 활용 방향은 어느 곳을 향해야 할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2. 조선시대 개인일기 자료의 현황 및 DB구축

(1) 조선시대 개인일기 자료 현황에 대한 연구성과

언급했듯이 조선시대 일기자료 목록 현황에 대한 종합적 연구는 2007년 황위주의 연구에서 정점을 찍었다. 황위주의 「조선시대 일기자료의 현황과 활용방안」은 한국국학진흥원이 2007년 기관에 소장된 서원 관련 일기를 중심으로 국역서를 발간할 때 함께 이루어졌다. 당시 한국국학진흥원은 민간에서 생산된 일기류의 가치를 주목하고 이에 대한 번역의 시급성을 인식하면서, 이에 대한 기초 배경 자료로서 전국에 산재한 일기자료 목록과 그에 따른 활용방안을 같이 수록했던 것이다. 이 연구에 의하면 2006년 기준으로 전체 1,602건(작성주체 관청까지 포함) 가운데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자료는 129건이었다. 이후 2009년에 최은주가 당시 한국국학진흥원 유고넷 ‘영남사림일기’에 구축된 593종의 일기자료를 정리해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일기자료의 특징과 의미를 고찰한 바 있다.⁴⁾ 그리고 이 성과를 토대로 「조선시대 일기자료의 실상과 가치」를 발표했다.⁵⁾

약간의 공백을 거친 후 국립문화재연구소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역별로 조선시대 개인 일기류 목록에 대한 학술조사 연구를 진행하였다.⁶⁾ 이 작업은 2007년 이후 약 8년의 시간이 흘렀기에 일정부분 진일보한 성과를 축적했다고 보여진다. 비슷한 시기 김미선은 『호남문집 소재 일기류 자료』라는 책을 통해 관련한 565종의 일기자료를 제시하였다.⁷⁾ 이 책은 저자

4) 최은주,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일기류의 특징과 의미」(한국국학진흥원 일기류 번역 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 자료집, 2009)

5) 최은주, 「조선시대 일기자료의 실상과 가치」, 『대동한문학』 30호, 대동한문학회, 2009.

6)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이 조사 연구의 결과물로 2015년 『조선시대 개인일기 1-대구·경북』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조선시대 개인일기 2-인천·경기』, 2017년에는 『조선시대 개인일기 3-서울』 그리고 2018년에는 『조선시대 개인일기 3-충청·강원·전라·경남』을 간행하였다.

7) 김미선, 『호남문집 소재 일기류 자료』(경인문화사, 2018) 이 책에서 제시한 일기의 범위는 매우 넓다. 경험을 시간순으로 기록하여 문집에 실리기 전의 모습이 일기 형식일 것으로 추정되는 글의 경우 날짜가 나오지 않아도 일기의 범위에 포함시켰으며, 또한 단 하루 일만을 적은 것과 저자의 직접 경험이 아닌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일기 형식으로 정리한 記事 종류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일기자료 최종 목록 건수 집계에 대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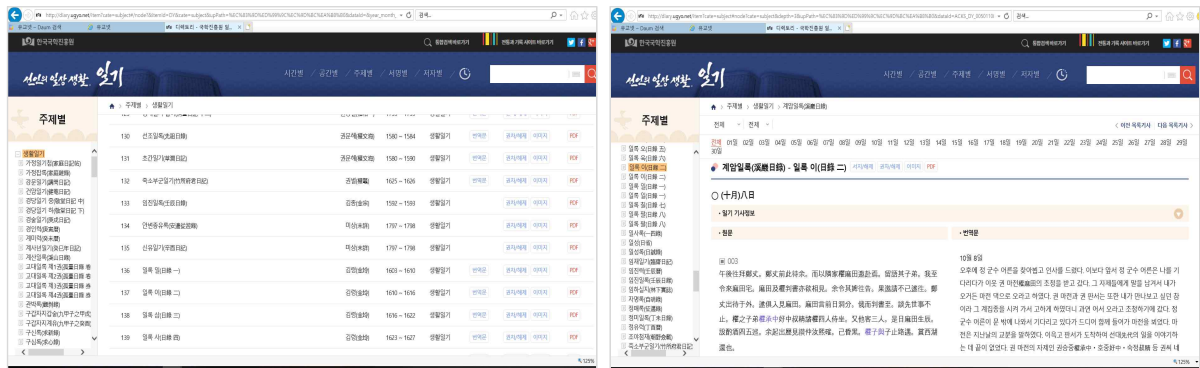
가 그 동안 자신의 연구 성과를 총체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호남문집에 수록된 일기자료를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호남문집’은 호남권(광주·전남·전북·제주)에서 출생하였거나 이 지역과 긴밀한 관련을 맺은 인물의 개인 한문문집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후 일기자료 현황에 대한 조사 연구는 초점을 옮겨 주제별 일기 유형에 집중되었다. 개인 연구로는 전체 목록을 다시 확장하기에 한계가 분명했기 때문이다. 김미선은 조선시대 기행일기를 주목하고 관련해 다방면의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했다. 조선시대 기행일기의 범주를 설정하고⁸⁾ 기행일기 정리의 현황과 과제를 검토했으며,⁹⁾ 이어서 「조선시대 한문 기행일기의 현황과 가치」를 발표하고 그간의 성과를 정리해 단행본을 발간하면서 목록을 첨부했다.¹⁰⁾ 최은주는 조선시대 개인일기 가운데 상소일기를 조사해 상세 현황을 발표한 바 있고,¹¹⁾ 임진왜란 일기자료의 목록을 조사해 그 傳存 양상을 검토하기도 했다.¹²⁾ 또 한국국학진흥원이 소장한 유배일기의 현황을 소개하고 그 활용 가치를 논의한 바 있다.¹³⁾

개별 일기자료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자료 발굴부터 내용 탐구 그리고 활용 방안까지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한 다방면의 연구 성과들이 지속해서 축적되고 있다. 개별 일기자료에 대한 연구는 여기에서 별도로 거론하지 않겠다.

(2) DB구축 현황

■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넷 ‘조선시대 일기자료 사이트’ : <http://diary.ugyo.net/>



위의 사이트에는 현재 2024년 기준 총 804종의 일기자료가 구축되어 있다. 이 일기자료들은 시간, 공간, 주제, 서명, 저자별로 각각 분류 정렬되어 있으며, 사이트 안에서 일기자료만 검색이 가능하게 하였다. 자료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 자료마다 번역문 + 상세해제 + 이미지(전용뷰어 활용) + pdf(다운로드 가능) 버튼을 만들어 놓았으며, 구축된 것은 버튼이 활성화되

는 재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8) 김미선, 「조선시대 기행일기의 범주에 대한 논의」, 『국학연구』 35호, 한국국학진흥원, 2018.

9) 김미선, 「기행일기 정리의 현황과 과제」, 『국학연구논총』 21호, 태민국학연구원, 2018.

10) 김미선, 「조선시대 한문 기행일기의 현황과 가치」, 『한국민족문화』 71호,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9 ; 『조선시대 한문 기행일기』, 경인문화사,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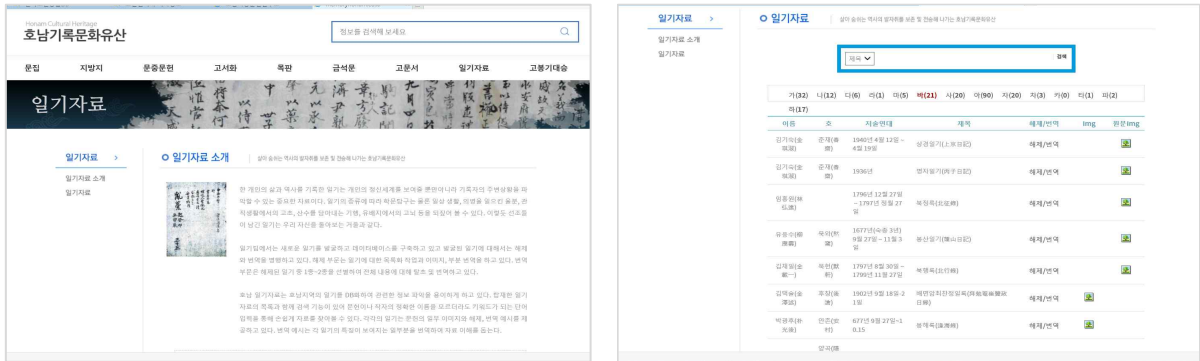
11) 최은주, 「조선시대 상소 일기자료의 실상과 가치」, 『석당논총』 72호, 동아대 석당학술원 2018.

12) 최은주, 「조선시대 임진왜란 일기자료의 현황과 傳存 양상」, 『한국민족문화』 77호,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20.

13) 최은주,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유배일기 자료의 현황과 활용 가치」, 『안동학연구』 19호, 한국국학진흥원, 2020.

어 있다. 또한 자료명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원문텍스트가 구축된 것이다. 사이트에 등재된 일기자료는 대부분 한국국학진흥원이 소장한 것이지만, 일부는 영인 공간되어 잘 알려진 것들도 있다. 이것은 한국국학진흥원이 조선시대 일기자료들을 총 망라하려는 취지로 이 사이트를 구축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이 사이트는 기관 소장 자료 중심으로 매년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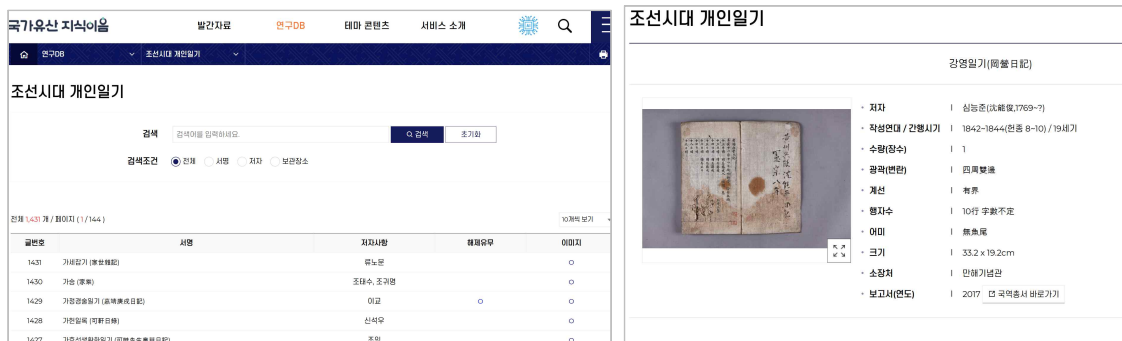
■ 호남지방문화연구원 호남기록문화유산 : <http://www.memoryhonam.co.kr/>



2019년 당시 이 사이트에는 총 230종의 일기가 구축되어 있었다. 목록은 일기의 저자 성명을 가나다 순으로 정렬하여 보여주고 있으며, 자료마다 해제와 예시번역 그리고 해당 문헌의 일부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 이 사이트는 2017년에 완료되었고 이후 더 이상의 자료 업데이트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언급한 김미선의 연구는 이 목록을 기반으로 보충 확대한 성과이다. 그러나 현재는 이 웹사이트 접속이 원활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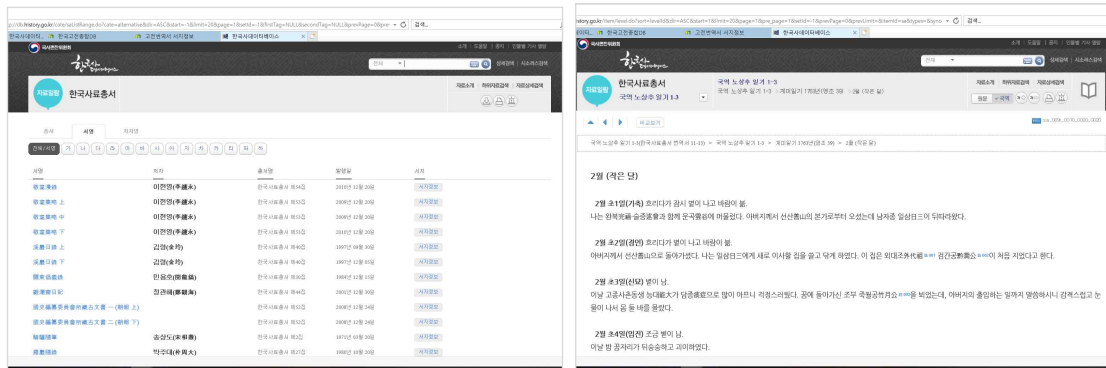
2015년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조선시대 개인일기의 문화재적 가치 발굴을 위한 학술조사 연구에 착수하였다. 그 일환으로 전국에 현전(現傳)하는 조선시대 개인일기의 목록을 조사하고, 그 가운데 해제가 필요한 주요일기를 선별하여 해제집으로 묶어 출판하였다. 2015년 대구·경북 지역을 대상으로 165건, 2016년 인천·경기 지역을 대상으로 154건, 2017년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650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8년 충청·강원·전라·경남 지역을 대상으로 172건을 조사하여 총 1,150여 건의 목록을 완성하였다. 그리고 이 가운데 지역별로 주요자료를 발굴하여 각각 30건, 26건, 32건, 27건 총 165건에 대해 상세해제를 진행하였다. 이 목록과 상세해제는 현재 아래의 웹사이트에서 서비스되고 있다. 현재 1,413종의 일기자료가 업로드되어 있다.

■ 국가유산 지식이음 : <http://portal.nrich.go.kr>



일기자료 조사 발굴 정리 분야에서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료총서 성과를 빼놓을 수 없다. 총서명에서 드러나듯이 ‘일기’ 자체를 주목한 것은 아니지만, 2017년까지 간행한 59책의 총서 가운데 수록된 일기자료가 약 36종에 달할 정도로 적지 않은 자료를 발굴하였다. 한국사료총서는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 DB로 구축되어 있으며, 자료마다 상세 해설과 원문텍스트를 제공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한국사료총서 번역서를 간행하여 웹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윤치호 영문일기와 노상추 일기 일부분이 국역된 상태다.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http://db.history.go.kr/>



서울대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구축하고 있는 소장자료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다량의 일기자료와 관련된 지식 정보(상세해제·원문텍스트·이미지 등)를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일기자료만 별도 페이지로 구축한 것은 아니기에, 해당 목록 검색을 해야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 덕분에 일기자료 조사와 활용의 편의성이 높아진 것은 분명하다. 아래는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일기자료를 검색했을 때 해제와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를 예시한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 일기자료 검색 화면 예시>



이 외에 한국학자료센터 장서각과 영남권역에서 일부 일기자료에 대한 정보 DB화를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고전번역원의 ‘고전종합DB’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구축된 문집 일 경우 관련 원문텍스트와 이미지 그리고 경우에 따라 국역까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며, 그 범위와 영역은 생각보다 넓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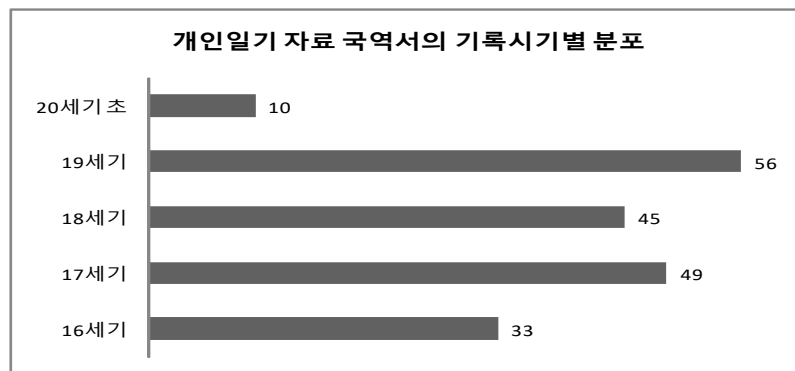
지금까지 조선시대 개인일기 자료 조사연구의 추이와 관련 DB구축 현황을 종합적으로 살펴

보았다. 약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목록조사 활동과 지식정보화 작업은 그 발전적 성과에 있어서 서로 견인 역할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한계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기관별 목적과 지향에 따라 목록 조사와 지식정보 DB화의 특징이 저마다 뚜렷하기 때문이다. 예전에 비해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더 많은 자료 더 많은 정보들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는 있지만, 다각도에서 여전히 활용의 장벽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면, 전국에 현전하는 ‘조선시대 개인일기’를 종합적으로 서비스하는 웹사이트는 오히려 불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든다.

3. 조선시대 개인일기 자료의 국역 지형도¹⁴⁾

일기자료의 국역 성과에 대한 조사는 ‘일기’, ‘일록’ 등 관련 키워드를 이용하여 국립중앙도서관 단행본 검색과 한국고전종합DB의 고전번역서 서지정보를 교차 검토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에서 발행된 출판물이 총망라되어있고, 고전번역서 서지정보검색은 한국고전번역원이 국내 고전번역사업의 총괄 관리를 목적으로 국내에서 간행되는 고전번역서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차 검토 과정에서 서로 미등재된 국역서들이 간혹 보이기는 했지만, 두 기관의 웹사이트를 통해 개인일기 자료의 국역서를 최대한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문집에 수록된 일기의 경우 문집 국역 현황 속에서 문집 수록 일기자료를 일일이 검토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현재 이 부분의 일기자료 국역 현황까지는 다 포괄하지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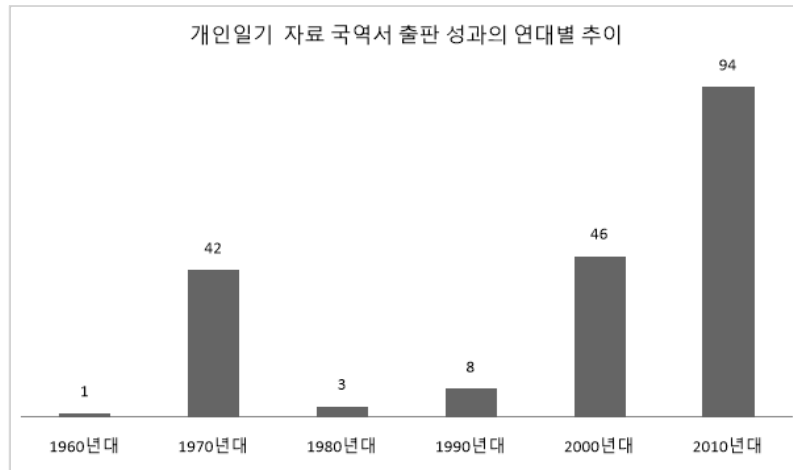
살펴본 결과 출판물 기준으로 현재까지 총 194종의 일기에 대한 국역서를 확인하였다.¹⁵⁾ 이 가운데 16종은 번역대상 일기가 중복되는데, 대개 중국 일본 사행 일기자료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에 근거해 현재까지 파악된 조선시대 개인일기 자료를 대략 1,000종 정도로 추정한다면, 일기자료의 국역 작업은 출판된 성과에 DB성과까지 포함하여 약 25% 내외 정도로 추측이 가능하다. 194종의 일기자료 국역서를 기록시기별로 분류해보면 오른쪽의 그래프와 같다.(중복 포함) 16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시기별로 조금씩 치우친 면이 없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4) 이 장에서 논의한 일기자료의 국역 성과는 2019년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다. 이후부터 현재까지 발간한 국역서들은 시간 관계상 반영하지 못했음을 미리 밝혀둔다.

15) 일찍 번역이 완성되고 이후 중복 번역이 여러 차례 이루어진 박지원의 『열하일기』같은 경우 국역 성과 집계에서 제외하였음을 밝혀둔다.

아래의 그래프는 개인일기 자료 국역서 출판 성과의 축적이 연대별로 그 추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정리한 것이다.



1960년대 1종은 정탁의 『용사일기』를 번역한 것으로 부산대 한일문화연구소에서 1962년 간행한 것이다. 1970년대 42종은 당시 민족문화추진회(한국고전번역원)에서 번역한 『연행록선집』과 『해행총재』 중 일기체 기록이 다량 포함되었기에 집계된 수치이다. 그래프에 나타난 일기자료 국역 성과의 연대별 추이를 보면, 2000년대부터 국역 작업이 활발해지기 시작해 2010년대에는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미시적 생활사 연구가 유행처럼 확산되었고, 그에 따라 특히 조선시대 개인 일기자료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가했던 상황과 어느 정도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기 국역 작업을 주도해 온 번역 주체의 성격과 비중은 어떠한지 도표로 정리해 보았다.

지자체 및 산하 공공기관	지역 박물관	지역 문화원	대학 연구소	문중단체	기타단체	출판사 (기획총서)	그 외 (개인)
70	18	15	10	11	9	16	45

전체 비중에서 35% 정도 차지하는 곳은 지자체 또는 산하 공공기관이었다. ‘서울사료총서’, ‘부산사료총서’ 등 이러한 유형으로 시나 군이 이름을 걸고 직접 성과를 출판한 경우가 적지 않았으며, 이 외 한국고전번역원·한국국학진흥원·국립중앙도서관·국립문화재연구소 등이 일정한 성과를 축적하고 있었다. 지역 박물관과 지역 문화원도 일기자료 국역 성과에서 기여도가 높았다. 특히 경기도박물관의 성과가 주목되는데, 지역색이 뚜렷한 내용이거나 경기도 출신 인물이 기록한 경우 또는 지역에서 발굴된 희귀본을 대상으로 6종의 일기자료를 국역서로 출판하였다. 다른 지역의 박물관과 문화원도 기관이 소재한 ‘지역’과 관련성이 있는 일기자료들을 발굴하여 국역 성과를 축적하였다. 예를 들면, 정선문화원이 오형묵의 『정선총쇄록』을, 신안문화원이 김윤식의 『지도유배일기』를 번역하는 사례와 같은 것이다.

대학 연구소는 연구소의 특성을 살린 기반 위에서 일기자료 국역에 꾸준한 성과를 보태고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줄어드는 추세가 나타났다. 문중단체 또한 선조의 업적을 알려 문중을 선양하려는 목적으로 일기자료의 국역 성과에 나름의 힘을 실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출판사의 기획총서 시리즈 형태로 출간되는 국역서이다. 일기자료 국역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만, 역사고전 읽기 기획으로 이루어지거나 또는 주제별 기록자료 번역 총서 안에 포함되는 경우다. 서해문집의 ‘오래된책방’ 시리즈를 통해 5종의 일기자료가 국역되었고, 보고사는 ‘통신사 사행록 번역총서’와 ‘수신사기록 번역총서’를 간행하며 총 8종의 일기자료를 국역하였다. 출판사의 번역총서 같은 경우 자체 기획이라기보다 대개 연구 프로젝트팀의 성과를 공식 출간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타단체는 세종대왕기념사업회가 2015년부터 진행하는 연행록 국역총서 성과를 집계한 것이다. 그 외 번역주체는 개인이 주도한 경우를 주로 포함하였다. 이렇게 이루어진 국역들은 개인의 연구결과물이거나 자료 발굴 소개의 취지로 출판사와 협력하여 간행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일기자료는 우선 분량 면에서 문집처럼 방대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접근하여 성과로 출간하기가 좀 더 쉬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번역주체의 비중에서 단체가 약 76%를 차지하는 것은 국역 작업을 위한 재원 기반 때문이다. 주로 기관이 국역 사업 재원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대상 자료의 국역을 주도한다. 이러한 현상은 고전적 국역 사업 전반에서 당연한 일이다. 다만, 번역 주체의 성격과 비중에서 눈여볼 것은 어떤 성격의 기관이 어떤 목적으로 일기자료 국역 사업을 진행했는가 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부분을 토대로 일기자료 국역 성과에서 몇 가지 뚜렷한 흐름을 읽어낼 수 있었다.

첫 번째로 지역색이 두드러지는 개인일기 자료의 국역이 활발했다는 사실이다. 아래의 도표는 이와 관련되는 국역 성과를 도표로 정리한 것으로, 약 28종 정도가 확인되었다.

■ 지역색이 두드러지는 일기 자료의 국역

	일기명	기록시기	저자	발행	연도	비고
1	萊府日記	1859	金鉞(1804~?)	부산광역시	1995	동래부사
2	남사일록	1679	李增(1628~1686)	제주문화원	2001	제주 순무어사
3	정선총쇄록	1887~1888	吳弘默(1834~1906)	정선문화원	2002	정선군수
4	화영일록	1836~1837	徐有渠(1764~1845)	경기도박물관	2004	수원유수
5	영영일기	1751~1752	趙載浩(1702~1762)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04	경상감사
6	재영남일기	1518~1520	黃士祐(1486~1536)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06	경상도 도사
7	선조강화선생일기	1574~1577	全舜弼(1514~1581)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2006	강화도호부사
8	북접일기	1894~1918	曹錫憲(미상)	태안군	2006	태안 동학농민혁명 주도
9	고성총쇄록	1893~1894	吳弘默(1834~1906)	고성문화원	2007	고성부사
10	지도군총쇄록	1865~1896	吳弘默(1834~1906)	신안문화원	2008	지도군수
11	남사록	1601~1602	金尙憲(1570~1652)	제주문화원	2008	제주 안무어사
12	지도유배일기	1901~1910	金允植(1835~1922)	신안문화원	2010	지도 유배
13	기우일기	1891	金嘉鎭(1846~1922)	안동문화원	2010	안동대도호부사
14	청강일기	1763~1764	宋載明	부산박물관	2013	기장현감
15	무신일기	1728	李升原(1673~1750)	거창박물관	2014	거창지역 무신란
16	봉화의병일기	1896.2~4	봉화의진	봉화군 (청량산박물관)	2016	

	일기명	기록시기	저자	발행	연도	비고
17	자산록	1874~1884	朴遇賢(1829~1907)	신안문화원	2016	흑산도 유배
18	죽암일기	1926	李錫祐(1863~1941)	경기도박물관	2016	안성 유생
19	운불일기	1897~1905	朴始淳(1848~1907)	임실문화원	2017	임실군수
20	완영일록	1833~1834	徐有渠(1764~1845)	전주시 (풍석문화재단)	2018	전라감사
21	치치암일록	1791~1794	金玄昊(1761~1794)	강릉시	2018	강릉 유생

지역색이 뚜렷한 일기는 비고란에 기입하였듯이 관직일기·유배일기·지역 거주 유생의 일기·지역사회의 사건을 기록한 일기 등이 있었다. 이러한 일기자료의 번역은 대개 지역명을 내건 기관들이 해당 지자체의 예산을 지원받아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의 역사문화 전통을 보존하고 계승한다는 목적성이 전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관의 입장에서는 번역대상 자료의 발굴과 선택에 있어 이러한 기준이 국역 사업의 당위성을 확보하기에 분명하고 합리적이었을 것이다. 동일인이 기록한 일기이지만 내용적 특징에 따라 서로 다른 기관에서 번역한 사례가 이러한 사실을 대변한다. 예컨대, 오형묵의 총쇄록 같은 경우 『정선총쇄록』은 정선문화원에서, 『지도군총쇄록』은 신안문화원에서, 『고성총쇄록』은 고성문화원에서 국역을 주도하였다. 서유구의 일기 역시 수원유수에 재직하며 작성한 『화영일록』은 경기도박물관에서, 전라감사에 재직하며 작성한 『완영일록』은 전라북도가 완역을 주도하고 풍석문화재단 전북지부가 전주시의 지원을 받아 운문과 교열을 거쳐 발간했다.

『죽암일기』는 한말 일제강점기 안성의 유생 죽암(竹巖) 이석우가 1926년에 쓴 일기이며, 『치치암일록』은 18세기 강릉지방 거주했던 유생 김현호가 1791년부터 1794년까지 4년 동안 당시 지역에서의 생활을 기록한 것이다. 이 일기들은 당시 지역 유생의 삶과 아울러 지역사회의 미시적 실상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자료로서, 지역사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박물관과 강릉시가 국역을 진행하였다. 태안군이 태안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실상이 담긴 조석현의 『북접일기』를, 거창박물관이 거창지역 무신란 진압 과정을 기록한 『무신일기』를, 봉화군 청량산박물관이 1896년 활동했던 봉화 의진의 일기를 국역한 것도 이와 같은 사례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하겠다.

두 번째는 지역 출신 인물들의 일기자료 국역도 200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축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경향 역시 해당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지역의 문화원이나 박물관 등의 기관이 국역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의 역사문화 전통을 계승 보존한다는 취지를 직접적으로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적 인물들이 남긴 기록유산을 발굴하고 알린다는 차원에서 또 다른 차원의 당위성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관련된 국역 성과 가운데 이러한 특징이 뚜렷한 것들을 추려서 아래의 도표로 정리하였다.

■ 지역 대표 인물의 일기자료 국역

	일기명	기록시기	저자	발행	연도	비고
1	연행일록	1719	趙榮福(1672~1728)	경기도박물관	1998	용인 출신 (경기도유형문화재)
2	연행일기	1648	李埰(1594~1653)	영광문화원	2005	영광 출신
3	추연선생일기	1583~1584	禹性傳(1542~1593)	화성시	2008	묘역: 화성시
4	동행일록	1881	閔建鎬(1843~1918)	부산근대역사관	2008	조사시찰단
5	한계일기	1944	愼宗默	과천문화원	2009	과천 출신
6	환구일기	1896	金得鍊(1852~1930)	은평문화원	2010	묘역: 서울 은평구
7	연사일록	1858	金直淵(1811~1884)	의왕향토사료관	2011	의왕 출신 (경기도문화재)
8	백하일기	1911~1913	金大洛(1845~1914)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2011	경북 안동 출신 (고려대 소장)
9	부북일기	1605 1644	朴繼叔(1569~1646)朴 就文(1617~1690)	울산박물관	2012	울산 출신 父子 (울산광역시 유형문화재)
10	동도일사	1880	朴祥植(1845~1882)	부산박물관	2012	부산 동래부 출신
11	한재북학일기	1913	朴奉述(1892~1983)	제주교육박물관	2016	제주 구좌읍 출신
12	해사일기	1763~1764	趙曠(1719~1777)	원주시역사박물관 (조엄 기념관)	2016 ~2018	묘역: 원주시

비고란에 기입한 내용과 국역을 주도한 발행주체를 연결해 보면 그 연관성이 드러난다. 특히 조영복의 『연행일록』·이성의 『연행일기』·민건호의 『동행일록』·김득련의 『환구일기』·김직연의 『연사일록』·박상식의 『동도일사』·조엄의 『해사일기』 등은 사행 일기로서 국외 여정을 기록한 것이기에 기록 내용으로는 지역과 관련성이 전혀 없다. 다만 기록자가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적 인물인 것이다. 영광 출신인 매헌 이성의 『연행일기』는 문중에서 보관해 오던 것이 2003년 공개되었고, 그 뒤 영광문화원에서 국역을 주도하였다. 민건호는 전남 해남 출신이지만 조선말 부산감리서에서 오랜 기간 재직하며 부산한 개항에 주역을 담당했던 인물이다. 그의 일기 『동행일록』은 1881년에 그가 조사시찰단의 일원인 이현영을 보좌하는 수행원으로 일본을 다녀온 기록으로, 현재 원본은 부산시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부산근대역사관은 이 일기를 민건호의 생활일기인 『해은일록』과 함께 국역하였다. 김득련의 『환구일기』를 은평문화원에서, 조엄의 『해사일기』를 원주시역사박물관 조엄기념관에서 국역한 것도 비슷한 사례이다. 김득련의 묘가 서울 은평구 진관동 이말산에 있고, 조엄의 묘가 원주시 지정면 조엄기념관 뒤쪽에 있다. 조엄기념관은 2014년에 개관하였다.

『백하일기』를 쓴 김대락은 안동출신의 독립운동가이다. 이 일기는 김대락이 만주로 떠난 1911년부터 세상을 떠나기 직전 1913년까지 기록한 것으로 망명 당시의 사정과 만주 정착 과정, 만주 망명 사회의 동정이 생생하게 담겨있다. 2011년에 안동독립운동기념관(현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이 고려대에 소장된 자료를 대상으로 국역 작업을 진행하였다. 제주 출신의 유학자 한재(漢齋) 박봉술이 전라도 광주의 안병택을 찾아가 공부했던 시절 기록한 『한재북학일기』를 제주교육박물관에서 국역한 것도 같은 유형의 사례라고 하겠다.

위와 같은 사례에 포함되는 자료들도 있지만, 10년 이상 기록한 장기간 일기는 아래의 도표로 별도 정리하였다. 이러한 일기자료들은 기록 분량이 많은 만큼 국역 작업에 쏟아야 하는 공력이 작지 않고, 또 그만큼 일기자료로서 주목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 장기간 기록한 개인 일기자료의 국역

	일기명	기록시기	저자	발행	연도	비고
1	쇄미록	1591~1601	吳希文(1539~1613)	해주오씨 추탄공파 종중	1990	2책 (2014 개정출판)
				국립진주박물관	2018	6책
2	미암일기	1567~1577	柳希春(1513~1577)	담양향토문화연구회	1996	5책
3	죽계일기	1592~1605	趙應祿(1538~1623)	한서대 동양고전연구소	1999	2책
4	입조일기	1736~1780	趙重晦(1711~1782)	경기도박물관	2000	1책
5	하재일기	1891~1911	池圭植(1851~?)	서울특별시	2005 ~2009	8책
6	성도일록	1808~1821	申絢 (1764~1827)	경기도박물관	2008	1책
7	해은일록	1883~1914	閔建鎬(1843~1918)	부산근대역사관	2008	6책
8	석재일록	1782~1801	尹行恁(1762~1801)	경기도박물관	2009	1책
9	고대일록	1592~1609	鄭慶雲(1556~1610)	남명학연구원	2009	2책
				서해문집	2016	1책
10	경산일록	1802~1873	鄭元容(1783~1873)	보고사	2012	6책
11	초간일기	1580~1591	權文海(1534~1591)	한국국학진흥원	2012	1책
12	경당일기	1614~1625	張興孝(1564~1633)	한국국학진흥원	2012	1책
13	계암일록	1603~1641	金玲(1577~1641)	한국국학진흥원	2013	6책
14	임재일기	1845~1861	徐贊奎(1825~1905)	한국국학진흥원	2013	1책
15	청대일기	1702~1759	權相一(1679~1759)	한국국학진흥원	2015	4책
16	우복일기	1595~1629	鄭經世(1563~1633)	장서각	2015	鄭經世 史料精選
17	노상추 일기	1763~1829	盧尙樞(1746~1829)	국사편찬위원회	2017	1763~1784 일부번역(3책)
				퍼플	2017	1764~1768 일부번역(3책)
18	매원일기	1603~1645	金光繼(1580~1646)	한국국학진흥원	2018	3책
19	목재일기	1535~1567	李文樞(1494~1567)	민속원	2018	4책
20	봉호일기	1757~1795	趙鎭宅(1746~1795)	서울역사편찬원	2018	1책

첫 번째는 오희문의 『쇄미록』이다. 이 일기는 꽤 이른 시기인 1990년에 해주오씨 문중에서 처음 번역하였고, 거의 30년만인 2018년에 국립진주박물관에서 임진왜란 사료 국역사업의 일환으로 다시 국역하였다. 문중에서 발간한 국역서는 2014년에 개정 출판되기도 하였다. 2000년대 접어들면서 생활사 연구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배경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던 자료가 유희춘의 미암일기이다. 이 일기는 1990년대 중반(1992~1996)에 담양향토문화연구회에서 국역

을 진행하였다. 2000년대 중후반까지는 조용록의 『죽계일기』, 조중희의 『입조일기』, 지규식의 『하재일기』 등이 드문드문 출간된 정도였다. 『입조일기』는 당시 해당 문중에서 기증한 자료를 경기도박물관에서 국역한 것이고, 『하재일기』는 조선 말기 궁궐과 관청에 그릇을 납품하던 공인(工人) 지규식의 일기를 서울시사편찬위원회에서 5년에 걸쳐 8책으로 출간하였다. 이 국역서는 20번의 『봉호일기』와 같이 서울특별시 서울 역사편찬원(구 서울시사편찬위원회)에서 전자책으로 제공되고 있다.

2008년부터는 지속적으로 성과가 축적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한국국학진흥원의 국역 작업이 두드러진다. 소장자료 중심으로 '조선시대 일기자료 사이트'를 구축하여 향후 일기자료 집대성을 추구하는 만큼, 그에 부응하는 국역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기자료들은 기록 분량이 많아서 국역 작업의 과정이 대체로 길다. 2012년 보고서에서 출판한 『경산일록』은 연세대 허경진 교수 연구팀이 한국학진흥사업(한국학중앙연구원 주관)의 지원을 받고 연세대의 대응투자로 번역 출판된 것으로, 5년의 기간이 걸렸다고 한다. 『경산일록』은 연세대에 소장되어 있다. 이문건의 『묵재일기』 역시 오래전부터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던 자료인데, 탈초와 기록 분량 등의 문제로 국역이 한동안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최근에 김인규가 단독으로 완역해서 출간하였다. 단독 작업이었던만큼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17번의 『노상추일기』 국역 작업이다. 총 68년의 기록 분량 가운데 현재 11년의 기간이 먼저 국역되었다. 우선 이루어진 국역 성과는 2017년 3책으로 출간되었고, 현재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 번역문 DB가 구축되어 있다.

이 외에 자료소장 기관일 경우 소장자료 가운데 유일본이나 귀중본 등 가치가 높은 자료들을 발굴하여 국역서로 출간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발간하는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고전적국역총서'인데 이 가운데 개인 일기자료가 5종이 포함되어 있는데, 목록은 아래와 같다.

■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고전적국역총서 중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개인 일기자료 국역

	일기명	기록시기	저자	발행	연도	총서사항
1	곡운공기행록	1818/1824	權馥(1769~?)	국립중앙도서관	2007	총서 (3)
2	연행일기	1862~1863	李恒億(1808~?)	국립중앙도서관	2008	총서 (4)
3	연행록	1669~1670	姜銑(1645-?)	국립중앙도서관	2009	총서 (5)
4	연행일기초	1694	俞得一(1650~1712)	국립중앙도서관	2010	총서 (6)
5	을병일기	1875~1876	李最應(1815~1882)	국립중앙도서관	2014	총서 (12)

최근에는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국역 성과가 주목된다. DB구축 현황에서 언급했듯이 국립문화재연구소는 2015년부터 조선시대 개인일기 목록자료 조사를 추진해왔고, 이를 토대로 주요자료를 해제하고 일부는 국역하여 성과를 축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첫 번째 작업으로 '사환일기'만을 추려내어 '조선시대 개인일기 국역총서' 4권을 아래와 같이 간행하였다.

■ 국립문화재연구소 '조선시대 개인일기 국역총서'

	일기명	기록시기	저자	연도	자료소장	비고
1	동북안사록	1757~1759	沈鏞(1707~1776)	2018	장서각	함경감사·강원감사
2	금영일기	1780	沈頤之(1735~1796)	2018	장서각	충청감사
3	강영일기	1842~1844	沈能俊(1769~?)	2018	만해기념관	강원감사
4	관동일기	1648	洪命一(1603~1651)	2018	장서각	황해병마절도사

기관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국역 성과들은 대부분 재원 확보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기록 분량이 방대할 경우 더욱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물론 그것은 개인이 번역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지이다. 그래서 필요한 재원을 획득하기 위해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설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기관의 설립 취지와 특성 등을 내세워 그에 부응하는 국역 대상 자료를 발굴하고 선정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문중 단체가 주도하는 고전 국역 사업은 재원 확보가 용이하고 자신들의 선조 업적을 선양할 수 있기 때문에 일찍부터 많은 성과를 축적해왔다. 일기자료 국역 성과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기여가 있었다. 앞에서 언급한 『쇄미록』을 제외하고, 10종 정도를 더 확인할 수 있었다.

■ 문중 출신 인물의 일기 자료 국역

	일기명	기록시기	저자	발행	연도
1	정유피란기	1597~1599	鄭好仁(1579~?)	진주정씨 월촌공 종중	1986
2	해상록	1597~1599	鄭希得(1575~1640)		
3	호종일기	1592	李效元(1550~1629)	함평이씨 장포공파 종회	2005
4	동사록	1711~1712	金顯門(1675~1738)	우봉김씨 계동공파 종중	2007
5	남한일기	1636~1637	俞榮(1607~1664)	기계유씨 시남종중회	2007
6	낙재선생일기	1592~1593	徐思遠(1550~1615)	달성서씨 현감공파 종중	2008
7	양호당일기	1592~1595	李德悅(1534~1599)	광주이씨 양호당 종중	2012
8	용주일기	1627/...	趙綱(1586~1669)	용주연구회	2014
10	진사일기	1592~1597	趙翺(1556~1613)	풍양조씨 호군공파 가휴공 종중	2015

총 194종의 일기자료 국역서 가운데 사행일기 국역서가 93종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약 절반에 가깝고, 중복 국역도 대부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 성과의 추세를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행 일기자료 국역은 매우 이른 시기인 1970년대에 민족문화추진회(현 한국고전번역원)가 <연행록선집>과 <해행총재>를 번역하면서 1차적인 국역 성과가 이루어졌다. 그 현황은 아래와 같다.

- ① <연행록선집> 대동문화연구원 간행(1960년) : 20종 연행록 중 일기체 기록 15종
 - ▶ 1970년대 민족문화추진회(한국고전번역원) 완역 12책
- ② <해행총재> 조선고서간행회 간행(1914년) : 35종 일본기행록 중 일기체 기록 22종
 - ▶ 1970년대 민족문화추진회(한국고전번역원) 완역 16책

이후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한 여러 기관들이 귀증본을 발굴하여 번역하거나 개인이 단독으로 번역하는 성과들이 다시 축적되었다. 그리고 201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연구 프로젝트팀이 관련 자료를 새롭게 발굴 연구하고, 이것을 국역으로 출판하는 성과들이 눈에 띄게 나타난다. 예컨대 보고사가 출판한 ‘통신사 사행록 번역총서’와 ‘수신사기록 번역총서’와 같은 것들이다. 이 가운데 일기체 기록은 총 7종이 확인되었다. 또한 세종대왕 기념사업회에서 2015년부터 ‘연행록 국역총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역된 연행일기가 총 8종 정도 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사행 일기는 중복 국역이 다수 이루어졌다. 예컨대 박대양(朴戴陽, 1848~1888)의 『동사만록』 2종, 박상식(朴祥植, 1845~1882)의 『동도일사』 3종, 박영효(朴泳孝, 1861~1939)의 『사화기략』 2종, 서호수(徐浩修, 1736~1799)의 『연행기』 2종, 신유한(申維翰, 1681~1752)의 『해유록』 2종, 조엄(趙暉, 1719~1777)의 『해사일기』 3종 등이 바로 중복 국역의 사례이다.

4. 조선시대 개인일기 자료의 활용 및 대중적 보급

조선시대 개인일기 자료는 대부분 한문으로 쓰여진 것이기에 이 자료들의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역이 필수적이다. 앞서 국역 현황을 살펴 본 것은 이러한 이유에 기인한다. 활용 및 대중적 보급의 현주소는 크게 두 계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교양총서 시리즈를 꼽을 수 있다.

서울신문 인쇄 취소

정치·농업·세금... 향촌 학자의 일기 속 17세기 조선

일력 : 2015-01-16 23:48 | 수정 : 2015-01-17 01:57

일기를 통해 본 조선 후기 사회사/이성일 외 지음/새물결/275쪽/2만 1000원



일기를 통해 본
조선 후기 사회사

조선시대는 장대한 조선왕조실록이 보여주듯이 기록의 왕조였다. 이는 중앙 정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고 지방의 지식인 수준에서도 비근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일기나 서한이라는 형식을 통해 자신의 소우주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 '일기를 통해 본 조선 후기 사회사'는 경상북도 예안 지방에 거주하던 계안 김형(1577~1641)이 39년 동안 기록한 일기를 6개의 상이한 프리즘으로 조명하는 연구서다. 한국국학진흥원의 일기 연구 1차 연도 결과물로 다분히 이념이나 전쟁, 당쟁으로만 기록되는 조선 후기에 대해 중앙 무대를 중심으로 한 정사와는 다른 미시적 관점에서 들여다볼 수 있다.

김형은 퇴계 이황의 고제인 설원당 김부흥(1531~1598)의 1남 3녀 중 외아들로 부친이 상경 중사한 까닭에 서울에서 태어나 5세에 독서를 시작했다. 어려서부터 학문과 문장이 뛰어나 비교적 어린 나이인 15세에 도산서원 강학에 참여했다. 예안을 대표하는 광산 김씨 가문으로서 선조와 광해군 그리고

[손에 잡히는 책] 조선인이 기록으로 남긴 삶의 궤적들... '일기로 본 조선'

일력: 2013-01-31 17:08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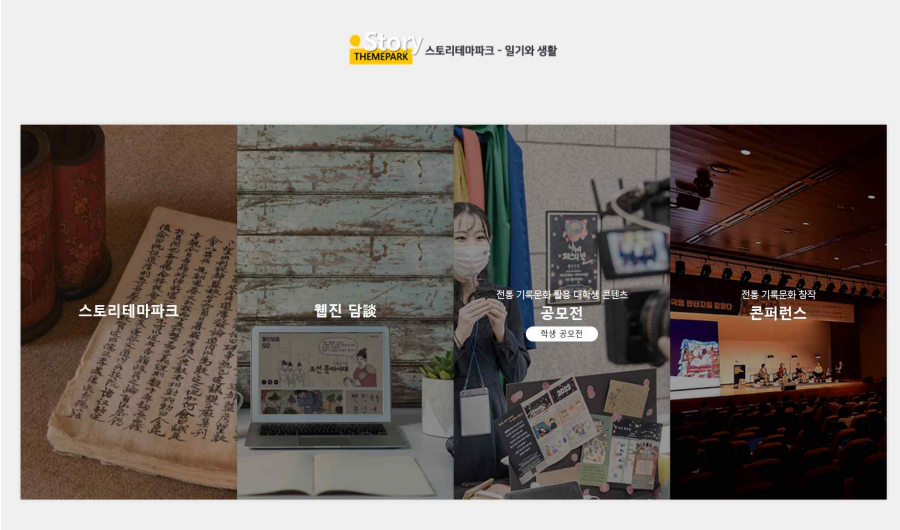
일기로 본
조선

일기로 본 조선/규장각한국학연구원 (글항아리-2만3000원)

조선은 문자의 나라였다. 기록을 남기는 것을 일상였다. 조선인 12명이 쓴 일기를 통해 당시 삶의 궤적과 풍경을 들여다본다. 생의 끝머리에 들어선 이들을 돌보며 쓴 '지병일기', 글씨 잘 쓴다고 서울로 뺏겨 올라간 영리들의 '출장기록', 참혹한 전란의 와중에 사대부가 여인에게 남긴 '병자일기', 양반 아닌 하인이 적은 '하재일기' 등 각종 일기를 모았다.

18세기 하진대의 '가대인시당시일기'에는 모친의 병환을 고치기 위해 손가락을 자른 눈물겨운 효성이 기록됐다. "오

다음은 한국국학진흥원이 구축한 '스토리테마파크-일기와 생활(<https://story.ugyo.net/>)'이다. 스토리테마파크는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일기류 및 기타 기록자료를 활용해 문화예술 창작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야기 소재'를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



한국국학진흥원 | 전통과 기록 | f b y

Story THEMPARK 스토리테마파크 - 일기와 생활

스토리테마파크 | 웹진 | 공모전 | 콘퍼런스

테마스토리 | 인물스토리 | 배경이야기 | 일기정보 | 멀티미디어 | 공지사항 | 이용약관 | 로그인 | 소개

선인들의 일기장에서 최고의 스토리를 찾아라!

전체 |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 Q

다른 사람의 일기장을 훑어보는 일처럼 흥미진진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의 일기에서 찾아낸 흥미로운 스토리들로 가득한 스토리테마파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테마스토리	인물스토리	배경이야기	일기정보	멀티미디어	공지사항 활용사례 로그인 소개
가정	경제	공동체	근대화와 식민지의 시대	나라의 정치	
가족, 친족과의 왕래와 갈등	가계경영과 노동	공동 목표를 위한 조직과 협동	구국에 나선 의인들	관직생활	
개인의 일생과 통과의례	고달픈 세금과 부역	관리와 공조 및 대립	나라를 위한 무장투쟁	국가의 경제사	
그리운 가족	시장과 거래	사람 사이 갈등과 범죄	신문물의 물결과 변화하는 조선	국왕의 명령	
노비들의 삶	자연재해와 흉년의 기록	이웃과 어울리는 삶	이역만리에서의 독립운동	왕실 사람들의 이야기	
			혼란한 정국	조정 of 갈등과 대립	
				조정의 사건과 사고	
외교와 사행	전쟁, 혼란의 기록	종류와 놀이, 여행의 기록들	학문과 과거		
사행길의 사건사고들	전쟁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유림과 감상	과거 급제의 영예		
사행길의 여정	전쟁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	유림과 여행에서 만난 사람들	과거의 부정부패		
외교정책의 수행	전쟁의 진행과 양상	유종의 기록	끝없는 학문의 세계		
외국 사람들과의 만남	피난과 궁핍의 기록	자연과 고적에 얽힌 이야기	어렵고 힘든 과거시험		
외국의 자연과 문물의 경험		하층민의 놀이와 즐거움			

5. 남은과제, 미래방향을 위한 제언

지난 시절 종이책에만 의지하던 때에는 활용의 제한이 뚜렷했었던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그때는 출판 정보를 인지하는 데에도 한계가 존재했다. 시간이 지나 절판이 될 경우, 재간행이나 개정간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해보기도 쉽지 않았다. 지식정보의 ‘DB구축’이 가져다 준 성과는 곧 정보의 영구적 보존과 공유를 통한 활용의 극대화라는 점에서 이견이 없을 것이며, 이것은 비단 ‘조선시대 개인 일기자료’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하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인터넷과 ‘DB구축’이 존재하지 않았던 당시 일일이 현장을 확인하며 자료를 조사하고 목록화하는 작업이 고된 노력과 정성의 결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새삼 인식하게 된다. 종종 잊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연구 성과의 DB는 여기서부터 시작한 것이다.

조선시대 개인일기 자료의 DB구축과 국역에 있어서 성과는 이 분야 연구의 활성화와 지식 정보화 체계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2000년대 접어들면서 확산되기 시작한 생활사 연구는 전통시대 일기자료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고, 이를 기점으로 전국에 산재한 현전하는 일기 목록에 대한 조사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그 후 20년 동안 어떤 형태와 흐름으로 일기자료 목록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것이 DB구축으로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는 앞에서 이미 확인하였다. 이러한 진전을 배경으로 목록 조사의 범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확대되었고, 그 안에 포함되는 중요 일기자료들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국역의 성과는 이러한 DB구축의 확장과 또 다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우선 국역 대상 선택의 폭이 넓어졌고, 기존 국역의 유무 확인이 쉬워져서 중복 국역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최근의 국역 성과들은 대부분 DB화 되고 있고, 덧붙여 오래전 출판으로 실물을 구해보기 어려운 국역서들도 해당 기관들이 자체 홈페이지에서 전자책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저서 국역 성과를 활용할 수 있는 경로가 예전에 비해 다양하고 간결해졌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다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일기자료를 활용한 연구 분야의 활성화이다. 특히 일기자료는 필사 유일본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많고 이런 자료들은 대개가 초서로 되어 있어서 연구자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현재 관련 웹사이트에서는 탈초한 원문DB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가 많고 국역 성과들도 더불어 차곡차곡 축적하고 있으므로, 일기자료 활용의 극대화가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조선시대 일기자료에 기반한 다방면의 연구가 이에 힘입어 지금보다 더욱 활발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전근대 기록유산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기에, 현재에서 바라본 한국학의 미래는 어느 분야라 하더라도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다. 그래도 일기자료는 국역이 이루어졌을 때 그 활용방안이 다양할 수 있다는 지점에서 대중과의 소통 측면에서 가능성이 훨씬 열려 있다. 다만 전문성과 대중성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고민해야만 한다. 4차산업 시대를 살고있는 현재 우리가 논하는 미래는 우리만의 이야기로 끝날 수 없다. 대중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하는 문제는 단순히 대중성을 확보하라는 것을 넘어선다. 간결하게 말하면 전통기록유산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한글로 번역해도 여전히 어렵다. 가공하지 않으면 전달되지 않는 시대를 맞이한 것이다. 본질적인 고민 위에서 창의적이고 다각적이며 융합적인 사고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 토론 ·

조선시대 개인일기 자료 현황 및
활용·보급의 현재,
그리고 미래방향을 위한 제언

안동교
한국학호남진흥원

〈조선시대 개인일기 자료 현황 및 활용·보급의 현재, 그리고 미래방향을 위한 제언〉에 대한 토론

안동교(한국학호남진흥원)

발표자는 이 글을 통해 1990년 초부터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조선시대 개인 일기(日記) 자료의 현황 및 활용·보급에 대해 회고하고, 더불어 미래의 전망과 방향까지 짚막하게 언급해 주었다. 국학(國學)의 한 분야로 30여 년 동안 진행되어온 일기연구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다양한 목록집이나 사이트에 탑재된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검색하여 폭넓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나아가 개인일기 자료의 국역(國譯) 상황도 연대별, 지역별, 인물별로 분류하여 소개하고, 국역의 주체에 대해서도 분석을 아끼지 않았다.

이 발표문은 어떤 특정 인물의 일기에 대한 내용을 다룬 것이 아니라 개인일기의 연구와 활용에 대한 일반적인 회고와 전망을 언급한 글이고, 더구나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하여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토론할만한 논점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토론자는 이 발표문의 내용에 근거하여 한국학호남진흥원이 추진해온 일기사업에 도움이 될 만한 소소한 내용 두 가지를 질문하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1. 발표자는 2009년에 당시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넷 ‘영남사림일기’에 구축된 593종의 일기 자료를 정리해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일기자료의 특징과 의미를 고찰한 바 있다고 하였고, 또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넷 ‘조선시대 일기자료 사이트’에 2024년 기준 총 804종의 일기자료가 구축되어 있다고 소개했으며, 사이트에 등재된 일기자료는 대부분 한국국학진흥원이 소장한 것이지만 일부는 영인 공간되어 잘 알려진 것들도 있다고 밝혔다. 산술적으로 보면, 구축량이 593종에서 15년여 만에 804종으로 증가했으므로 1년에 14종을 구축한 셈인데, 어느 정도의 예산과 인력으로 얼마만큼의 번역문·상세해제·원문표점·이미지 탑재 등을 완료하는지, 특정한 1년을 예시로 삼아 설명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구축할 분량은 앞으로 어느 정도이며, 구축할 분량 속에 호남인물 또는 호남지역 일기는 어느 정도 되는지 데이터가 있으면 소개해 주면 좋겠다.

2. 한국학호남진흥원에서 2022년에 조사한 호남지역의 일기 총목록은 640건이다. 그리고 한국학호남진흥원에서 조사·수집하여 필사본 형태로 소장하고 있는 일기가 160여건이다. 타 지역과 비교해도 수량으로는 크게 뒤지지 않는다. 앞으로도 수집이 진행된다면 될수록 필사본 일기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일기 자료를 연구·활용할 때 목록정리·상세해제·원문표점·국역·이미지 탑재 등 일련의 과정에서 중요하지 않은 절차는 하나도 없다. 그러나 일기 한 건마다 이 일련의 과정을 거쳐 완벽하게 구현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이 중에서도 비용과 노력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곳은 물론 국역의 과정이다. 국역이 필요한 일기는 서둘러 역주작업을 진행해야겠지만(한국학호남진흥원의 경우에는 〈미암일기〉의 증보 재번역, 〈이재난고〉의

신규번역이 필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밀한 목록정리·상세해제·원문표점 작업이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본다. 한국국학진흥원은 이미 일기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어떻게 대중성을 확보할 것인지를 더 걱정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한국학호남진흥원은 위에서 언급한 기초과정을 더 착실히 거쳐야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발표자는 일기사업의 풍부한 경험자로서 후발 주자인 한국학호남진흥원의 일기사업 담당자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는지.

· 발표 ·

湖·南

조선시대 호남 일기자료와
그 활용 가치

日·記

김미선
전남대학교

資·料

조선시대 호남 일기자료와 그 활용 가치

김미선(전남대학교)

1. 호남인의 일기자료, 호남지역의 일기자료
2. 호남 일기자료에 담긴 이야기들
3. 호남 일기자료의 활용 가치
4. 호남 일기자료 활용을 위한 제언

1. 호남인의 일기자료, 호남지역의 일기자료

일기¹⁾는 선조들의 삶이 생생하게 담긴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문학·사학·철학·지리학·민속학·문화콘텐츠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연구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선조들의 일기 속에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겪는 다양한 일들이 담겨 있다. 긴 시간 동안 개인의 일상생활을 기록한 생활일기 속에는 자식의 탄생과 육아, 수학과 과거시험, 여행과 관직생활, 혼인과 제사, 치료와 장례 등이 종합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일정한 시기 동안의 특별한 경험을 기록한 일기로는, 유람이나 일 때문에 여행을 떠났던 일을 기록한 기행일기, 임진왜란과 같은 전쟁체험을 기록한 전쟁일기, 유배지에서의 생활을 기록한 유배일기, 사신으로서 중국이나 일본에 다녀온 일을 기록한 사행일기 등이 있는데, 여기서는 특정한 경험을 집중적으로 볼 수 있다.

호남 일기는 과거 호남인과 호남지역의 다양한 면모를 담고 있어, 호남학 연구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이기도 하다. 호남은 표류문학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표류 체험과 중국 여정을 6개월 여의 일기로 기록한 최부의 『표해록』, 16세기의 대표적인 생활일기인 유희춘의 『미암일기』, 10세부터 63세에 죽기 이틀 전까지 평생을 기록한 방대한 양의 일기 황윤석의 『이재난고』 등 중요한 일기작품을 보유한 지역이다. 또한 임진왜란기에 포로로 일본에 잡혀갔다 귀환한 일을 기록한 일기는 호남 문인의 일기 5편만이 현전하고 있으며, 한말의 의병활동을 기록한 의병일기도 다수 현전하고 있다.

호남의 일기는 크게 두 가지를 말한다. 하나는 호남인이 쓴 일기이고, 다른 하나는 호남지역

1) 일기는 산문 중에서도 분량, 형식이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어디까지를 일기로 볼 것인가에 대해 연구자들이 고민을 해왔다. 현대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일기처럼 날짜와 날씨를 쓰고 그날의 경험을 시간순으로 기록한 경우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정하영은 “명칭이 日記라고 해서 반드시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매일매일 기록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시간적 순서에 따라 사실을 기록한 것’이면 대체로 일기에 포함할 수 있다.”(정하영, 「조선조 ‘일기’류 자료의 문학사적 의의」, 『한국학』 19(4), 한국학중앙연구원, 1996, 27쪽)라고 하였다. 본 발표문에서도 이와 같은 생각 아래 일기의 범위를 넓게 정하였고, 넓은 범위임이 드러나도록 제목 및 소제목에서 ‘일기자료’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본문에서는 서술의 편의를 위해 간략하게 ‘일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일기이다. 후자에는 호남지역 여행을 기록한 일기, 호남지역에서의 유배생활을 기록한 일기, 호남지역에서 관직 생활을 했을 때의 일기 등이 속한다. 그렇다면 호남인이 쓴 일기, 호남지역에서 쓴 일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본 발표문에서는 조선시대 호남 일기 중 특징적인 작품들을 간략히 살펴보고, 호남 일기의 활용 가치를 제시하고자 한다. 필자는 조선시대 일기에 대한 연구,²⁾ 호남 일기에 대한 연구,³⁾ 일기 개별 작품에 대한 연구⁴⁾ 등 일기 연구를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 본 발표문은 기존 필자의 논고에서 호남 일기 관련 부분을 발췌하고 새로운 내용을 덧붙여 작성한 것이다.

2. 호남 일기자료에 담긴 이야기들

일기에 담을 수 있는 이야기들은 무궁무진하다. 중심 내용에 따라 일기를 분류해 보면 생활 일기, 강학일기, 관직일기, 기행일기, 사행일기, 유배일기, 전쟁일기, 의병일기, 사건일기, 장례 일기 등 그 내용의 다양함이 보인다. 호남 일기에도 다양한 내용이 담기는데, 본 장에서는 그

-
- 2) 김미선, 「기행일기 정리의 현황과 과제」, 『국학연구논총』 21, 백민국학연구원, 2018 ; 김미선, 「기행일기로 본 조선시대 명승지」, 『한민족어문학』 89, 한민족어문학회, 2020 ; 김미선, 「섬 여행을 기록한 조선시대 기행일기」, 『도서문화』 53,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019 ; 김미선, 「일기 소재 한시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시가문화연구』 52, 한국시가문화학회, 2023 ; 김미선, 「임진왜란기 해외체험 포로실기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김미선, 「조선시대 기행일기 속 여행 목적」, 『국어문학』 71, 국어문학회, 2019 ; 김미선, 「조선시대 기행일기의 문학교육적 활용」, 『동아인문학』 52, 동아인문학회, 2020 ; 김미선, 「조선시대 기행일기의 범주에 대한 논의」, 『국학연구』 35, 한국국학진흥원, 2018 ; 김미선, 「조선시대 바다 관련 유람일기와 그 활용 가치」, 『한민족어문학』 94, 한민족어문학회, 2021 ; 김미선, 「조선시대 한문 기행일기의 현황과 가치」, 『한국민족문화』 71,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9 ; 김미선, 『조선시대 한문 기행일기』, 경인문화사, 2022.
- 3) 김대현·김미선, 「호남지방 일기자료 연구의 현황과 과제」, 『호남학』 58,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15 ; 김미선, 「문집 부록에 수록된 일기의 양상과 의의 - 호남문집을 대상으로」, 『국학연구』 29, 한국국학진흥원, 2016 ; 김미선, 「유배일기와 문화콘텐츠 -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2022 호남한국학 학술대회 - 광주전남 유배인·유배지의 자원 콘텐츠화 심포지움』,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원, 2022 ; 김미선, 「일기로 본 조선시대 변산반도 유람」, 『국학연구』 49, 한국국학진흥원, 2022 ; 김미선, 「전북지역 유람일기의 현황과 활용」, 『전북학연구』 1,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 2019 ; 김미선, 「호남문집 소재 일기류 자료의 현황과 가치」, 『국학연구』 31, 한국국학진흥원, 2016 ; 김미선, 「호남지역 일기자료 조사·정리의 사례와 그 활용 가치 - 일기자료 조사·정리 방안 모색과 관련하여」, 『영남학』 72,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 2020 ; 김미선, 『호남문집 소재 일기류 자료』, 경인문화사, 2018 ; 김미선, 『호남의 포로실기 문학』, 경인문화사, 2014.
- 4) 김미선, 「『간정일록』의 기록 성향과 특징」, 『한국문학연구』 54,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7 ; 김미선, 「『고성충쇄록』으로 본 조선후기 지방관의 유람과 문학적 형상화」, 『어문론총』 99, 한국문학언어학회, 2024 ; 김미선, 「『노송당일본행록』의 구성 방식과 詩序의 역할」, 『국어문학』 58, 국어문학회, 2015 ; 김미선, 「『서행록』 소재 한시의 현황과 특징」, 『한국시가문화연구』 50, 한국시가문화학회, 2022 ; 김미선, 「『서행록』의 여행 글쓰기 연구」, 『서강인문논총』 64,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2 ; 김미선, 「『서행록』의 이야기 소재와 문화콘텐츠」, 『인문학연구』 36,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4 ; 김미선, 「『표해록』으로 본 18세기 제주도 선비 장한철과 섬사람들」, 『동양학』 78,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20 ; 김미선, 「강주호 기행일기로 본 19세기초 안동 선비의 유람 여행」, 『어문론총』 83, 한국문학언어학회, 2020 ; 김미선, 「소승규 「유봉래산일기」의 유람 여행 글쓰기와 문학교육적 의미」, 『동양학』 84,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21 ; 김미선, 「소승규 <유봉래산일기> 소재 한시 연구」, 『동아인문학』 60, 동아인문학회, 2022 ; 김미선, 「실기문학 속 사실체험 공간으로서의 바다 - 『노송당일본행록』, 『표해록』, 『월봉해상록』을 대상으로」, 『도서문화』 47,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019 ; 김미선, 「오형묵의 『고성충쇄록』 소재 한시 연구」, 『한국시가문화연구』 53, 한국시가문화학회, 2024 ; 김미선, 「임자도 유배에 관한 父子의 기록 읽기 - 김령의 『간정일록』과 김인섭의 『단계일기』를 대상으로」, 『도서문화』 50,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017 ; 김미선, 「장한철 『표해록』의 표류 체험 글쓰기와 문학교육적 의미」, 『영주어문』 44, 영주어문학회, 2020 ; 김미선, 「최부 『표해록』의 기행문학적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중 호남지역의 면모가 잘 드러나는 일기를 ‘호남인의 일상생활’, ‘호남지역 명승여행’, ‘호남지역 유배생활’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호남인의 일상생활

호남인의 일상생활을 볼 수 있는 일기로는 유희춘의 『미암일기』, 황윤석의 『이재난고』가 널리 알려져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일기 속에서 호남인의 일상생활을 볼 수 있는데, 본 절에서는 나주에 거주했던 김만영의 <남교일기>, 고흥에 거주했던 송정약 3대의 『서행록』에 담긴 호남인의 일상생활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본 고을 수령이 굶주린 백성들을 구제하는 일로 인하여 대부분의 불공정한 것을 제거하였다고 한다. 올해의 기근은 전고에 없던 것으로, 관문(官門)에서 굶주림을 호소하는 자가 날마다 수백 명이였다. 관도(官道)를 메워 오염할 정도인지라 태수(太守)가 10일에 한번 창고의 문을 열어 구휼하기로 하였다. 관정(官庭)에 장막을 설치하고 죽을 끓여 주린 백성을 먹이니, 와서 먹는 주린 백성이 날마다 300여 명이였다. 미리 태장(太醬) 70여 단지를 마련하고 해채(海菜) 100여 섬을 사다가 국을 끓여 먹이니 주린 백성들이 매우 기뻐하였다. 또 양쪽 대로 가에 승려들로 하여금 장막을 설치하여 죽을 끓이게 하고 다른 고을에서 경내로 들어오는 유민(流民)을 진휼하여 살리니, 사방에서 소문을 듣고 무수한 사람들이 운집하였다. 또 멀리 관문까지 오지 못하는 농민을 염려하여 직접 곡식을 싣고 가서 구휼하니 고을 백성들이 고을 원의 은혜에 대해 칭송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태수가 백성을 이처럼 사랑하였으니, 태수는 바로 이정(李暹)이다.⁵⁾

재야 학자 김만영(金萬英)의 <남교일기(南郊日記)>는 1649년부터 1665년까지 전라도 남평(현 전남 나주시 남평읍)에서의 삶을 담은 것으로, 문집 『남포집(南圃集)』 권14~15에 수록되어 있다. 매일매일의 기록은 아니며 주요 일자의 일기가 남아 있다. 위는 그중 1661년 4월 9일 일기의 전체이다. 당해에 기근이 심하여 백성들이 굶주린 상황, 구휼을 위한 노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일기 저자 본인의 일상도 볼 수 있지만, 그의 일기를 통해 당시 남평 사람들의 삶도 볼 수 있다.

『서행록(西行錄)』은 조선후기 전남 고흥에 거주했던 여산 송씨 3대(代)의 기행일기이다. 송정약(宋廷岳, 1697~1775)·송지행(宋志行, 1741~1802)·송석년(宋錫年, 1778~1842)은 전남 고흥에서 서울까지 여러 차례 여행을 떠났으며, 송정약은 경기도 용인과 전남 여수, 송석년은 충청도 회덕과 경상도 남해에 다녀오기도 하였다. 일기 기간, 여행지를 중심으로 『서행록』의 구성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서행록』의 구성

5) 金萬英, 『南圃集』, <南郊日記>, “聞主倅以飢民賑給事, 去于將多勿坪. 今年飢饉, 振古所無, 號饑官門者, 日數百人. 填咽於官道, 太守定十日一開倉門賑救之. 設幕于官庭, 作粥而食飢民, 飢民之就食者, 日三百餘人. 預作太醬七十餘甕, 買海菜百餘石, 作羹食之, 飢民大悅. 又於兩大路上, 令僧徒設幕作粥, 他鄉流民之入境者, 賑救活之, 四方聞聲雲集者, 無數矣. 又慮農民不能遠來官門, 親馱米粟, 而往賑之, 邑民誦恩不已. 太守之愛民如此, 太守即李侯暹也.”

순번	일기 기간	권차	저자	저자 나이	여행지
1	1744년 4월 20일~7월 21일	권1	송정악	48	용인, 서울
2	1745년 9월 3일~10월 14일			49	용인, 서울
3	1746년 12월 10일~1747년 1월 28일			50·51	용인, 서울
4	1748년 10월 11일~12월 21일			52	용인, 서울
5	1749년 2월 회일(晦日)~7월 19일			53	서울, 함경도
6	1751년 10월 15일~11월 28일			55	서울, 남양주
7	1752년 4월 13일~9월 4일			56	서울
8	1754년 10월 13일~12월 13일			58	서울
9	1755년 6월 9일~8월 1일			59	서울
10	1757년 10월 15일~12월 28일			61	서울, 청주
11	1758년 6월 3일~1759년 3월 20일			62·63	서울
12	1759년 4월 25일~5월 14일			63	통영
13	1761년 12월 13일~1762년 4월 12일			65·66	서울
14	1763년 1월 19일~1월 25일			67	여수
15	1763년 8월 15일~9월 9일			67	보성, 장흥, 강진, 해남
16	1768년 1월 15일~6월 14일			72	서울, 충청도
17	1769년 5월 10일~7월 3일			73	고흥(나로도)
18	1768년 1월 15일~4월 18일	권2	송지행	28	서울
19	1773년 2월 회일(晦日)~4월 6일			33	서울, 금강산
20	1791년 2월 26일~8월 23일			51	서울
21	1791년 11월 13일~1792년 4월 15일			51·52	서울
22	1792년 9월 15일~1793년 2월 3일			52·53	서울, 묘향산
23	1794년 1월 16일~5월 2일			54	서울
24	1796년 11월 20일~1797년 2월 22일			56·57	서울
25	1798년 9월 2일~1799년 2월 20일			58·59	서울
26	1800년 3월 2일~4월 19일			60	서울
27	1821년 2월 20일~4월 10일	권3	송석년	44	회덕, 서울
28	1821년 11월 19일~12월 20일			44	회덕
29	1823년 3월 21일~4월 28일			46	회덕, 서울
30	1823년 8월 회일(晦日)~10월 6일			46	서울, 전주
31	1827년 9월 25일~10월 19일			50	전주
32	1828년 4월 4일~5월 30일			51	회덕, 서울
33	1828년 9월 11일~11월 3일			51	서울
34	1831년 10월 1일~10월 26일			54	공주, 회덕
35	1832년 윤9월 22일~11월 10일			55	서울
36	1839년 3월 12일~3월 25일			62	남해

여행의 이유는 선조에 대한 문헌 간행과 배포, 묘비 건립 등 선조 현양 관련 일을 보기 위한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본인의 여행 경험을 각각 일기로 남겼고, 『서행록』 권1에는 송정악, 권2에는 송지행, 권3에는 송석년의 기행일기가 담겨 있다. 송정악은 17차례, 송지행은 9차례,

송석년은 10차례 여행을 일기로 남겨, 1744년부터 1839년까지 약 100년간 36차례의 다양한 여행을 볼 수 있다.

오수(葵樹)에서 아침을 먹고 원천(源川)으로 향했다. 폐문교(閉門橋)를 건너 고개 하나를 넘어 외평(外坪)의 사위집에 이르렀다. 대개 내가 지난해 6월에 서울에 올라가느라 노씨(盧氏) 집안으로 출가한 딸을 신행(新行) 보낼 때에 보지 못했는데, 이번에 길이 용성(龍城)을 경유하게 되어 차마 지나칠 수 없었다. 노씨 집안에 출가한 딸이 나를 보고 울음을 터트리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절로 흘러내렸다.⁶⁾

위는 1759년 3월 16일 일기의 일부로, 송정악이 전북 남원 외평에 살고 있는 딸을 만난 일을 기록한 것이다. 오수는 전북 임실, 원천은 남원에 있으며, 용성은 남원의 별호이다. 송정악은 1758년 6월 3일에 길을 떠나 서울에서 『충효록』을 간행하고 해를 넘겨 가며 일을 보았다. 그리고 고흥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원에 들러 딸을 만난 것이다. 『충효록』 간행 일을 보러 가느라 혼인한 딸이 신랑 집으로 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가, 딸 집에 들러 만난 것을 알 수 있다. 짧은 서술이지만 서로 눈물 흘리는 애뜻한 부녀의 모습이 그려진다.

영귀정(咏歸亭)에 이르러 먼저 소식을 물어보려고 온 집안이 병을 앓고 있는 상황이지만 누이 동생을 나오라고 했다. 잠시 울타리 밖에서 보니 오래지 않아 굶어 죽을 것이 분명한 데다 어린아이도 병이 들어 낫지 않고 있으니, 그 광경이 근심스럽고 답답하였다.⁷⁾

위는 1793년 2월 1일 일기의 일부로, 송지행이 전남 순천 영귀정에 살고 있는 누이 동생을 만난 일을 기록한 것이다. 송지행은 1792년 9월 15일에 길을 떠나 서울에서 입향조 송간의 증시(贈諡) 관련 일을 보고, 묘향산 등 북쪽 지방을 유람하였으며, 1793년 2월 3일 고흥의 집에 돌아왔다. 서울로 향할 때인 1792년 9월 18일에도 영귀정에 들러 누이 동생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모습이 매우 가련해 차마 볼 수 없을 정도였다고 서술하였고, 고흥으로 향할 때 다시 누이 동생을 보기 위해 들른 것이다. 전염병이 유행하던 상황에서 문중의 일로 긴 여행을 하고 돌아가던 오빠와 병에 걸린 여동생이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만나는 상황을 볼 수가 있다.

배에서 머문 지 3일째다. 배에 머물 때에 누구는 좋다 누구는 좋지 않다 하면서 이야기들이 분분하였는데, 만일 그 허다한 말들을 따르면 백날 결정하지 못하겠기에 한결같이 돌을 실을 생각만으로 꿈쩍도 않고 누워서 일어나지 않았다.⁸⁾

위는 1768년 5월 27일 송정악 일기의 전문이다. 송정악은 1768년에 석재를 구입하기 위한 여행을 떠나게 된다. 고흥 나로도에 유배되었다가 사사된 한포재(寒圃齋) 이견명(李健命,

6) 宋廷岳, 『西行錄』 卷1, “葵樹朝飯, 向源川. 渡閉門橋, 踰一嶺, 抵外坪婿家. 蓋以余去年六月上洛, 故盧氏女治送新行之際, 不得見之, 今行路由龍城, 不忍過去, 盧氏女見余呼泣, 不覺淚自然下矣.”

7) 宋志行, 『西行錄』 卷2, “至咏歸亭, 先問消息, 舉家方痛, 而舍妹要出. 暫見於籬外, 則非久餓死丁寧, 而且兒少沒痛未蘇, 景色愁阻矣.”

8) 宋廷岳, 『西行錄』 卷1, “留船中三日. 留船之際, 或諾或不諾, 辭說紛紜, 而若從其許多所言, 則百日不決, 故一向以載石爲意, 堅臥不起.”

1663~1722)의 비석을 세우기 위해 돌을 구입하려한 것이었다. 이때의 돌 구입 과정도 일기에 구체적으로 기록되며, 특히 뱃사람들이 돌 싣는 것을 계속 거절해 고생을 하였다. 5월 1일부터 돌 실을 배를 알아보았으나, 여러 차례 거부를 당한 송정악은 위의 인용문에서와 같이 3일간 배에서 머물면서 돌을 실어 보내려 하였다. 72세의 나이에 배에서 3일이나 머무른 집념 가득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날인 5월 28일에 돌은 무겁고 배는 작아 뱃사람의 원망을 들었지만, 그래도 돌을 실어 보낼 수 있었다.

일기 속에는 한시, 제문 등 문학작품이 수록되어 있어, 일기는 문학의 보고(寶庫)로서의 역할도 한다. 『서행록』에는 296수라는 많은 수량의 한시가 수록되어 있어, 조선후기 여행 중에 짓고 향유한 다양한 한시를 확인할 수 있다.

暮到村修德 저물녘 수덕 마을에 도착하였는데
 主人最不仁 주인은 가장 인정 없는 사람이네
 一里皆揮却 온 마을이 다 물리쳐 쫓아내니
 應少會佳賓 응당 좋은 손님이 적게 모이겠네⁹⁾

위는 송석년의 한시로 1839년 3월 12일 일기에 수록되어 있다. 경상도 남해에 있는 충렬사에 가기 위해 여행길에 오른 송석년은 이날 출발하여 저물녘에 순천 수덕 마을의 정생(丁生) 집에 이르렀다. 이때 정생은 출타 중인 상황이었고, 집안 사람이 송석년 일행을 물리치고 집에 들이지 않아 위와 같이 한시를 지은 것이다. 결국 안채에서 다시 불러 그 집에서 유숙하지만, 쫓겨나올 때 지은 한시를 일기에 수록하였고, 한시 속에는 당시의 서운한 심정이 담겨 있다.

그런데 이러한 만남이 일시적인 것이라면 일행과는 긴 여행길을 함께 하게 된다. 고락(苦樂)을 함께한 후 헤어지게 될 때 저자들은 이별의 아쉬움을 한시로 토로하였다.

客地偶逢勝有期 객지에서 우연히 만나니 기약했던 것보다 기쁘네
 維當重九菊花時 중양절이라 누런 국화꽃마저 한창이네
 月餘同苦猶餘愴 한 달 남짓 함께 고생하여 서운한 맘 사무치니
 臨別還成惜別詩 이별에 임하여 다시 석별의 시를 읊노라¹⁰⁾

위는 송석년의 한시로 1823년 10월 4일 일기에 수록되어 있다. 송석년은 1823년 8월 회일(晦日)부터 10월 6일까지 서울을 다녀오게 되는데, 9월 15일에 보성의 종인(宗人) 공서(公瑞)를 만나고, 이후 고향으로 돌아갈 때 동행하게 된다. 위는 공서와 헤어질 때 송석년이 읊은 한시로, 이에 공서가 차운하고, 다시 송지행이 다른 운으로 한시를 지어 “재삼 우두커니 서서 앞으로 가는 길 물어보고 / 강가로 고개를 돌리며 어서어서 가시라 하네[再三立立前頭問, 回首江頭早多云.]”라며 이별의 순간을 한시로 읊는다. 이에 또다시 공서가 차운하고, “그길로 작별하였는데, 천리 길을 함께 고생을 한 뒤라서 그 서운한 마음을 억누르기 어려웠다.[仍與作別, 千里同苦之餘, 其懷難抑.]”라는 서술로 이별 상황은 마무리가 된다. 여행길의 고생을 함께한 사

9) 宋錫年, 『西行錄』 卷3.

10) 宋錫年, 『西行錄』 卷3.

람이기에 이별을 더욱 애석해하는 심경이 한시 속에 담겨 있다.

(2) 호남지역 명승여행

호남지역에는 여러 명승이 있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명산을 자주 찾았고, 명산 유람 여행을 일기로 남기기도 하였다. 제목에 호남지역 산 이름이 명시된 조선시대 기행일기의 수량을 살펴보면 무등산이 15편, 변산이 9편, 천관산이 7편, 월출산이 5편 등이었다.¹¹⁾ 본 절에서는 이중 변산을 비롯한 변산반도 관련 여행을 기록한 일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변산반도는 호남지역의 대표적인 명승지이다. 명산인 변산, 아름다운 채석강 등이 있는 변산반도는 바다와 어우러진 뛰어난 풍경으로 현대에 많은 사람이 찾고 있으며, 조선시대에도 그 명성이 높았다. 변산 관련하여 연재 송병선은 <변산기>의 첫부분에서 “변산은 바닷가의 산이다. 국내에서 이름났고 세상에서는 소봉래(小蓬萊)라고 일컫는데, 동봉(東峯)과 월사(月沙)가 모두 금강산이나 지리산과 으뜸을 다투다고 하였다.”¹²⁾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일기를 통해 조선시대 변산반도 유람을 볼 수 있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조선시대 변산반도 유람을 기록한 일기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조선시대 변산반도 유람을 기록한 일기

순번	일기명	출전	저자	생몰년	일기 기간	시기	구분
1	유변산록 (遊邊山錄)	휴옹집 (休翁集)	심광세 (沈光世)	1577 ~1624	1607년 5월	17	변산 유람일기
2	유변산기 (遊邊山記)	과재집 (果齋集)	이세환 (李世煥)	1664 ~1752	1687년 5월	17	
3	변산동유일록 (邊山東遊日錄)	목산고 (木山藁)	이기경 (李基敬)	1713 ~1787	1748년 윤7월 17일~25일	18	
4	유변산록 (遊邊山錄)	명은집 (明隱集)	김수민 (金壽民)	1734 ~1811	1794년 4월	18	
5	유변산일기 (遊邊山日記)	수월사고 (水月私稿)	박제망 (朴齊望)	1841 ~1903	1864년 4월 6일~17일	19	
6	변산기 (邊山記)	연재집 (淵齋集)	송병선 (宋秉璿)	1836 ~1905	1869년 2월	19	
7	남악기유 (南嶽紀遊)	계서고 (溪墅稿)	이계서 (李溪墅)	19세기	1880년 8월 1일~15일	19	
8	유봉래산일기 (遊蓬萊山日記)	난곡유고 (蘭谷遺稿)	소승규 (蘇昇奎)	1844 ~1908	1897년 4월 16일~5월 1일	19	
9	유변산기 (遊邊山記)	노하집 (盧河集)	박모 (朴模)	1828 ~1900	미상	19	
10	유격포기 (遊格浦記)	표암유고 (豹菴遺稿)	강세황 (姜世晃)	1713 ~1791	1770년 5월	18	격포, 우금암 유람일기
11	유우금암기 (遊禹金巖記)	표암유고 (豹菴遺稿)	강세황 (姜世晃)	1713 ~1791	1770년 또는 1771년 2월	18	
12	몽행록	설담집	자우	1709	1763년 8월	18	여러 유람지 중

11) 김미선, 「기행일기로 본 조선시대 명승지」, 『한민족어문학』 89, 한민족어문학회, 2020, 125쪽.

12) 宋秉璿, 『淵齋集』, <邊山記>, “邊山海嶽也. 名於國中, 世稱小蓬萊, 東峯月沙, 皆以金剛智異.”

순번	일기명	출전	저자	생물년	일기 기간	시기	구분
	(夢行錄)	(雪潭集)	(自優)	~1770	27일~9월 27일		변산반도를 포함한 일기

‘변산(邊山)’, ‘남악(南嶽)’, ‘봉래산(蓬萊山)’과 같이 산이 제목에 등장하고 변산이 유람의 주목적지인 유람일기는 9편을 확인하였다. 모두 17~19세기의 작품으로, 변산을 유람하면서 격포 등 인근 지역을 함께 유람하는 경우가 많아 변산반도 전체적인 유람을 볼 수 있다.

1897년 4월 16일 익산 선비 난곡(蘭谷) 소승규(蘇昇奎, 1844~1908)는 부안의 변산으로 유람 여행을 떠났다. 그의 여행에는 친구 소초(小樵) 김은학(金殷學), 동운(桐雲) 황치경(黃致敬)이 동행하였으며, 4월 19일에 부안에 도착한 후 먼저 상소산을 유람하였다. 이후 우금암, 실상사, 직소폭포, 월명암, 지지포, 채석강, 격포 등 변산 곳곳을 유람하고, 5월 1일에 익산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유람 여행을 떠나기 이틀 전인 4월 14일부터 집으로 돌아온 5월 1일까지 하루하루의 일을 일기로 기록한 <유봉래산일기(遊蓬萊山日記)>를 남겼고, 이를 통해 여행의 전(全) 과정을 세세히 볼 수가 있다.

시냇가를 따라 올라가보니 한 기이한 바위가 있는데, 장군암(將軍岩)이라고 했다. 한 곳에 이르자 머리가 흰 늙은 할미가 주막을 차려놓고 앉았는데, 갈증을 참을 수 없었다. 배방석에 마주앉아 석 잔을 주고받았다. 가슴을 풀어헤치고 바람을 쐬노라니, 바람결에 종소리가 홀연히 들려왔다. 소리를 따라 고개를 돌려보니 실상사(實相寺)가 산 아래 평지에 있었다. 종을 먼저 보내 저녁밥을 짓게 하고, 그늘 아래 거니노라니 다시 맑은 시냇물이 나타났다. 물을 움켜 양치를 하고 천천히 걸어서 절문까지 갔다. 절은 황량하고 불상(佛像)도 시원찮은데, 어린 도리(闍利)가 손을 맞잡고 왔기에 실상사의 실상을 물었다.¹³⁾

위는 소승규의 <유봉래산일기> 1897년 4월 20일 일기의 극히 일부만 예로 든 것이다. 이날에는 우금암에 올라가는 과정, 옛날에 한 스님이 바위벽의 처마에서 떨어지는 흰 쌀을 주워 모아 먹었는데 배불리 먹고 싶어 구멍을 크게 하였더니 쌀이 물로 변하였다는 동굴 관련 설화, 우금암 지명에 대한 두 가지 유래, 우각봉과 바다의 풍경, 소승규와 친구들이 읊은 3수의 시, 노적리에 대한 평가, 진사 박필환을 찾아가 남초를 얻은 일 등이 시간순으로 자세하게 기록된 후, 위에 인용한 것과 같이 실상사로 가게 되는 과정이 서술되어 있다.

한 곳에 이르러 늙은 할미의 주막을 보고 갈증을 참을 수 없어 술을 마시고, 바람결에 종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려 실상사를 보게 되며, 시냇물을 움켜 양치하고 실상사에 이르는 과정이 기록된다. 일기에서 시간순으로 기록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가장 흔한 글쓰기 방식이기도 하다. 그런데 위 인용문에서 보듯이 소승규는 실제 그 시간 속에 있는 듯이 서술하고 있다.

또한 일기를 통해 변산반도 유람지에서 한시를 수창하고, 술을 나누어 먹는 모습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소승규의 <유봉래산일기>에는 여행 중에 본인과 일행이 지은 82수의 한시가 수록되어 있는데, 변산반도 명승에 대해 읊은 것이 많다.

13) 蘇昇奎, 『蘭谷遺稿』, <遊蓬萊山日記>, “緣溪而上, 有一奇巖, 曰將軍岩也. 至其一處, 皤皤老嫗, 當壚蹲坐, 不勝喉渴. 布席對坐, 相斟三盃. 披胃向風, 風便鐘聲, 忽然出來. 踏聲回首, 則實相寺在山下平地. 先使奚童, 催供夕飯, 徘徊陰下, 更臨清流. 掬水漱齒, 後步至寺門. 梵宮荒涼, 佛像醜性, 有小闍利, 叉手于前, 問其實相之實.”

昨日山中今海頭 어제는 산속에 있다 지금은 바다 머리에 오니
 云云彩石幾千秋 오색 조약돌들은 몇 천 년이나 되었다.
 良辰滿載劉伶酒 오늘같이 좋은 날 유령의 술을 가득 싣고
 與子同乘李白舟 그대와 함께 이백의 배를 탔네.
 磅礪鷄山雲外屹 넓고 큰 계산이 구름 너머 솟았고
 渺茫蜃島水中浮 아득한 위도가 물 속에 떠 있으니,
 蓬壺名勝無如此 봉래산 명승에 이 같은 곳 없어
 使我詩心未盡酬 나 같은 시심으로도 응답치 못하겠네.¹⁴⁾

위는 소승규 <유봉래산일기>에 수록된 한시 중 채석강에서 읊은 것이다. 소승규는 채석강의 풍경에 반하여, 채석강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후 홀로 시를 먼저 1수 읊는다. 그리고 동행한 친구들과 채석을 줍고 자랑하며 놀다가 읊시를 수창한다. 위의 소승규 한시가 먼저 수록된 후, 이후 동행인 김은학, 황치경의 시가 차례로 수록되어 있다.

소승규는 술을 좋아했던 유령(劉伶)의 고사와 채석강에서 술을 마시고 배를 타고 놀다가 죽었다는 이백(李白)의 전설을 언급하여 채석강에서 노니는 상황을 표현하고, 봉래산, 즉 변산의 명승에 이 같은 곳이 없어 시로 다 응할 수 없다고 칭송하고 있다. 채석강은 바닷가에 있는 명승지로, 소승규의 일기를 통해 변산반도를 유람한 선비들이 이곳에서 채석을 줍고 놀며, 뛰어난 풍경을 시로 읊는 것을 볼 수 있다.

(3) 호남지역 유배생활

유배라는 비극적 상황 속에서 유배인들은 한시, 시조, 가사, 편지, 일기 등 다양한 문학작품을 창작하였다. 이중 유배일기는 현대에 활용가치가 높다. 유배를 가기 전의 상황, 유배지까지의 이동 과정, 유배지에서의 삶, 해배 후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유배생활 당시 유배인의 심정도 진솔하게 담겨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배지역의 자연 경관, 지역민들의 삶 등도 일기 곳곳에 기록되어 해당 지역을 연구하고 역사를 보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호남지역은 한양과 거리가 멀고 다양한 섬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유배생활을 하였고, 유배일기도 다양하게 남아 있다.¹⁵⁾ 현재까지 확인한 조선시대 호남지역 유배인이 남긴 일기를 표로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조선시대 호남지역 유배인이 남긴 일기

14) 蘇昇奎, 『蘭谷遺稿』, <遊蓬萊山日記>.

15) 호남지방문화연구원에서는 928명의 호남 유배인 명단과 유배 기록, 유배 이유, 지역, 그리고 문집, 시집, 일기, 간찰 등의 저술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담은 『호남유배인 기초목록』((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2017)을 출간하였다. 이 책을 통해 호남 유배인의 대략적인 면모를 파악할 수 있다.

순번	일기명	저자	생몰년	유배지역	시기	비고
1	남천록 (南遷錄)	황중윤 (黃中允)	1577 ~1648	해남	1623	- 필사본, 문집 수록본 두 가지가 전해짐. - 문집 『동명집(東溟集)』 내에 '남천일록(南遷日錄)'이라는 제목으로 수록.
2	광양적행일기 (光陽謫行日記)	김간 (金侃)	1653 ~1735	광양	1701	- 문집 『죽봉문집(竹峯文集)』 내에 수록.
3	남천록 (南遷錄)	송상기 (宋相琦)	1657 ~1723	강진	1722 ~1723	- 문집 『옥오재집(玉吾齋集)』 내에 수록.
4	수안록 (隨雁錄)	임징하 (任徵夏)	1687 ~1730	제주도	1727	- 문집 『서재집(西齋集)』 내에 수록.
5	유남명기 (遊南溟記)	조관빈 (趙觀彬)	1691 ~1757	제주도	1731	- 문집 『회헌집(悔軒集)』 내에 수록.
6	경신동지일시기 (庚申冬至日始記)	김성탁 (金聖鐸)	1684 ~1747	광양	1740 ~1741	
7	해상일록 (海上日錄)	이기경 (李基敬)	1713 ~1787	해남	1748 ~1751	- 문집 『목산고(木山藁)』 내에 수록.
8	사촌일록 (沙村日錄)	이기경 (李基敬)	1713 ~1787	익산	1751 ~1752	- 문집 『목산고(木山藁)』 내에 수록.
9	적소일기 (謫所日記)	김약행 (金若行)	1718 ~1788	진도 금갑도	1781 ~1788	- 한글로 기록.
10	금성일록 (錦城日錄)	김구주 (金龜柱)	1740 ~1786	나주	1784 ~1786	- 문집 『가암유고(可庵遺稿)』 내에 수록.
11	병인일기 (丙寅日記)	이우 (李瑀)	1739 ~1811	완도 고금도	1806	
12	경오일록 (庚午日錄)	이상채 (李相采)	1787 ~1854	화순	1810 ~1812	- 문집 『수졸재문집(守拙齋文集)』 내에 수록.
13	신도일록 (薪島日錄)	이세보 (李世輔)	1832 ~1895	완도 신지도	1860 ~1863	- 한글로 기록. 시조 95수 수록.
14	간정일록 (艱貞日錄)	김령 (金檣)	1805 ~1865	신안 임자도	1862 ~1863	
15	탐적일기 (耽謫日記)	최익현 (崔益鉉)	1833 ~1906	제주도	1866 ~1873	- 필사본으로, 문집 『면암집(勉菴集)』의 <탐적전말(耽謫顛末)>과 많은 부분 일치함.
16	남천일기 (南遷日記)	최익현 (崔益鉉)	1833 ~1906	제주도	1873 ~1875	- 필사본으로, 문집 『면암집(勉菴集)』의 <연보(年譜)>와 일부 중복됨.
17	갑술진소전말 (甲戌陳疏顛末)	손영로 (孫永老)	1820 ~1891	진도 금갑도	1874	- 문집 『목서문집(木西文集)』 내에 수록.

순번	일기명	저자	생몰년	유배지역	시기	비고
18	자산록 (茲山錄)	박우현 (朴遇賢)	1829 ~1907	신안 흑산도	1874 ~1884	- 문집 『금파유집(錦坡遺集)』 내에 수록.
19	흑산적행일기 (黑山謫行日記)	최익현 (崔益鉉)	1833 ~1906	신안 흑산도	1876 ~1878	
20	흑산도회정일기 (黑山島回程日記)	최익현 (崔益鉉)	1833 ~1906	신안 흑산도	1879	
21	은파유필 (恩波濡筆)	정만조 (鄭萬朝)	1858 ~1936	진도 금갑도	1896 ~1907	

위는 일기에 기록된 시기 순서로 정리한 것으로, 17세기 1편, 18세기 9편, 19세기 10편, 19~20세기 1편 등 총 21편을 확인하였다. 최익현의 경우 충남 청양 모덕사에 소장된 필사본 유배일기 4편이 전해져 수적으로는 많으나, 2번의 유배를 기록한 것이다. 이외 김윤식(金允植, 1835~1922)의 『속음청사(續陰晴史)』에도 제주도, 신안 지도 유배가 기록되어 있으나, 1887년부터 1921년까지의 일기 중 유배기간이 일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위의 표에는 넣지 않았다.

유배인이 직접 본인의 유배생활을 기록한 일기는 당연히 중요성이 높다. 유배 당사자의 시선으로 당대의 유배생활과 감정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유배인을 만나러 호남지역을 찾은 사람들이 일기를 남긴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현재 까지 확인한 조선시대 호남지역 유배인을 만나러 간 일을 기록한 일기를 표로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조선시대 호남지역 유배인을 만나러 간 일을 기록한 일기

순번	일기명	저자	생몰년	유배지역	시기	비고
1	남유록 (南遊錄)	이하곤 (李夏坤)	1677 ~1724	강진	1722	- 강진에 유배 중인 장인 송상기(宋相琦, 1657~1723)를 만나고 온 일을 기록. - 문집 『두타초(頭陀草)』 내에 수록.
2	부해기 (浮海記)	정학유 (丁學游)	1786 ~1855	신안 흑산도	1809	- 흑산도에 유배 중인 중부(仲父) 정약전을 만나고 온 일을 기록. - 문집 『운포유고(耘圃遺稿)』 내에 수록.
3	호남기행 (湖南紀行)	김익동 (金翊東)	1793 ~1860	신안 지도	1855	- 지도에 유배 중인 유치명(柳致明, 1777~1861)을 만나고 온 일을 기록. - 문집 『직재집(直齋集)』 내에 수록.

순번	일기명	저자	생몰년	유배지역	시기	비고
4	해상일기 (海上日記)	박해량 (朴海量)	1850 ~1886	제주도, 신안 흑산도	1874 ~1876	- 최익현이 제주도와 흑산도에 유배되었을 때 찾아가 수하한 일을 기록. - 문집 『율수재유고(律修齋遺稿)』 내에 수록.
5	남행일기 (南行日記)	최영조 (崔永祚)	1859 ~1937	신안 흑산도	1876, 1878	- 흑산도에 유배 중인 아버지 최익현을 두 차례 만나고 온 일을 기록.
6	흑산록 (黑山錄)	김훈 (金勳)	1836 ~1910	신안 흑산도	1878	- 흑산도에 유배 중인 최익현을 만나고 온 일을 기록. - 문집 『동해집(東海集)』 내에 수록.
7	해상지알록 (海上費謁錄)	박종상 (朴宗相)	1865 ~1947	신안 지도	1883	- 지도에 유배 중인 김평묵(金平默, 1819~1891)을 만나고 온 일을 기록. - 문집 『면파유고(綿坡遺稿)』 내에 수록.

〈표 3〉과 마찬가지로 일기에 기록된 시기 순서로 정리하였으며, 18세기 1편, 19세기 6편 등 총 7편을 확인하였다. 이하곤의 〈남유록〉은 위의 일기 중 가장 알려진 작품으로, 강진을 오가는 과정에서 지나게 된 호남지역 곳곳에 대한 여행을 담고 있다. 정학유는 정약용의 둘째 아들로, 강진에 가서 유배 중인 아버지를 뵈 후 강진에서 출발하여 흑산도에 가 중부인 정약전을 만나고 온 일을 기록하였다. 박해량, 최영조, 김훈은 모두 유배 중인 최익현을 만나고 온 일을 기록하였으며, 이 중 최영조는 최익현의 아들이다. 이외에 김인섭(金麟燮, 1827~1903)의 『단계일기(端溪日記)』에도 신안 임자도에서 유배 중인 아버지 김령을 만나고 온 일이 기록되어 있으나, 65년간의 방대한 일기 중 극히 일부의 내용에 해당하므로 위의 표에 넣지 않았다. 위의 〈표 3〉과 〈표 4〉는 대략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만든 것으로, 호남지역 유배일기를 본격적으로 조사한다면 더 많은 일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신안 흑산도에 유배되었던 정약전은 일기를 남기지 않았지만, 그를 만나러 왔던 조카 정학유는 일기를 남겨 정약전이 흑산도에서 유배 중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정약전은 1801년 신유박해 때 완도 신지도로 유배되었다가 황사영 백서 사건으로 신안 흑산도에 이배되었다. 정학유가 중부 정약전을 뵈러 뱃길의 위험을 무릅쓰고 흑산도까지 가게 된 것은 아버지 정약용의 부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금 임금 원년 신유년(1801) 겨울에 중부이신 손암 선생께서 흑산도로 귀양 가셨다. 섬은 나주 바다 가운데 있으니 큰 바다를 천 리나 건너야 한다. 바람과 파도가 몹시 거세서 집안사람이나 부자간이라도 감히 직접 가서 뵈지는 못하였다. 정묘년(1807) 봄에 학초(學樵)가 조운선을 타려고 행장을 이미 갖추었으나 병에 걸려 요절하고 말았다. 중부께서는 아득히 기다리시다가 달을 넘기고서야 이곳은 소식을 들었다. 궁하고 외로운 처지를 슬퍼하다가 도리어 병이 되어 해를 넘기도록 앓아누워 아침저녁을 기약할 수 없었다. 무진년(1808) 봄에 내가 강진에 가서 거칠게 아버님을 봉양하였다. 아버님께서 내 손을 붙드시더니 울면서 말씀하셨다. “나는 그래도 물에서 살아 주위 환경과 서책이

완전히 인간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 저 구름바다를 바라보노라면 그 형편이 어떠하겠느냐. 네가 한번 가서 뵈도록 해라.”¹⁶⁾

위는 <부해기>의 첫 부분으로, 정약전의 흑산도 유배 과정, 바닷길이 험한 흑산도로 가족들이 찾아가지 못한 상황이 간략히 서술되어 있다. 그리고 정약전의 아들 정학초가 사망한 일, 이로 인해 정약전이 병이 들고, 이러한 정약전을 걱정하던 정약용이 울면서 아들 정학유에게 정약전을 뵈러 다녀오라고 부탁하는 상황이 서술되어 있다. 이를 통해 다른 곳으로 유배된 형을 걱정하는 유배인 정약용의 애타는 마음을 볼 수 있으며, 이후의 일기를 통해 유배인 정약전의 유배생활을 일부 볼 수 있다.

중부께 글을 배우던 자가 당나라의 소시(小詩)를 배우다가 이렇게 물었다. “말 위에서 한식을 만나고 보니[馬上逢寒食]’라는 시에서, 말은 대체 어떤 동물인가요?” 중부께서 말씀하셨다. “말은 소와 비슷하지만 뿔이 없고 발굽은 둥글며 갈기는 길다. 타고 다니기만 하고 발 갈지는 않는 것이 이것이다.” 내 생각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낙타와 사자와 코끼리를 본 적이 없어서 낙타를 두고 말 등에 종기가 났다고 하고 코끼리를 보고 소의 코를 잡아당겼다고 하는 것과 오십보백보이니 어찌 웃을 수 있겠는가.¹⁷⁾

정학유는 1809년 2월 3일에 강진에서 출발하여, 2월 12일에 흑산도에 도착, 중부 정약전을 만났으며, 3월 21일에 정약전과 작별하고 흑산도를 떠나, 3월 24일에 강진에 도착하였다. <부해기>는 이 전체 여정을 기록하고 있으며, 위는 2월 13일 일기의 일부이다. 위를 통해 정약전이 흑산도에서 글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말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흑산도 사람에게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정약전의 면모도 볼 수 있다.

정학유는 1809년 2월 12일 흑산도에 도착하였고, 3월 21일에 다시 출발하였으니 약 40일 가량 흑산도에 머물렀다. 기간은 짧은 편이지만 정약전의 유배지역인 흑산도에서 보고 들은 것을 생생하게 기술하여, 당시 흑산도의 상황을 볼 수 있게 한다.

지난해 겨울 12월에 표류선 한 척이 흑산도의 장섬항(長苔港)에 왔다가, 암초에 부딪쳐 배가 부서진 일이 있었다. 다만 두 사람이 뱃머리에 서서 싹싹 빌며 목숨을 구걸하더니 몸을 던져 물으로 올라오려다가 모두 바위에 부딪쳐서 죽었다. …… 애석하게도 그 내버려진 유해를 거두어 묻어주는 이가 아무도 없어 지금껏 백사장에 그대로 놓여 있으니 몹시 근심할 만하다. 대개 표류선이 섬에 정박하면 지방관에게 알려서 검사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관리와 토교(土校)가 어민을 가혹하게 침탈하여 걸핏하면 비용이 수천여 꺾미에 이르므로 고기 잡는 어부와 떠돌이 백성이 반드시 유랑민이 되고 만다. 이 때문에 숨겨두고 소문내지 않는다. 또 손을 대서 물어주었다가는 모진 심문을 받아야 하므로 파리와 모기떼에게 내버려두게 되는 것이다.¹⁸⁾

16) 丁學游, 『耘圃遺稿』, <浮海記>, “當寧元年辛酉之冬, 仲父巽菴先生謫配黑山島. 島在羅州海中, 越洋千里, 風濤屬臯, 家人父子莫敢往觀. 丁卯春, 學樵欲乘漕舶, 行李既具, 遭疾而夭. 仲父吟望, 彌月乃得惡報. 恤焉窮獨, 轉爲疾疢, 踰年沈痼, 不保朝夕. 戊辰春, 余到康津, 粗修溫清. 家君執我手而泣曰, 吾猶陸居, 泉石圖書宛如人間, 顧瞻雲海, 斯何人哉, 汝其圖之.” 정민(鄭敏)의 논문 「새자료 정학유의 흑산도 기행문 「부해기」와 기행시」(『한국한문학연구』 79, 한국한문학회, 2020)의 부록에 <부해기> 번역문과 원문 전체가 수록되어 있다.

17) 丁學游, 『耘圃遺稿』, <浮海記>, “從仲父學書者, 受唐小詩, 問馬上逢寒食, 馬是何物. 仲父語之曰, 馬似牛而無角, 圓蹄長鬣, 騎而不耕者, 是也. 余惟我邦之人, 不見橐駝獅象. 馬腫背而牛曳鼻, 其間五十步也. 何哂焉.”

18) 丁學游, 『耘圃遺稿』, <浮海記>, “前年冬十二月, 有一漂船到黑山島長苔港, 觸焦船破. 唯有二人立船頭, 按摩乞命, 攬

태사도(太師島)는 흑산도의 남쪽 100여 리에 있다. 문물은 가거도보다는 조금 나아 보이나 흑산도의 백성들은 오히려 그들을 업신여겨 이승(夷丞)이라고 부른다. 지난해 가을에 태사도의 백성들이 흑산도에 왔다가 처음으로 장기[象棋]를 배워 돌아가서 퍼뜨렸다. 흑산도 사람들이 이를 듣고 크게 노하여, “교활한 오랑캐가 우리를 흉내 내려 하니, 가서 때려 부숴 감히 다시는 익히지 못하게 해야겠다.”고 말했다.¹⁹⁾

위의 첫 번째 인용문은 2월 16일 일기의 일부이고, 두 번째 인용문은 2월 18일 일기의 일부이다. 첫 번째 인용문을 통해 표류선이 흑산도에 표착하다가 배가 부서지고 사람이 죽었으나, 관리들의 가혹한 침탈을 피하려 이를 숨기고 시신조차 거두지 못하는 상황을 볼 수 있다. 두 번째 인용문을 통해 흑산도 주민들이 인근 섬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상황을, 장기를 배워 간 것에 분노하는 구체적인 일화와 함께 볼 수 있다. 이는 유배인 정약전을 보기 위해 정학유가 흑산도에 갔고, 그가 일기로 구체적으로 서술했기 때문에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것이다.

3. 호남 일기자료의 활용 가치

조선시대 호남인의 삶과 문화, 호남지역에서 있었던 일을 구체적으로 담은 호남 일기는 현대에 다양한 활용 가치를 갖는다. 이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네 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호남 일기는 호남학 관련 다각적 학술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호남은 광주·전남·전북·제주를 아우르는 지역으로 ‘남도(南道)’, ‘전라(全羅)’라는 명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예향으로 일컬어지는 호남의 문학, 학문에 대해서는 그동안 호남지역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2017년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설립으로 연구가 더욱 활성화 되고 있다. 호남 일기는 호남인, 호남지역을 연구할 때 귀중한 학술자료가 될 것이다.

한 예로, 호남인의 일기 중 금강산과 같은 다른 지역의 유명한 산으로 유람을 가거나, 서울을 다녀온 일을 기록한 일기도 있지만 호남의 명산, 호남의 여러 지역을 다녀온 일을 기록한 일기가 있다. 이러한 일기를 통해 과거 선조들이 호남의 명승을 어떻게 다녀왔으며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볼 수 있다. 여행은 먼 곳으로 떠나기도 하지만 자기의 거주지와 가까운 곳으로 가기도 하며, 한 군데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을 연달아 여행하기도 한다. 호남 일기에는 호남의 여러 지역을 여행하고 쓴 일기들도 있다.

〈표 5〉 조선시대 호남의 여러 지역 여행을 기록한 일기 예시

순번	일기명	출전	저자	생몰년	일기 기간	요약
1	역진연해군현잉입두류 상쌍계신흥기행록(歷盡 沿海郡縣仍入頭流賞雙溪 神興紀行祿)	제호집 (霽湖集)	양경우 (梁慶遇)	1568~?	1618년 윤4월 15일~5월 18일	영암, 진도, 지리산 등을 유람한 일을 기록.

身下陸，皆觸石而死。……惜其委貳，無人收埋，尙暴沙場，甚可愍也。蓋有漂船泊島，報知地方官查檢，則官吏土校，侵漁剝割。動至數千餘緡，漁蠻雁戶，必成流勾，故匿不以聞。又恐著手埋葬偏被告訊，所以委之蠅蚋也。”

19) 丁學游, 『耘圃遺稿』, 〈浮海記〉, “太師島在黑山之南百餘里。文物視可佳稍長，然黑山之民，猶然侮之，號曰夷丞。去年秋夷丞之民，到黑山始學象棋，歸而播之。黑山人聞之大怒曰，黠虜欲效我曹，往而毀之，令毋敢復習焉。”

순번	일기명	출전	저자	생몰년	일기 기간	요약
2	서행일록(西行日錄)	낭해선생집(朗海先生集)	이휴(李休)	1819~1894	1846년 3월 16일~6월 21일	여러 교우들과 해남에서 강진, 함평, 나주, 정읍 등을 다녀온 일을 기록.
3	좌행일기(左行日記)	노하선생문집(蘆河先生文集)	박모(朴模)	1828~1900	1874년 3월~4월	만연산, 무등산 등을 다녀온 일을 기록.
4	남유록(南遊錄)	학남재유고(學南齋遺稿)	장기홍(張基洪)	1883~1956	1904년 8월 18일~21일	담양, 광주 등을 유람한 일을 기록.

금강산을 유람한 일기를 통해서는 호남인들이 금강산으로 출발할 때와 도착할 때만 배경이 호남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일기는 모든 배경이 호남이며, 단일 산이나 누정이 아닌 연속적인 여행 경로가 나타난다. 이러한 일기를 통해서는 호남인이 자신의 고향을 어떻게 생각하고 근처의 명승을 어떻게 여행했는지를 볼 수가 있다.

송재용은 유희춘의 『미암일기』를 연구하면서 이 일기가 문학사적으로 주목되는 일기이며, 특히 일기문학 측면에서 매우 높이 평가된다고 하였다.²⁰⁾ 그리고 정치·사회·경제·행정·사상·예속·민속·한의학·복식·풍수지리·천문기상·식생활사적으로도 그 자료적 가치가 높다고 하였다.²¹⁾ 조선시대 여러 일기가 담고 있는 다양한 내용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다. 일기는 일기문학으로서도 의의가 있지만 사학, 철학, 민속학 등 다양한 학문의 연구자료로서도 의의가 있다. 호남 일기는 호남인의 삶을 담거나 호남지역에서의 일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호남학 관련 다각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호남 일기는 호남인물의 입체적 파악에 활용할 수 있다. 문집, 지방지에 실린 인물에 대한 글은 그동안 중요성이 인정되어 인물에 대해 파악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 인물에 대한 중요성은 이미 인식되었고, 전기자료를 중심으로 인물정보를 정리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²²⁾ 그런데 적게는 간행본 2면에서 많게는 20면에 이르는 한 편의 글에 인생 전체가 들어있다 보니 요약적일 수밖에 없다.

전기자료는 인물의 평생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인물의 세세한 삶을 보기가 어렵다. 이러한 전기자료의 부족한 점은 일기를 통해 채울 수가 있다. 곧 인물의 세세한 삶, 구체적인 생활은 일기를 통해 파악할 수가 있다. 호남 일기는 호남인들의 교유, 호남지역에서의 삶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호남 일기는 호남인물을 입체적으로 파악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호남의 대표적인 일기를 남긴 인물인 최부를 예로 들어보자. 최부는 1488년 제주도에 추쇄경차관으로 있던 중 아버지의 상을 당해 고향 나주로 가다 표류하여 중국을 거쳐 조선으로 돌아왔으며, 그 5개월 남짓의 일을 적은 일기 『표해록』을 남겼다. 조선시대에 해외에 가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었다. 더구나 표류로 인해 중국으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황제를 알현하고 다시

20) 송재용, 『『미암일기』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314쪽.

21) 송재용, 『『미암일기』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309쪽.

22) 전남대학교 호남한문고전연구실, 『호남 주요 인물 전기자료』, 전남대학교출판부, 2010 ; 호남지방문화연구원소편, 『호남관련인물 전기자료 선집』 1·2,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2016~2017.

조선으로 오는 과정은 매우 특별한 경우였다. 그런데 이러한 특별한 일은 그의 일생에서는 짧은 기간의 일이라 전기자료에는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다.

정미년(1487)에 부교리로 승차하였다. 9월에 추쇄경차관(推刷敬差官)으로 제주에 갔다가 홍치(弘治) 무신년(1488) 윤 정월에 아버지의 상사(喪事)를 듣고 황망히 바다를 건너다가 태풍을 만나 표류하여 태주(台州, 중국 절강성(浙江省)의 현)에 이르렀다. 6월에 한양 청파역(靑坡驛)에 돌아와 왕명을 받들어 『표해록(漂海錄)』을 찬술하여 올렸다.²³⁾

최부의 전기자료로는 외손자인 미암 유희춘이 쓴 <금남선생사실기>가 전한다. 이는 유희춘의 『미암집』에 실려 전하며, 위는 <금남선생사실기> 중 표류와 『표해록』에 대해 서술한 부분이다. 제주에 갔다가 표류하여 중국에 이르고, 이후 돌아와 왕명으로 『표해록』을 지은 일이 매우 간략하게 제시되어 있다.

이 전기자료만 보아서는 표류의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가 없다. 하지만 다행스럽게 5개월 남짓의 일을 기록한 일기 『표해록』이 있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다. 표류라는 극한 상황과 왜구로 몰려 죽을 뻔한 위기가 일기 속에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으며, 절강성에서 북경을 거쳐 조선으로 오는 과정도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다.

밤이 되자 비가 약간 그쳤으나 무섭게 밀려오는 큰 파도는 마치 산과 같아서 높을 때에는 푸른 하늘로 솟는 듯했고, 낮을 때는 깊은 연못에 들어가는 듯했다. 세차게 부딪혀 뛰어오르는 파도 소리가 천지를 찢는 듯했고, 모두 바다에 빠져 썩게 될 일이 경각에 달렸다.²⁴⁾

나는 보관해둔 옷 두서너 벌을 바로 찾아내어 최거이산에게 시켜서 옷을 비에 적신 다음 물을 짜 저장했는데, 거의 두서너 병에 달했다. 김중에게 숟가락으로 나누어 마시도록 하니, 김중이 숟가락을 들고 사람들의 입을 벌리도록 했는데, 물을 떠 넣는 광경이 마치 새끼제비가 먹이를 달라는 모습 같았다.²⁵⁾

위는 『표해록』 중 1488년 윤1월 5일과 윤1월 10일 일기의 일부이다. 첫 번째 인용문을 통해서 표류 당시의 위급한 상황을, 두 번째 인용문을 통해서 마실 물이 없어 옷에 비를 적서 나누어 먹으며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상황을 볼 수 있다. 위는 『표해록』 중 극히 일부의 예만 든 것으로서, 이처럼 일기를 통해 호남인물이 겪었던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가 있다. 또 일기에 기록된 상황을 통해 인물의 특성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호남 일기를 통해 저자 한 사람의 생생한 삶을 볼 수도 있고, 호남사람들의 교유의 과정도 볼 수가 있다. 일기의 저자가 널리 알려진 인물이라면 일기를 통해 그의 세부적인 삶을 파악할 수 있으며,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이라면 새로운 호남인물을 발견하여 호남인물사를 풍부하게 하는 보람이 있다. 호남지역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 호남문화의 중요한 토대가 된다. 호남

23) 柳希春, 『眉巖集』, <錦南先生事實記>, “丁未, 陞副校理. 九月, 以推刷敬差官, 往濟州. 弘治戊申閏正月, 聞父喪, 荒忙渡海, 遭風漂至中國之台. 六月, 回到漢陽靑坡驛. 承上命, 撰進漂海錄.”

24) 崔溥, 『漂海錄』, “至夜雨少止, 怒濤如山, 高若出青天, 下若入深淵. 轟衝擊躍, 聲裂天地, 胥溺臭敗, 決在呼吸之間.”

25) 崔溥, 『漂海錄』, “臣卽點出所藏衣數領, 令巨伊山承雨露洽, 取汁以貯, 幾至數瓶. 令金重用匙分飲之, 重執匙以舉, 舟人張口, 有如燕兒望哺然.”

일기는 이러한 호남인물을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활용할 수가 있다.

셋째, 호남 일기는 문화콘텐츠의 원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일기는 자신의 경험을 생생하게 기록한 것으로, 표류, 전쟁과 같은 큰 사건에서부터 제사를 지내고 친구와 교류하는 평범한 일상까지 인간이 겪는 다양한 일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기는 문학작품으로서도 의의가 있지만 미시적인 역사를 보는 자료로서도 의의가 크다. 18세기의 대표적 일기인 황윤석의 『이재난고』를 언어와 문학, 학문과 정치, 경제생활과 지식의 소통으로 분류하여 연구한 책 『이재난고로 보는 조선 지식인의 생활사』²⁶⁾는 일기가 생활사를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임을 쉽게 알 수 있게 해 준다.

최부의 표류와 그로 인한 중국 여정을 500년이 더 지난 현대의 학자가 다시 찾아가며 사진과 글로 남긴 『명대의 운하길을 걷다 - 항주에서 북경 2500km 최부의 '표해록' 답사기』²⁷⁾, 선조들이 수없이 오갔던 중국 여행길을 6명의 학자가 답사하고 사진과 글로 남긴 『연행노정, 그 고난과 깨달음의 길』²⁸⁾은 최부가 남긴 일기인 『표해록』과 선조들이 남긴 다양한 연행일기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나올 수 있는 것이었다. 일기 속에 당대의 여정과 경험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선조들이 갔던 그 길을 현대에 다시 갈 수 있었던 것이다. 호남의 대표적인 일기이자 조선시대 대표적 생활일기인 『미암일기』를 통해 선비의 삶을 읽기 쉽게 정리한 정창권의 『홀로 벼슬하며 그대를 생각하노라』(사계절출판사, 2003)와 송재용의 『조선시대 선비 이야기 - 미암일기를 통해 과거와 현재를 보다』(제이앤씨, 2008)도 일기를 통해 과거의 삶을 세세하게 볼 수 있음을 알게 해 준다.

조선후기 고흥에 살았던 3대의 기행일기 『서행록』을 예로 들어 보면, 약 100년의 시간 동안 이루어진 여행에서 있었던 세밀하면서 풍성한 이야기가 일기에 담겨 있다. 이중 문화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게 먼저 일기 속 이야기 소재를 살펴보면, '선조(先祖) 현양(顯揚)을 위한 일'과 '여행 중의 특별한 일화'로 나눌 수 있다. 이중 주요 이야기 소재만 정리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6〉 『서행록』의 주요 이야기 소재

구분	이야기 소재
선조 현양을 위한 일	임진왜란 때 순절한 송대립과 병자호란 때 순절한 송침의 묘갈을 받기 위해 노론의 대표적 인물 이재를 찾아가 한 달 넘게 머문 일.
	입향조 송간의 행록인 『서재실기』 서문을 당대의 거유 송치규에게 받기 위해 충청도 회덕으로 여러 차례 찾아간 일.
	송대립과 송침의 묘비 건립을 위해 석재를 구입하고 옮긴 일.
	고흥 나로도에 유배되었다가 사사된 이천명의 비석을 세우기 위해 석재를 구입하고 옮긴 일.
	송간의 시호를 받는 일로 여러 차례 여행을 떠나고 병세가 위중한 상황에서도 노력한 일.

26) 강신항 외, 『이재난고로 보는 조선 지식인의 생활사』,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27) 서인범, 『명대의 운하길을 걷다 - 항주에서 북경 2500km 최부의 '표해록' 답사기』, 한길사, 2012.

28) 소재영 외, 『연행노정, 그 고난과 깨달음의 길』, 박이정, 2004.

구분	이야기 소재
여행 중의 특별한 일화	과거시험을 보기 전후 상황, 과거시험 때 있었던 일.
	서울에서 머무를 때 임금의 행차를 구경 일.
	여행길에 시집 간 딸이나 누이의 집을 방문하여 만난 일.
	여행길에 고생중일 때, 예전에 고흥에서 송정악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그 일을 잊지 않고 찾아와 도움을 준 일.

『서행록』에는 조선후기 3대의 여행이 구체적이며 흥미롭게 담겨 있으며, 여행 중 노력하여 이루어낸 결과물들이 현전한다. 『충효록』, 『서재실기』가 간행되어 전해지며, 송대립과 송침의 무덤 옆에는 당시 건립된 묘비가 지금도 서 있다. 더구나 저자들이 현양하려 했던 선조도 역사적 의미가 있는 인물들이다. 고흥 입향조 송간은 단종이 시해되자 고흥으로 온 충신이며, 송대립과 송침은 부자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 각각 순절을 하였다. 선조는 아니지만 송정악이 비석을 세우기 위해 노력했던 이견명은 노론의 영수였다가 사사된 역사적 인물이다.

현재 고흥에는 송대립과 송침의 충절을 기리기 위한 건물 ‘고흥 송씨 쌍충정려’가 도지정문화재로 되어 있으며, 고흥 나로도로 유배되었던 이견명을 배향한 ‘덕양서원’도 도지정문화재로 되어 있다. 『서행록』 속 풍부한 이야기 소재와 현전하는 자료들을 엮어 내 조선후기 3대의 여행, 서책 발간, 묘비 건립, 고흥의 역사적 인물 등을 볼 수 있는 다큐드라마, 다큐멘터리 등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서행록』의 이야기 소재는 호남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알려주는 애니메이션 등 교육 및 관광 콘텐츠 제작에 활용할 수 있고,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 드라마, 웹툰 등에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는 문화콘텐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대로, 이제 일기는 역사적인 사실, 당대의 삶을 단순히 보여주는 것을 넘어 문화콘텐츠의 원형자료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일기 속 선조들의 삶에 관한 다양한 내용은 문화콘텐츠의 주요 요소가 되고, 이는 현대의 기술, 매체와 만나 새롭게 창조되고 있다.²⁹⁾

이처럼 문화문화콘텐츠의 원형자료로서 일기의 역할과 가치는 이미 인식이 되었고, 일기에서 콘텐츠 요소를 추출하여 문화콘텐츠화하는 작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국학진흥원에서는 다양한 일기 속에서 이야기 요소들을 추출하여 누리집 ‘스토리테마파크 - 일기와생활’(http://story.ugyo.net/)에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역적으로 한계가 있다. 경상북도 안동에 위치한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연구를 하다보니 경상지역 일기가 중심이 되어, 호남의 일기 중 널리 알려진 일부 일기만 반영되어 있다. 호남 일기에는 알려지지 않은 많은 일기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일기들을 문화콘텐츠화에 활용한다면, 우리의 문화콘텐츠는 훨씬 다양하고 풍부해질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호남 일기는 인문학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인문학은 인간의 조건을 탐구하는 학문으로서,³⁰⁾ 인문학의 중요성은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³¹⁾ 문학, 사학, 철학으로 대표되

29) 이와 관련하여 이훈익은 「문화콘텐츠 창작소재로서의 문화원형 연구 - 《2003경주세계문화엑스포》 주제영상 〈천마의 꿈〉을 중심으로」(『문화예술콘텐츠』 1, 한국문화콘텐츠학회, 2008, 318쪽)에서 “문화산업의 핵심인 문화콘텐츠 부문은 과거의 보존대상이었던 문화자원과 현대의 첨단기술이 결합되어 새로운 문화상품을 만들어내며 미래 성장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였다.

는 인문학은 초·중·고등학교 정규 교과에서 교육되고 있으며, 대학의 인문학 전공자의 전공 교과로서는 물론 기초교양으로서도 교육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시민들에 대한 인문학 강좌도 널리 진행되고 있다.³²⁾ 이렇게 어린 학생들부터 노년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통로로 인문학 교육을 접하게 되는데, 호남 일기는 인문학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호남 일기를 통해 임진왜란과 같은 역사적 사건 속 실존했던 사람들의 미시적인 삶을 볼 수가 있다. 또한 큰 역사적 사건은 아니더라도 한 개인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겪는 강학, 여행 등 선조들의 생활, 그리고 사람이 죽은 후의 장례 상황까지 다양하게 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호남 일기는 생생한 역사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다.

어린아이 용(龍)과 첩의 소생 딸 애생(愛生)을 모래 밭에 버려 두었는데, 조수가 밀려 떠내려가느라 우는 소리가 귀에 들리더니 한참만에야 끊어졌다. 나는 나이가 30세에 비로소 이 아이를 얻었는데, 태몽에 새끼 용이 물 위에 뜬 것을 보았으므로 마침내 이름을 용이라 지었던 것이다. 누가 그 아이가 물에 빠져 죽으리라 생각했겠는가? 부생(浮生)의 온갖 일이 미리 정해지지 않은 것이 없는데, 사람이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모양이다.³³⁾

위는 강항 『간양록』 중 〈섭란사적〉의 한 부분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자식이 죽는 과정을 기술한 부분이다. 임진왜란기 포로체험을 기록한 또 다른 작품인 정희득의 『월봉해상록』에 수록된 〈해상일록〉 부분과 함께 활용한다면, 임진왜란 당시 포로들의 아픔을 생생하게 전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임진왜란을 단순히 암기해야 하는 딱딱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가족을 잃는 아픔을 겪은 선조들의 비극적 경험으로 공감하며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일기는 중요한 역사자료이기도 하지만 문학자료이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호남 일기 각 작품들은 그 자체가 일기문학 텍스트가 되어, 문학 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조선시대 호남 일기 중 많은 작품은 한문으로 표기 되어 한문학에 속하고, 산문문학, 수필문학, 고전문학 등에도 포함되며, 일부 작품들은 내용상 사행문학, 여행문학, 유배문학 등에 포함된다. 이러한 다양한 문학을 연구하고 교육할 때 호남 일기를 활용할 수 있다. 그 예로 대학의 국어국문학과 교과과정을 살펴볼 때, 다음과 같은 교과목에서 일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30) 최현철, 「인문학과 인문학 교육에 관한 소고」, 『시민인문학』 23, 경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2, 185쪽.

31) 이와 관련하여 박찬인은 논문 「인문학의 길」(『인문학연구』 108,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7, 170쪽)에서 “인문학 위기 운운하며 인문학을 걱정하는 것은 문학, 사학, 철학에 관한 교양이 어느 정도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인식이 다름 아니다. 즉 고등학교는 물론이고 대학을 졸업했어도 일정 수준의 인문교양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인 것이다. 또한 과학기술 개발의 경쟁에서 앞서려면, 아니 기술개발 자체는, 아이러니하게도, 기계적 결과가 아니라 창의력의 문제라는 각성이다.”라고 언급하였다.

32) 시민들에 대한 인문학 강좌에 대해서는 진정일이 논문 「인문학 대중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시민인문강좌’를 중심으로」(『인문학연구』 101,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5)를 통해 분석한 바가 있다.

33) 姜沆, 『看羊錄』, 〈涉亂事迹〉, “稚子龍及妾女愛生, 遺置沙際, 潮回浮出, 呱呱滿耳, 良久而絕. 余年三十, 始得此兒, 方娠夢見兒龍浮水中, 遂以爲名. 孰謂其死於水中也. 浮生萬事莫不前定, 而人自不悟矣.”

〈표 7〉 호남 일기를 활용할 수 있는 국어국문학과 교과목

순번	학년	학기	과목구분	교과목명
1	1	전체	교필	한문
2	1	전체	교필	문학과인간
3	1	전체	교필	성찰과소통을위한글쓰기
4	1	1	전선	한국고전문학개론
5	2	1	전선	지역어문학과문화융합
6	2	2	전선	한국한문학의이해
7	2	2	전선	스토리텔링과문화산업
8	3	2	전필	한국고전문학사
9	3	2	전선	한국고수필론
10	4	1	전선	로컬문학과고전문학
11	4	2	전선	고전문학과인문콘텐츠

위는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누리집(<http://korean.jnu.ac.kr/>)에 제공되고 있는 교과과정에서 호남 일기를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과목만 정리한 것이다. 교과구분에서 ‘교필’은 ‘교양필수’, ‘전선’은 ‘전공선택’, ‘전필’은 ‘전공필수’를 의미한다. ‘교필’ 세 과목은 교양이긴 하지만 일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과목이다.

호남 일기 대부분이 한문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한문’ 교과목의 중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실제 전남대학교 ‘한문’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교재에도 호남 일기가 예시로 들어가 있다. 『대학학문』³⁴⁾이라는 교재는 ‘한자 한문의 첫 걸음’, ‘명구(名句)로 배우는 한문’, ‘고사(故事)로 배우는 한문’, ‘한시(漢詩)로 배우는 한문’, ‘문장(文章)으로 배우는 한문’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 중 ‘문장으로 배우는 한문’ 하위 ‘일기문’에 최부의 『표해록』 중 표류 부분, 유희춘의 『미암일기』 중 아내 등장 부분, 강항의 <섭란사적> (『간양록』 내) 중 피랍 부분이 제시되어 있다.

교재에 제시된 이 부분 자체가 일기를 활용한 것이며, 이 부분을 수업할 때 여기에 제시되지 않은 호남 일기도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예컨대 최부의 『표해록』을 설명하면서 표류를 기록한 다른 일기인 <표해시말>(이강희의 『유암총서』 소재)을 예로 들어줄 수 있으며, 유희춘의 『미암일기』를 설명하면서 후대에 아내 송중개의 문집을 간행하면서 유희춘의 『미암일기』에서 아내 등장 부분을 발췌하여 부록에 수록한 <미암일기초>(『덕봉집』 소재)를 함께 이야기해 줄 수 있다. 강항의 <섭란사적>을 설명하면서도 비슷한 시기 포로로 일본에 잡혀갔다 온 일을 기록한 일기인 정희득의 『월봉해상록』, 노인의 『금계일기』 등을 함께 설명해 주면 학생들이 시야를 넓힐 수가 있을 것이다.

교양교과목인 ‘문학과인간’, ‘성찰과소통을위한글쓰기’와 같은 수업에서도 고전문학, 선조들의 글쓰기 방식을 설명할 때 방대한 호남 일기를 부수적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으며, 국어국문학과 전공교과목의 경우 주요자료로서 활용할 수가 있다. 특히 전남대학교가 호남지역인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특성상 호남 일기는 학생들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34) 대학한문교재편찬위원회 편, 『대학학문』, 전남대학교출판부, 2012.

이러한 일기는 대학교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의 국어, 국사, 문학, 한문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대중들을 대상으로 한 인문학 강좌에서도 선조들의 다양한 삶과 문학을 보여줄 때 활용할 수가 있다. 실제 필자는 한국가사문학관에서 시행한 ‘인문학 교육’의 일환으로 “〈관동별곡〉을 통해 선조들의 여행 엿보기”라는 교육을 진행하였다. 〈관동별곡〉은 가사작품이지만 작자인 송강 정철이 호남의 담양지역에 살았던 인물로서, 담양에 있다가 강원도관찰사로 부임하는 과정과 금강산 및 관동팔경을 여행한 일이 담겨 있으므로, 호남인이 금강산을 다녀온 일을 기록한 금강산 기행일기를 덧붙여 설명하였다.

또한 “금강산 기행문학 산책”, “지리산 기행문학 산책”, “한라산 기행문학 산책” 등의 교육도 진행하면서 호남 일기를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임진왜란 해외체험 포로문학 읽기”, “조선 후기 호남 선비의 기행문학, 『서행록』”이라는 교육에서는 호남 일기를 함께 읽어가며 수업을 진행하였고, 수강생들이 당대의 상황과 심정에 공감하며 집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호남 일기자료 활용을 위한 제언

호남 일기는 호남학 연구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이며 현대에 각광받고 있는 의미 있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정리 및 연구 성과가 아직 부족하다. 호남 일기의 활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먼저 필요하다.

첫째, 호남 일기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와 현황 파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표해록』, 『미암일기』 등 유명한 일부 개별 작품에 대해서는 연구 성과가 많지만, 전체적인 호남 일기의 현황조차도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호남 일기 연구에 있어 시급한 것은 자료학적 연구이다. 자료학적 연구를 통해 호남 일기의 현황이 파악되고 기초자료가 제공된다면, 호남 일기 연구의 활성화가 가져오고 현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러한 호남 일기가 전체 몇 종이 있으며, 어떤 일기가 있는지, 소장처는 어디인지 알기가 어렵다. 호남 문집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수량이 3,000종으로 추정되며,³⁵⁾ 그 동안 해제집이 여러 차례 발간되었고, 호남 문집 2,600여 종의 기초정보(문집명, 서지사항, 저자의 이름, 생몰년도, 본관, 특별사항)를 수록한 『호남문집 기초목록』이 2014년에 출판되었다.³⁶⁾ 호남 일기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도 하루빨리 수행되어 호남 일기 기초목록집, 해제집 등의 발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호남 일기 연구의 구심점이 될 자료센터가 구축되어야 한다. 조선시대 일기 전체에 대해서는 황위주가 1,600여 종을 확인하고 이들 자료의 소장처를 파악하였다. 그에 의하면 규장각 431종, 국사편찬위원회 198종, 국립중앙도서관 134종, 한국국학진흥원 129종,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122종, 고려대학교 61종,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36종, 서울대학교 23종, 연세대학교 22종, 국회도서관 10종, 국내외 대학도서관 28종, 문집과 저술 362종, 논저 기타 46종으로 파악되고 있다.³⁷⁾ 하지만 호남 일기의 소장 현황은 현재로서는 알기가 어렵다. 황위주

35) 김대현·김미선, 「호남문집 정리의 현황과 과제」, 『호남학』 54,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13, 159쪽.

36) 호남한문고전연구실, 『호남문집 기초목록』,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2014.

37) 황위주, 「조선시대 일기자료의 현황과 활용방안」, 『국역 조선시대 서원일기』, 한국국학진흥원, 2007, 768쪽.

가 조사한 위의 기관들에 흩어져 소장되어 있고 문중이나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많을 것이다.

일기는 자신의 경험을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진솔하게 쓴 글로, 분량에 제한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유람일기와 같이 일정한 기간을 두고 쓴 일기는 문집에 실릴 가능성이 높지만, 필사본 형태로 남아 있는 생활일기는 문집에 전문이 실리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필사본 일기 등 호남의 일기를 한 곳에 모아 체계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자료센터가 필요하다.

셋째, 일기 전체에 대한 DB 구축과 체계적인 번역이 필요하다. 일기는 수록 내용의 다양함으로 인해 문학, 사학, 철학뿐만 아니라 과학, 음악, 미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내용에 있어서도 역사적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진솔한 삶과 감정이 담겨 있어 일반인들에게도 관심을 받으며 문화콘텐츠의 원형으로서도 각광받고 있다. 이러한 일기를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DB 구축과 한문이나 옛 한글로 쓰여 이해하기 힘든 내용을 쉽게 읽을 수 있는 번역이 진행되어야 한다.

위의 세 가지는 서로 맞물려 있는 것으로, 일기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와 현황 파악이 먼저 시행되어야 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자료센터에 자료를 모으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료센터의 자료를 바탕으로 DB구축과 번역을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세 가지 과제가 수행된다면 이후 분야별 연구와 일기를 활용한 문화콘텐츠화 등도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신항 외, 『이재난고로 보는 조선 지식인의 생활사』,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 김대현·김미선, 「호남문집 정리의 현황과 과제」, 『호남학』 54,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13.
- 김대현·김미선, 「호남유배인의 문헌자료와 문화콘텐츠」, 『한국시가문화연구』 41, 한국시가문화학회, 2018.
- 김대현·김미선, 「호남지방 일기자료 연구의 현황과 과제」, 『호남학』 58,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15.
- 김만영 저/나상필 외 역, 『남포집』 1, (재)한국학호남진흥원, 2020.
- 김만영 저/손왕호 외 역, 『남포집』 2, (재)한국학호남진흥원, 2021.
- 김미선, 「『간정일록』의 기록 성향과 특징」, 『한국문학연구』 54,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7.
- 김미선, 「『고성총쇄록』으로 본 조선후기 지방관의 유람과 문학적 형상화」, 『어문론총』 99, 한국문학언어학회, 2024.
- 김미선, 「『노송당일본행록』의 구성 방식과 詩序의 역할」, 『국어문학』 58, 국어문학회, 2015.
- 김미선, 「『서행록』 소재 한시의 현황과 특징」, 『한국시가문화연구』 50, 한국시가문화학회, 2022.
- 김미선, 「『서행록』의 여행 글쓰기 연구」, 『서강인문논총』 64,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2.
- 김미선, 「『서행록』의 이야기 소재와 문화콘텐츠」, 『인문학연구』 36,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4.
- 김미선, 「『표해록』으로 본 18세기 제주도 선비 장한철과 섬사람들」, 『동양학』 78,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20.
- 김미선, 「장주호 기행일기로 본 19세기초 안동 선비의 유람 여행」, 『어문론총』 83, 한국문학언어학회, 2020.
- 김미선, 「기행일기 정리의 현황과 과제」, 『국학연구논총』 21, 태민국학연구원, 2018.
- 김미선, 「기행일기로 본 조선시대 명승지」, 『한민족어문학』 89, 한민족어문학회, 2020.
- 김미선, 「문집 부록에 수록된 일기의 양상과 의의 - 호남문집을 대상으로」, 『국학연구』 29, 한국국학진흥원, 2016.
- 김미선, 「섬 여행을 기록한 조선시대 기행일기」, 『도서문화』 53,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019.
- 김미선, 「소승규 「유봉래산일기」의 유람 여행 글쓰기와 문학교육적 의미」, 『동양학』 84,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21.
- 김미선, 「소승규 <유봉래산일기> 소재 한시 연구」, 『동아인문학』 60, 동아인문학회, 2022.
- 김미선, 「실기문학 속 사실체험 공간으로서의 바다 - 『노송당일본행록』, 『표해록』, 『월봉해상록』을 대상으로」, 『도서문화』 47,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019.
- 김미선, 「오형묵의 『고성총쇄록』 소재 한시 연구」, 『한국시가문화연구』 53, 한국시가문화학회, 2024.
- 김미선, 「유배일기와 문화콘텐츠 -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2022 호남한국학 학술대회 - 광주전남 유배인·유배지의 자원 콘텐츠화 심포지움』,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원, 2022.
- 김미선, 「일기 소재 한시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시가문화연구』 52, 한국시가문화학회, 2023.
- 김미선, 「일기로 본 조선시대 변산반도 유람」, 『국학연구』 49, 한국국학진흥원, 2022.
- 김미선, 「임자도 유배에 관한 父子의 기록 읽기 - 김령의 『간정일록』과 김인섭의 『단계일기』를 대상으로」, 『도서문화』 50,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017.
- 김미선, 「임진왜란기 해외체험 포로실기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김미선, 「장한철 『표해록』의 표류 체험 글쓰기와 문학교육적 의미」, 『영주어문』 44, 영주어문학회, 2020.
- 김미선, 「전북지역 유람일기의 현황과 활용」, 『전북학연구』 1,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 2019.
- 김미선, 「조선시대 기행일기 속 여행 목적」, 『국어문학』 71, 국어문학회, 2019.

- 김미선, 「조선시대 기행일기의 문학교육적 활용」, 『동아인문학』 52, 동아인문학회, 2020.
- 김미선, 「조선시대 기행일기의 범주에 대한 논의」, 『국학연구』 35, 한국국학진흥원, 2018.
- 김미선, 「조선시대 바다 관련 유람일기와 그 활용가치」, 『한민족어문학』 94, 한민족어문학회, 2021.
- 김미선, 「조선시대 한문 기행일기의 현황과 가치」, 『한국민족문화』 71,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9.
- 김미선, 「최부 『표해록』의 기행문학적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김미선, 「호남문집 소재 일기류 자료의 현황과 가치」, 『국학연구』 31, 한국국학진흥원, 2016.
- 김미선, 「호남지역 일기자료 조사·정리의 사례와 그 활용 가치 - 일기자료 조사·정리 방안 모색과 관련하여」, 『영남학』 72,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 2020.
- 김미선, 『조선시대 한문 기행일기』, 경인문화사, 2022.
- 김미선, 『호남문집 소재 일기류 자료』, 경인문화사, 2018.
- 김미선, 『호남의 포로실기 문학』, 경인문화사, 2014.
- 대학한문교재편찬위원회 편, 『대학한문』, 전남대학교출판부, 2012.
- 박찬인, 「인문학의 길」, 『인문학연구』 108,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7.
- 서인범, 『명대의 운하길을 걷다 - 항주에서 북경 2500km 최부의 '표해록' 답사기』, 한길사, 2012.
- 소승규·심광세·김서경 저/허경진 역, 『유봉래산일기 - 부안 변산 기행문집』, 부안문화원, 2007.
- 소재영 외, 『연행노정, 그 고난과 깨달음의 길』, 박이정, 2004.
- 송재용, 「『미암일기』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 송재용, 『조선시대 선비이야기 - 미암일기를 통해 과거와 현재를 보다』, 제이앤씨, 2008.
- 송정악 저/나상필 외 역, 『서행록』 1, (재)한국학호남진흥원, 2020.
- 송정악·송지행 저/조일형 외 역, 『서행록』 2, (재)한국학호남진흥원, 2021.
- 송지행·송석년 저/김성희 외 역, 『서행록』 3, (재)한국학호남진흥원, 2022.
- 이훈익, 「문화콘텐츠 창작소재로서의 문화원형 연구 - 《2003경주세계문화엑스포》 주제영상 〈천마의 꿈〉을 중심으로」, 『문화예술콘텐츠』 1, 한국문화콘텐츠학회, 2008.
- 전남대학교 호남한문고전연구실, 『호남 주요 인물 전기자료』, 전남대학교출판부, 2010.
- 정민, 「새자료 정학유의 흑산도 기행문 「부해기」와 기행시」, 『한국한문학연구』 79, 한국한문학회, 2020.
- 정창권, 『홀로 벼슬하며 그대를 생각하노라』, 세계절출판사, 2003.
- 정하영, 「조선조 '일기'류 자료의 문학사적 의의」, 『한국학』 19(4), 한국학중앙연구원, 1996.
- 진정일, 「인문학 대중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시민인문강좌'를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101,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5.
- 최부 저/서인범·주성지 역, 『표해록』, 한길사, 2004.
- 최현철, 「인문학과 인문학 교육에 관한 소고」, 『시민인문학』 23, 경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2.
- 호남지방문헌연구소 편, 『호남관련인물 전기자료 선집』 1·2,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2016~2017.
- 호남지방문헌연구소, 『호남유배인 기초목록』,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2017.
- 호남한문고전연구실, 『호남문집 기초목록』,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2014.
- 황위주, 「조선시대 일기자료의 현황과 활용방안」, 『국역 조선시대 서원일기』, 한국국학진흥원, 2007.

스토리테마파크 - 일기와생활' (<http://story.ugyo.net/>)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http://korean.jnu.ac.kr/>)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호남 국학 종합DB(<http://db.hiks.or.kr/>)

· 토론 ·

湖·南·

조선시대 호남 일기자료와
그 활용 가치

日·記·

이서희
전남대학교

資·料·

〈조선시대 호남 일기자료와 그 활용 가치〉에 대한 토론문

이서희(전남대학교)

본고는 호남인의 일기자료와 호남 지역의 일기자료를 모두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며 그 안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들을 주목하였고, 일기자료의 활용 가치를 정리한 다음 활용을 위한 제언으로 논의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일기자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꾸준하게 자료를 선별하고 정리하며 활발하게 연구 성과를 이어오고 계시는 선생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선생님의 발표에 도움이 되는 토론을 드리기에는 공부가 부족하므로, 발표문을 읽으면서 의문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 질의하는 방식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1. 본고에서 주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일기의 내용과 관련한 부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2장에서도 이야기들 즉 소재에 초점을 맞추어 ‘호남인의 일상생활’, ‘호남지역 명승여행’, ‘호남지역 유배생활’로 분류하였는데요. 그렇다면 호남지역의 일기자료에서 나타나는 형식적·서술적인 특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8쪽에서 소승규의 〈유봉래산일기〉를 정리하면서 ‘일기에서 시간순으로 기록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가장 흔한 글쓰기 방식이기도 하다. 그런데 위 인용문에서 보듯이 소승규는 실제 그 시간 속에 있는 듯이 서술하고 있다.’고 하여 일기의 글쓰기 방식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으로 읽었습니다. 시간순으로 기록하는 것 외에도 다른 글쓰기 방식이 활용된 호남지역의 일기가 있는지 궁금했고, 또한 사건이 발생한 시각과 기록하는 시각의 간격에 따라 글쓰기가 다르게 수행되는지 등도 의문이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면 전쟁체험을 다룬 일기의 경우 긴박한 전란의 와중에 본인이 겪었던 일들을 종전 이후 안정기가 되었을 때 기억을 더듬어 기록으로 남겼기 때문에 기억의 굴절이나 사건의 재배열 등의 현상이 발생하는데, 일상경험을 담은 일기라면 반드시 사건 발생 시각과 기록 시각이 일치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그 간극은 없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2. 호남 일기자료의 활용 가치에 대한 부분은 심분 공감하는 바이지만, 많은 대중의 수요와 호응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토론자 역시 19쪽에 표로 정리된 교과목 중에서 ‘로컬문화과고전문학’이라는 수업을 강의한 적이 있는데 호남지역을 배경으로 한 고소설과 호남 인물이 쓴 전쟁실기, 사행실기 등을 수업에서 다루고 지역의 문화가치 창출 방향을 제안하는 발표수업을 실시했지만 학생들은 친숙하고 흥미로운 고소설만을 발표 대상으로 선정했기 때문입니다. 일기자료가 교육과정에서 여전히 주변부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고 선호도가 다소 낮다는 실정을 고려했을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모색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 이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청해 듣고자 합니다.

· 발표 ·

· 湖南 ·

현대 일기를
읽는다는 것

日記

이성호

전북대학교 쌀·삼·문명연구원

· 資料 ·

현대 일기를 읽는다는 것

‘말한 것’과 ‘말하지 않은 것’이 말하는 체제와 일상의 충돌

이성호(전북대학교 쌀·삶·문명연구소)

1. 문제의 제기
2. 일기란 무엇인가: 현대일기의 등장과 특징
3. 현대 일기를 읽는다는 것: 일상사 연구와 일기
4. 한국사회의 압축근대와 현대일기 분석 - 네 편의 일기 사례
5. 논의의 요약: 남은 이야기들

1. 문제의 제기

이 글은 한국사회에서 지난 100년간 전개된 불균등하고 압축적으로 전개된 근대성의 양상과 그 영향을 현대 일기 자료를 통해서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¹⁾ 일상사 연구를 위한 자료로서 개인의 일기 기록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이후의 일이다. 사회과학과 역사학 연구 자료로서 개인의 일기에 주목하게 된 것은 그간의 제도사, 구조사 중심의 역사 연구로부터 일상사, 생활사 등 새로운 역사학으로 시각이 전환되는 흐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필자는 2011년부터 일기, 회고록, 편지 등의 개인 기록(personal documents)²⁾을 통한 한국사회의 압축근대성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전북대학교 쌀·삶·문명연구원 개인기록연구실³⁾에 소속된 연구자이다. 따라서 이 글은 지난 10여 년 동안 축적해 온 연구 성과와 과제들을 중심으로 현대 일기 연구를 위한 분석틀을 마련하기 위한 시론적 시도이다.⁴⁾ 이전에도 개인 일기 자료에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수집, 분석하는 연구팀 또는 연구자들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관

1) ‘modern’, ‘modernity’ 등을 우리말로 옮길 때, ‘근대’, ‘근대성’과 ‘현대’, ‘현대성’이 함께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현대’와 ‘근대’라는 개념에는 약간의 혼선이 있는 것 같다. 즉 ‘현대’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시기라는 의미가 담겨있고, 그래서 ‘근대’는 그 직전의 시기인 것처럼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근대화는 현대 이전의 사회 변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현대 일기」라고 쓰기로 한다. 다만 한국사회의 근대성과 같이 고유의 뜻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되는 용어들에 대해서는 ‘근대’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2) 개인이 자신에 관한 글쓰기 행위를 ‘근대적 개인’의 등장으로 보는 유럽의 ‘자기 증언’ 연구에서는 개인의 기록은 ‘ego documents’라고 부른다. 자기 증언 연구의 내용에 대해서는 울브리히(2013) 참조.

3) 이하에서는 ‘개인기록연구실’ 또는 ‘우리 연구실’이라고 약칭하기로 한다. 개인기록연구실의 일기 연구는 2017-2018년의 2년 동안 중단되었던 적이 있다.

4) 실제로 이 글은 지난 10여년 동안 현대 일기를 분석하면서 느낀 문제 의식과 참고할 만한 자료 등을 메모하고 기록한 내용들을 주제별로 분류하면서 재구성한 것이다.

심의 상당 부분은 근대 이전의 일기 자료에 집중되고 있었고, 당시의 상류층이나 지식인층의 기록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상류층이나 엘리트층이 아닌 보통사람들이 쓴 현대 일기를 다루는 연구들은 단편적으로 전개되고 있었다.⁵⁾ 그래서 우리 연구실의 초기 연구는 적당한 이론적, 방법론적 지침 없이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한편으로는 현대 일기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정리하고 읽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현대 일기를 읽는다는 것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한 공부도 병행해야 했다.

그 사이 일기를 비롯한 현대 개인기록 자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연구 업적도 상당히 축적되고 있다. 이제는 현대일기 분석을 위한 연구자들의 공동체를 모색하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생긴다. 또한 해외의 연구진과의 교류가 진전되고 있다는 점도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연구 성과의 축적과 교류가 여전히 단편적이어서, 연구의 이론 및 방법론적 틀을 구축하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여기에서는 그 동안 개인기록연구실의 연구 경험과 성과를 반성적으로 돌아보면서, 현대 일기를 읽어간다는 것이 현대사 연구에서 가지는 의미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특히 일상사 연구에서 현대 일기의 가치에 대해서 시론적이지만 진지하게 검토하고자 한다.

2. 일기란 무엇인가: 현대일기의 등장과 특징

(1) 일기란 무엇인가?

일기에 관한 가장 간단하고 일반적인 정의는 한 개인이 그날그날의 생활과 사건, 생각과 느낌을 순차적으로 적어나간 사적 기록이라는 규정일 것이다. 또는 일기란 개인이 자신에 대해 기록한 모든 개인적인 기록을 의미하는 것으로, 거기에는 모든 언어적 기록들을 포괄하는 것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달력의 여백에 개인적 관찰과 느낌 등을 적어 놓은 단편적 기록도 일기의 범주에 포함된다.(MacFarlane, A., 1970)

프랑스의 현대 일기 연구자인 르쥘((Lejeune, P., 2009: 168)에 의하면, “일기는 무정형의 정해진 내용과 규칙, 규격도 없는, 기록하는 자가 임의대로 자신이 쓰고 싶은 것을 적어 놓은 그야말로 내용과 형식에서 ‘자유로운’ 기록”이라고 정의된다. 그의 목적은 이러한 자유로운 기록으로부터 한 사회의 문화적 영향들의 규칙을 발견하고자 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일기는 ‘개인의 무정형의 자유로운 기록’이라는 정의가 필요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일기는 특정한 장르로 구분될 수 없는, 개인의 주관적 글쓰기 행위의 결과물이다. 일기가 주관적이라는 평가는 그 동안 역사적, 사회과학적 자료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이었다. 사실 일기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역사학과 사회과학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진실’에 접근할 수 있다는 실증주의적 입장에 매인 결과였다.(곽차섭, 2018)

그러나 일기의 주관성이라는 바로 그 특징으로 인해서 일상사 연구에서 중요한 자료로서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 즉 일기를 포함한 개인기록⁶⁾은 국가의 제도적, 정책적 목적에 의해

5) 정병욱·이타카키 류타(2013)는 책 뒤에 2000년대 초반까지 국내에서 출간되거나 연구된 「근현대 일기 자료·연구 목록」을 정리해 두었다.

6) 개인기록은 개인이 자신의 생각과 느낌 등에 관해 적은 일체의 언어화된 기록물, 즉 일기, 회고록(memoire),

규정된, 상대적으로 제한된 정보만을 담고 있는 공식 자료들에 비해 당대의 주요한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가장 풍부한 해석을 담고 있다. 개인기록은 그동안 역사학, 사회과학에서 간과되었던바 “작은 사회 변동이 보다 근본적인 변동을 끌어내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자료”이다.(Redlich F., 1975)

개인기록, 특히 일기는 참여관찰이 불가능한 과거에 대한 참여관찰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해주는 자료이다. '민족지적 역사'(ethnographic history)(윤택림, 2003: 37)를 재구성하는 데 있어 일기가 가지는 사료로서의 강점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개인의 해석이나 느낌까지 기록되어 있다는 데에 있다. 일기에 나타나는 지루할 정도로 반복되는 완고한 일상성은, 다른 사료에서는 좀처럼 포착되지 않았던 개인의 일상적 경험세계와 전체(또는 지역) 사회의 구조에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울리히, 2008: 51).

곽차섭(2018: 3-5)은 일기가 지닌 글쓰기와 자신을 드러내기의 자유로움은 엘리트주의적(위계적, 권력적) 역사학에 심각한 도전이라고 지적한다. 즉 일기의 형식과 표현의 자유로움은 기존의 규칙에 대한 도전일 뿐 아니라 전복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고대 어느 시기에 일기가 '발명'된 이후, 언제부터 개인이 자신의 자유로운 생각과 느낌, 감정을 일기 속에 스스로 표현하고 드러내기 시작했을까?

(2) 현대일기의 등장: 개인의 발견

현대일기는 언제부터 등장하였는가? 이 물음은 곧 개인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한 글을 쓸 수 있게 된 것이 언제부터인가. 그리고 어떻게 개인이 주체가 되는 글쓰기가 가능할 수 있게 되었는가를 질문하는 것이다. “현대적 형식의 일기는 중세 말 무렵부터 유럽에서 발달하기 시작했다”는 게 현대 일기에 대한 가장 전형적인 인식으로 자리하고 있다.⁷⁾ 대체로 서구사회에서 현대적 형태를 갖춘 일기가 등장하는 시기는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경으로 알려져 있다. 현대 일기를 이전의 일기, 자서전 등과 구분해주는 차이는 일기 속에 ‘개인의 자아 성찰’을 기록하는 관행이 출현했다는 점이다. 특히 ‘세속적 자아’에 대한 각성과 성찰이 개인적 글쓰기를 통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18세기는 자아성찰의 절정을 형성한다.”⁸⁾ 이 시기부터 개인적 성격이 짙은 일기가 등장하게 된 것은, 이른바 정서적 개인주의(affective individualism)의 발전으로 사생활과 자율성의 요구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된다.⁹⁾

자서전(biography), 편지, 유서 등을 포괄한다. 자서전이 대개는 인생을 총체적으로 그리고 사후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라면, 일기는 매일의 성찰과 관찰의 기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일기로부터 전체시기를 구성해 내는 것은 힘든 일이다.

7) 그러나 이러한 서구 중심적 인식은 서구 이외의 일기나 개인적 글쓰기 형식에 대한 연구를 통해 보강되거나 수정될 필요가 있다.

8) 일기라는 글쓰기 형식은 중세 이후 상류층, 일부 중류층과 성직자, 공직자들에게서 나타나고 있었다. 그들에게 글쓰기는 하나의 특권이자 오락이기도 했다. 그러나 공적인 기록이나 일지(log)가 아닌 자기성찰의 기록은 지극히 찾아보기 힘들다. (리하르트 반 뢰텐, 최윤영 옮김, 2005: 190-191)

9) 그 대표적인 예가 피프스(Samuel Pepys)의 일기(Samuel Pepys, Robert Latham (eds.), 1983)이다. 그는 영국 해군본부 간부를 지냈고, 후에 의회의원, 영국왕립협회 회장을 지낸 인물이다. 그의 일기는 개인의 삶이 점차 종교적 성찰로부터 세속적 생활세계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자신의 세속적 관심사, 혐오하는 것 등을 일기에 자세히 묘사했으며, 부부싸움과 화해, 스캔들 등을 적었다. 이것은 개인이 일기에서 종교적 윤리란

근대적 개인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반 뢰멘(2005: 216-217)은 사적인 영역의 형성과 확장을 강조한다. 그는 중세 이후 줄곧 사회사상의 핵심 개념은 “공익”이었다고 지적한다. 즉 모든 사회적, 정치적 행위는 공익에 기여한다는 명분을 지니고 있어야 했다는 것이다. 공익은 모든 구사회의 도덕적 바탕이었고, 개인의 행동을 규제하는 규범이었다. 공익의 실천은 의무로 부과되었다. 그런데 사회의 규범과 질서가 공익에서 사익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 배경에는 경제적 개인주의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애덤 스미스(1776)가 국부론에서 쓴 바와 같이 “더 나은 삶의 조건을 위해 인간이 변함없이 계속 부단히 노력하는 것”, 즉 바로 개인의 (사적) 이익이 “모든 공공의 변영의 바탕이자 원천”이라는 인식이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일기라는 글쓰기 장르의 시대적 특징을 구분하는 결정적 기준은 아마도 글을 쓰는 이가 스스로의 자아, 개인의 성찰, 일상에 대한 개인의 심성을 자유롭게(또는 내밀하게) 표현하고 있는가의 여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개인이 글쓰기를 통해서 세속적, 근대적 욕망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는가가 현대 일기로의 진입 여부를 가름하는 핵심 요소라는 것이다.¹⁰⁾ 따라서 현대 일기를 읽는다는 것은 근대사회, 근대성의 출현, 즉 개인의 탄생과 밀접한 연관을 지닌다.

18-19세기의 현대 일기를 통해 유럽에서의 근대성의 형성과 특징을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들은 현세적(세속적)이고 자율적인, 자의식을 지닌 개인의 형성이 서구 근대 형성의 기초라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래서 지극히 사적인 텍스트 속에서 근대성을 읽기 위한 시도가 진행되었다. 울브리히(Ulbrich, C., 2013: 21-37)는 그것을 판별하는 작업이 “(텍스트를 통해서) 글을 쓴 개인들이 특정한 상태의 의식이나 개인성에 도달했는가, 저자들이 전통이나 종교적, 사회적 속박에서 벗어났는가, 텍스트 속에 ‘내면의 삶’과 관련된 진술들, 성찰적 지성 등이 드러나는가”라는 질문에 기초하고 있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이 이른바 서구중심주의, 서구적 보편주의에 기대고 있었다는 점은 분명하게 지적되어야 한다. 1980년대 이후 일반인들(비엘리트 저자들)의 사적인 기록들에 관심이 모아지기 시작하면서, 개인들이 자기 시각으로 자기 자신, 환경, 공동체, 세계를 표현하는 글들이 주목받게 된 것은 서구중심주의에 대한 비판과 반성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3) 현대일기의 특징: 전통과 현대, 개인과 구조

일기를 포함한 개인기록들은 텍스트 스스로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 텍스트이다. 그것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기록이 아니다. 또한 저자가 자신의 자아(ego)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증명하는 글도 아니다. 사적인 텍스트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기억, 경험, 정체성, 시·공간, 인식능력, 행위능력에 대한 분석틀이 중요하다.

개인의 기억, 생각, 경험에 관한 문제는 귀속집단이나 공동체의 문화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즉 개인의 자기 고백(또는 자기 증언)은 한 사회의 가치관과 행동양식을 보여주고, 사람들이

으로 설명될 수 없는 세계를 묘사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10) 그것이 개인이 외부세계로부터 독립하여 일관되고 확고한 자신의 자아를 확립했다는 것을 의미하는가는 다른 논쟁의 영역일 것이다.

규범적인 질서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알게 해준다. 이러한 점에서 사적 텍스트를 분석한다는 것은 행위하는 인간의 관점에서 역사(구조-체제)의 다양성과 모순성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울브리히, 2005: 29-33) 그러므로 개인기록 연구에서 전통과 근대라는 문제는 더 이상 사적인 것, 내면성, 자기성찰로 대표되는 근대적 개인의 형성과 발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전통의 자기화와 재해석에 관한 문제가 된다. 여기에서 전통과 근대는 더 이상 이원적 대치 개념이 아니다. 문제는 개인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 자신이 획득한 것, 자신이 경험하고 느낀 것을 새롭게 해석(재해석)하고 재맥락화함으로써 토착화하는 과정에 관한 것이다. 말하자면 오히려 관건은 재해석, 자기화, 기능 전환의 복잡한 과정들을 포착하는 일이다.

일기의 형식은 매우 다양하다. 이를테면 개인적 의견 없이 행위나 사건에 대해 기록한 일지(log)에서부터 행위나 사건에 대한 기록 뿐 아니라 역할, 행위, 관계 등을 반영한 개인의 의견과 느낌을 드러낸 것까지 폭넓은 스펙트럼을 지닌다.¹¹⁾ 작성자의 의도나 동기에 따라 일기의 형식을 구분하기도 하지만, 일기를 사건의 기록-개인적 느낌의 기록, 공적인 기록-사적인 기록으로 나누는 것은 어렵다. 또한 기록자 자신만이 유일한 독자인 일기와 다른 독자들을 의식하고 쓴 일기를 구분하는 것도 쉽지 않다.¹²⁾ 따라서 일기를 분류하는 것은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 목적에 따라 내용을 재구성하면서 가능해진 것일 뿐이다.

현대 일기를 분류하는 기준은 논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일기의 일반적 특징을 제시하고 있는 글로는 앨리스제프스키(A. Alaszewski, 2006)를 들 수 있다. 그는 일기를 “특정 개인이 규칙적으로(또는 정기적으로) 사건의 당시를 개인적으로 기록한 기록물”이라고 느슨하게 정의한다. 그리고 그 특징을 1)정기성, 2)개인성, 3)동시성, 4)기록성으로 요약한다. 일기에 대한 매우 일반적인 그래서 반박할 여지가 없는 정의이지만, 그 중 동시성과 기록성에 대해서는 그의 설명을 요약할 필요가 있다. 동시성이란 ‘사건의 발생과 기록 사이의 시간 간격이 없거나 매우 짧다는 특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억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록성은 일정 시공간 상에서 ‘발생한 사건이나 사실 중, 기록자가 의미 있거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들만 글 속에 배치한다’는 것이다. 이 기록은 대체로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으나, 그것을 설명하는 문장의 길이나 어휘의 수에서 차이를 드러낸다. 그러므로 일기는 그 자체로 느낌과 생각, 감정 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현대 일기 자료의 특징을 개인의 주체성과 자유로움의 표출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보면, 일기는 자율성과 전복성을 지닌다. 자율성이란 일기 내용과 형식의 무규칙성, 미완결성, 파편성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글쓴이 개인의 주관성, 주체성이 표현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무규칙, 무형식이라는 특징으로 인하여 일기는 기존의 질서와 권력에 대한 도전이자 전복이다. 그러나 모순적이게도, 일기는 역사와 문화의 산물이어서 역사적, 사회문화적 제약 속에서 만들어진다.(곽차섭, 2018)

현대 일기를 통해 한국사회의 근대성을 살피고자 하는 연구 목적과 관련해서 일기의 특징을

11) 이런 점에서 일기의 장르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그다지 생산적이지 못하다. 어떤 의미에서 모든 글쓰기는 문학이며, 그것이 사회적 관계를 통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록인 한 역사학과 사회과학의 자료이다.

12) 글을 쓰는 행위는 글을 읽는 행위와 분리될 수 없다. 모든 글쓰기 행위는 독자를 의식하고 이루어지는 것이다. 일기를 쓴다는 것도 그것이 누군가에게 읽힐 가능성, 즉 독자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일기가 누군가에 의해서 읽히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하려는 행위 자체도 결국 독자를 염두에 두는 것이다.

정리한 글로는 이타가키 류타(板垣竜太, 2018)의 글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는 그의 글을 요약하면서 현대 일기를 자료적 특징을 살펴보기로 하자. 그는 민중(서민)일기가 역사 자료로서 지니는 주요 특징을 1)주관성, 2)행위자성, 3)교차성, 4)공시성, 5)반복성, 6)미완료성 등으로 요약한다.¹³⁾ 일기는 1인칭 기록으로 한 개인이 자신이 보고 듣고 생각한 바를 바탕으로 쓴 글이다. 그러므로 일기의 주관성을 문제화 한다는 것은 기록자 개인의 입장(에믹적emic 관점, 당사자의 관점)에서 일기를 읽고 분석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말하자면 일기를 읽는다는 것의 의미는 그 기록에 적힌 일들의 사실 여부가 아니라, 특정 시공간에서 발생한 사회적 현상이나 사건을 한 개인이 어떻게 해석하고 느끼는지, 그에게 그 사건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보는 데 있다 할 수 있다.

일기를 쓰는 개인은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영위해가는 존재이다. 시공간적(사회적, 문화적)으로 제약된 조건 아래에서 살아가지만(구속된 존재이지만), 자신이 경험하는 일들을 스스로 해석·판단하고 대응하면서 살아간다. 이러한 개인적 요소가 일기의 두 번째 특징인 행위자성에 해당한다. 구조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¹⁴⁾ 사이에서 일기를 쓰는 행위와 일기라는 텍스트의 보존이 가능한 것이다.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니시카와 유코(西川祐子, 2009)는 일본의 근대 일기를 ‘국민교육장치’로 해석하고 있다. 일기 쓰기를 강제하고, 검열하는 관행은 제국주의 시대 이후에도 오랜 기간 동안 우리 교육에 하나의 제도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일기를 지속적으로 쓰는 행위는 구조의 강제와 함께, 개인의 취향과 선택 또는 자부심으로 작용하였다. 다른 한편 일기 쓰기가 전적으로 개인의 자율적인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조차도, 그 텍스트 전체가 개인의 자유로운 사고와 판단의 결과인 것은 아니다.

또한 일기는 특정한 목적이나 주제에 한정된 글이 아니다. 따라서 특정한 장르로 분류할 수도 없다. 개인은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사회적 관계들의 연결망 속에 위치하고 있다. 즉 개인은 다양한 관계의 교차점이라 할 수 있다. 개인의 경험과 생각은 언제나 집단적이고 사회적이다. 일기는 언제나 다양한 사회적 관계의 교차점으로서의 개인의 위치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왜 했는지에 관한 정보가 나열되어 있다. 즉 일기는 시간, 공간, 인물 등에 관련된 단서를 담고 있는데, 이것은 시계열적 통시적 정리 뿐 아니라 공시적, 공간적 분석을 가능케 해준다. 다시 말하면 체제 전체, 사회 전체 속에서 익명적인 한 개인의 유기적 행위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시공간에서 특정한 개인이 맺는 관계성을 읽어내는 것이다. 전체 사회의 문화라 하더라도 개인이 속한 범위는 고정되어 있거나 폐쇄적인 것이 아니다. 개인의 경험과 생각, 느낌은 열린 관계성을 통해 형성된다.

일기를 쓰는 개인은 해마다, 계절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 그리고 일기를 쓰는 양식도 반복된다. 이것은 개인이 살아가기 위한 재생산과정의 반복되는 리듬과 연관된다. 예를 들어 직업과 관련되어 농사를 짓는 이들에게 계절, 날씨 등은 매일 반복되는 것이지만 생산 활동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따라서 일기장에

13) 이타가키는 이 여섯 가지 특징을 각각 일기를 쓴 개인과 관련된 특징(1, 2), 물리적, 사회문화적 공간성과 관련된 특징(3, 4), 그리고 시간성과 관련된 특징(5, 6)으로 나누어 이해하고자 한다.

14) 이른바 짐멜(1908)이 ‘사회학의 근본문제’라고 규정한, 사회와 개인, 구조와 행위 사이의 관계 문제이다. 부르디외는 장-아비투스 개념을 통해 이 문제의 해결을 시도한다.

자세하게 기록한다. 이런 점에서 일기는 일과 생활, 생산 및 재생산 활동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세계가 무엇인지를 해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생활 경험 중에서 무엇을 자세히 적고, 무엇을 적지 않는지, 일기에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에 대해서 침묵하는지는 그 사람의 사회적 존재를 보여주는 것이다.

일기는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쓴 텍스트이다. 오늘 발생한 사건이 어떤 결말을 맺을지 모르는 채 쓰는 글을 읽는 후대의 연구자들은 이미 그 사건의 결과를 알고 있다. 그러나 이미 결과를 알고 쓰는 결과론적 서술은 그 과정의 많은 변수들을 놓치게 되기도 한다. 가능했지만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던 일, 사건의 전개과정에서 주변화 되거나 패배한 자들의 경험과 인식 등을 역사 서술에서 지워버려도 괜찮은 것일까? 일기는 당장 내일의 일을 모르는데, 순간순간의 상황을 경험하고 해석하고 판단을 내리는 개인의 행위에 대한 기록이다. 이 기록을 들여다보면서 텍스트가 말하는 것과 침묵하는 찾아내는 것은 기존의 역사 서술이 놓친 것, 간과한 것,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버린 것을 드러내는 작업이다.

우리가 일기를 통해서 압축적이고 폭력적으로 전개되어 온 한국사회의 근대성을 읽어내려고 애쓴다고 해도, 근대화과정에서 배제되거나 주변화 되었던 서민들의 일기가 우리에게 근대, 제국-식민지, 해방, 이념, 전쟁, 혁명 등의 문제에 대한 답을 직접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현대 일기를 읽는다는 것의 과제는 주관적 현실을 어떻게 사회적 존재와 연결하여 해명할 수 있을 것인가에 있다. 객관적인 구조나 위치에 대한 분석과 여러 개인이 살았던 경험에 대한 분석을 매개하는 다양한 방법을 구사하여 양자 사이를 적극적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시도가 현대 일기 연구방법론의 토대를 쌓아가게 될 것이다. 행위자의 말과 행동, 가치관을 표현하는 텍스트 속에서 글쓴이가 드러내는 관심사(또는 침묵), 카테고리, 말투에 주목하는 방법 등이 일기 분석을 위한 지침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일기는 한 개인이 혼자서만(비밀리에) 써내려간 텍스트라는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여기에 기록된 내용은 대부분 개인의 경험, 느낌, 해석, 감정을 담고 있다. 그러나 그가 일기를 쓰는 언어는 사회화된 언어이며, 어휘, 문법, 문장, 문체 등은 모두 개인의 외부에서 차용되거나 배운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기는 사회화된 언어의 형식으로 기록된 개인의 주관적 내용들이다. 따라서 일기는 개인의 경험, 생각과 사회적 규범이 혼합되어 문자로 표현된 기록이다. 결국 일기를 분석하는 작업은 사회적인 것과 개인적인 것, 객관과 주관, 사건과 경험이 혼합된 글 속에서 그것을 분류하면서, 개인(의 주관적 경험과 해석)이 처한 사회구조(의 객관적 조건)을 해명하고, 그 조건과 개인의 글 사이의 대응관계, 그것들 사이의 거리를 측정해내는 것이다.

(4) 일기쓰기의 대중화와 그 조건들

신분질서가 와해되고 시민계층이 형성되면서, 개인적 삶의 새로운 방식, 즉 초기 개인주의의 산물이자 표현이라고 할 경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첫째, 읽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글을 자주 접하게 된 것이 개인화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글을 읽고 쓰는 문화는 개인을 전통으로부터 해방시켰을 뿐 아니라 동시에 개인의 자의식을 강화시켜 주었고, 자신에게 몰두하게 만들었으며, 세계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켰다. 글을 읽고 쓰는 행위는 (전통

적 공간 바깥에서 일어나는) 개인적 행위였다. 그리고 대체로 자유의지로 이루어졌다.¹⁵⁾(반 툴 멘, 232-234) 글을 읽고 쓰는 문화는 개인적인 글쓰기의 대중화를 가져왔다. 글쓰기의 대중화란 공식 문서류의 문자가 아니라 민중의 일상 언어가 문자화되는 경향을 의미하며, 이것이 일기쓰기의 대중화를 이끌어냈다.

둘째로, 문구류의 대중화가 현대 일기 대중화의 중요한 물질적 기반이 되었다. 특히 종이 보급의 대중화는 사회의 상류층이나 공적 기관 뿐 아니라 서민들의 글쓰기 문화를 확산시켰다. 다시 말하면 생산성의 향상이 대중문화로서의 글쓰기를 촉진시킨 것인데, 여기서 특별히 언급해야 할 것은 상품화된 일기장의 보급이다. 니시카와 유코(西川祐子, 2009)에 따르면 일본에서 최초로 인쇄·제본된 형태로 출판된 일기장은 1879년(메이지 12년) 대장성 인쇄국에서 제작해서 관리들에게 배포한 「회중일기(懷中日記)」라고 한다. 그리고 그 즈음에 「당용일기(當用日記)」가 제작되었다고도 한다. 그로부터 약 20년쯤 후인 1895년(메이지 28년)에 박문관신사(博文館新社)에서 1896년용 일기가 「회중일기」라는 이름으로 상업 출판되고, 이듬해 「당용일기」도 상업적으로 출판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 후 일기장 상품은 대량생산되기 시작했다. 시장에서 과잉 경쟁이 시작되면서, 출판사들은 구매자 계층을 세분화하고, 사용목적별, 사회계층별, 직업별, 취미별 등 일기장의 카테고리를 세분화하기 시작했다.

일기의 역사에서 시판 일기장의 등장은 근대로의 이행을 상징한다.(정병욱, 2013: 272) 시판 일기장은 일기를 기록하는 양식(날짜, 날씨, 하루 치 일기의 분량 등)이 미리 구성되어 있어서, 기록자는 그 양식에 따라 일기를 썼다. 뿐만 아니라 일기장의 구성(절기, 국가/사회적 기념일, 행사, 가족 및 친지, 친구 명단 주소록 등에 관한 부록 등)도 대체로 일정한 양식을 띠고 있었다. 즉 일기장의 상품화로 일기쓰기의 대중화, 일기 양식의 표준화¹⁶⁾ 등이 이루어졌고, 일기 내용이 공동체나 집단의 기록에서 ‘개인 일기’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사회에서는 언제부터 시판 일기장이 등장하기 시작했을까? 정병욱(2013)이 분석하는 경남 함안군 주씨의 일기(1933)에서는 주씨가 1933년 1월 5일 마산의 오쿠다(奥田) 문구점에서 일본 박문관이 제작·시판하는 “當用日記” 중형판을 80전에 샀다고 기록되어 있다. 당시에 국내에서 상품화된 일기장이 생산되었다는 기록은 남아 있지 않고, 또 조선인들 사이에서 상품화된 일기장이 어느 정도 대중화되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적어도 조선에서도 상품화된 일기장이 사용되는 일이 드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타 오사무(太田修, 2009)의 연구는 한국인 노동자의 1945-1947년 일기를 분석하는데, 이중 1947년 일기는 시판 일기장에 썼다고 한다.¹⁷⁾

어쩌면 그 훨씬 이전부터 일본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시판 일기장이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그 영향으로 지식인이나 상류층에서도 시판 일기장에 일기를 쓰는 사례가 적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일기쓰기가 일제에 의해 국민교육장치로 고안되고, 각급 교육기관에

15) 의상 또한 개인의 삶의 양식을 표현하는 강력한 수단이 되었다. 복식규정은 신분을 구분하는 강력한 질서체계의 규범이었다. 이것이 해체되고 자유로워짐에 따라 개인 취향을 드러내고, 자신의 신분 계층에 허용된 것보다 더 지위가 높고 부유하게 보이려 애썼다. 이와 함께 거주 공간에서의 개인화 경향, 그리고 교회 예배에서의 개인화 경향도 강화되기 시작했다.

16) 이때 일기장의 양식은 서구식으로 표준화되었다.

17) 일기장의 표지에 ‘日記 DIARY/4280/7/1947’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한다. (오타 오사무, 2009: 366)

서 수신(修身)과목과 일본어 교육의 강화를 위해 일기쓰기를 강제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제가 조선에서의 일기장의 보급에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 틀림없다.

다만 우리 연구실이 입수해서 번역, 독해, 입력 작업을 진행한 일기의 저자들은 1960년대 이후에야 상품화된 일기장에 일기를 쓰기 시작하였다. 특히 1937년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한 곽○○의 『금계일기』는 일제강점기 동안 백지를 종이끈으로 묶어서 일기장으로 사용하거나, 일반 공책에 일기를 적었다.¹⁸⁾ 1969년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한 최○○(『창평일기』)와 권○○(『아포일기』)은 처음부터 시판되는 일기장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¹⁹⁾

셋째, 일제강점기 동안 일제는 학교교육을 통해 이데올로기 장치로서의 일기쓰기를 강요했다. 이것이 니시카와 유코(2009)가 일기를 ‘국민교육장치’라고 규정하는 이유이다. 니시카와(2013: 43)는 일기 쓰는 행위가 “개인의 습관적 행동임과 동시에 집단의 습관이며, 나아가 근대의 일기는 하나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라고 정의한다. 일본의 근대 학교교육이 일기쓰기를 채용하여 학생들에게 강제하기 시작하였다. 일기쓰기는 근대적 시간 관리와 자율적 행동 규율을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기능을 했다.²⁰⁾ 결국 일기를 쓴다는 것은 개인적인 일인 동시에 의도된 집단적 작업이고, 개인을 집단에 귀속시키는 작업이라는 것이다.

한편 니시카와는 일본어 교육에 의해 해외식민지를 중심으로 일본어에 의한 일기 형식 또는 일기를 쓰는 관습이 일본 열도 바깥으로 파급된 시대가 있었다고 보면서, 제국주의 지배 시기 식민지 영토에서 일본어로 쓰인 일기도 일본 근대 일기의 범주 속에 넣는다. 실제로 1930년대 이후 식민지 조선에서 일제에 의한 학교교육의 제도화가 강화되면서, 일본어 교육이 강화되고, 일기쓰기가 학교에서 (국민교육장치로) 강요되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검사를 받기 위한 일기를 써야했다. 조선에서 학생들에게 일기쓰기를 강요한 것은 조선인 학생들에게 근대 규율과 제국주의 지배 규율을 통합해서 주입하는 역할을 했다. 특히 1930년대 후반 이후 일본어로 일기를 쓰게 함으로써, 일기쓰기는 조선인 학생들을 황국신민 이념 속으로 흡수하는 데에도 활용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일기쓰기가 확산되면서, 일기를 쓰면서 개인의 자아를 확립하고, 자각적으로 국민교육장치로부터 일탈해가는 경향이 생기기 시작했다.²¹⁾ 앞에서 파악했듯이 지적한 바, 일기의 전복성이 근대적 개인의 자각을 통해 드러나기 시작한 셈이다.

18) 다만 그것이 아직 조선 내에서는 출판된 일기장이 일반화되지 않았기 때문인지, 아니면 일기의 저자가 가난한 농촌의 학생 또는 교사였기 때문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19) 특히 최○○는 매년 연말이면 전주로 나와서 남부시장 문구점에 들러 다음해 일기장을 구입하였다. 이것을 그는 매년 연례행사처럼 반복하였고, 그 내용을 연말 일기에 적었다. 어쩌면 일기를 쓴다는 것의 의미를 개인적으로 부여하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권○○은 일기를 쓰는 행위의 자부심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하였다. “일기를 쓰는 사람과 안쓰는 사람”의 차이, “일기를 씀으로써”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그가 일기를 평생 써오는 이유였다. 이것이 일기를 쓰기 시작할 때부터 가진 생각이었는지, 나중에 만들어진 감정인지는 분명치 않다.

20) 이 시기에는 일기장이 국민교육장치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국민일기』라는 일기장도 있었다고 한다. (니시카와 유코, 2013: 49)

21) 그래서 니시카와 유코(2009)는 자신의 저서의 부제를 “국민교육장치와 그 일탈”이라고 했다.

3. 현대 일기를 읽는다는 것: 일상사 연구와 일기

(1) 현대사 연구의 새로운 방향: 인식과 관점의 전환

한국사회의 근현대 100년의 역사를 일기 자료를 통해서 재조명하는 작업은 이른바 ‘압축적’, ‘폭력적’으로 전개된 한국사회의 근대성을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발견하고자 하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이것은 기존의 제도사, 구조사, 사건사 중심의 역사 연구로부터 일상사, 생활사, 심성사 등 ‘새로운 역사학’으로의 전환과 연동되어 있다.²²⁾ 일상사 연구에서 일기를 비롯한 개인 기록 자료가 주목받는 이유는 분명하다. 공식기록이 보여주는 ‘위로부터의 시선’ 또는 ‘외부로부터의 시선’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개인의 경험세계, 인식세계를 개인 기록은 세세하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 일본, 대만 등지에서 일기를 통해 현대사를 읽어내려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현대사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의 모색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일본에서의 일기 연구는 근대국가의 구축, 근대 산업과 이념의 등장으로 개인의 일기를 쓰는 습관이 확산되었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이케다 유타 池田勇太, 2014: 25-27) 거기서 나아가 일기 쓰기 습관은 개인의 주체로서의 자아를 인식케 하여, 개인을 제국주의 국가체제에 대한 일탈로 이끌었다고 분석한다. 이후 일본의 일기 연구는 전후 복구체제의 등장과 그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감정 등을 분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한편 대만의 현대사 연구에서 일기는 각별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간단히 언급해보면, 대만 현대사 연구는 그 동안 공식기록을 통해 중국사 중심으로 서술되고 있던 대만 현대사를 일기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통해 대만사람들의 역사로 재구성하겠다는 커다란 포부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대만 중앙연구원(Academia Sinica) 소속 대만사연구소에서 현대 일기를 수집·정리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면서, 지난 20여 년 동안 일기 자료의 축적과 함께, 그 분석을 통한 현대사 연구 성과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진정원, 2014)

독일의 일상사 연구자인 뤼트케(2002: 15)는 일상사를 ‘서민(Kleine Leute)’²³⁾의 삶 자체를 다루는, ‘아래로부터의 역사’라고 정의한다.²⁴⁾ 즉 일상사 연구의 중심이 ‘서민’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의 행위와 고통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상사는 더 이상 위인들, 명사들, 지배자들의 업적(그리고 범죄)에만 주목하지 않는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대다수 이름없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고생해가면서, 또 때로는 “과시적으로 소비”해 가면서 일궈낸 삶과 생존이다. 이러한 관점은 독일의 일상사 연구가 나치시대 독일 사람들(특히 ‘작은 사람들’)의 삶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독일에서의 나치시대

22) 앞에서 클라우디아 올브리히(2013)가 ‘새로운 접근’이라고 했던 것과 다르지 않다.

23) ‘Kleine Leute’를 뤼트케(Lüdtke, Alf, 2002)의 『일상사란 무엇인가』(이동기역)에서는 ‘서민’으로 번역하고 있고, 포이케르트의 『나치시대의 일상사』(김학이 역)에서는 ‘작은 사람들’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그 용어는 그 자체로 서민, 또는 보통사람이라는 뜻을 담고 있겠지만, 일상적으로 일반인들을 지칭하는 용어와 달리, 사회 체제 속에서 특정한 지위에 속한 사람들을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를 부각시킨다는 점에서 이 글에서는 ‘작은 사람들’이라고 쓰기로 한다. 다만 뤼트케의 글을 인용할 때는 ‘서민’으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적었다.

24) 여기에서 뤼트케는 아래에서 역사를 본다는 시각이나 태도가 아니라, 실제로 서민들의 삶에서의 경험과 태도, 행동이 국가, 관료집단의 힘보다 더 사회의 모습을 결정짓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한다

의 일상사 연구는 파시즘 하에서 희생되고 착취당하고 살해된 사람들에게 그들 자신의 모습을 돌려주려고 하는 것이다.

(2) 일상사와 작은 사람들: 나치시대 독일 일상사 연구

구조사, 거시사 중심의 역사연구로부터 일상사, 미시사로 전환한다는 것은 개인을 인식과 행위의 주체로 보고, 그들의 경험과 인식, 감정에 주목한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하면 ‘작은 사람들’의 구체적 삶에 공감과 이해를 지니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포이케르트(Peukert, D., 2003)가 말하는 ‘작은 사람들’은 광차섭이 말하는 스스로의 기록을 남길 수 없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 사람들’은 같은 사람들을 지칭한다. 이것은 또 스피박(2013)이 말하는 ‘서발턴’과 유사하다. 스피박에게 서발턴이란 “자신의 언어를 지니지 못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다만 스피박은 서발턴에게 말할 수 있는 자신들의 언어를 주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하며, 포이케르트는 작은 사람들이 채 말하지 못한, 말할 수 없었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한다. 모두가 일상사 연구가 가져야 할 태도와 방향을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현대 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작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종합적이면서, 탈맥락화 되어 있고, 단편적이면서 파편적이다. 즉 현대 일기의 서술은 일정한 주제와 줄거리, 이야기의 맥락이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이야기(중 스스로 선별한 이야기)를 다 풀어놓고, 주제들 간의 연결고리가 설계되지도 않은, 그야말로 그날그날의 이야기들이 풀어져 있다.

그렇다면 다시 ‘일상이란 무엇인가’. 포이케르트는 일상이 지니는 복잡성, 복잡성, 다층성의 문제를 제기한다. 즉 나치의 지배와 저항과 같은 문제는 현실과 경험, 실천, 그리고 개념과 이론이 단순하고 분명하게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²⁵⁾ 물론 생활과 생존 속에서 여러 개의 겹으로 둘러싸인 다층성에 주목한다는 것은 나치시대의 폭력과 대량살상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그 시대에 대한 미화된 기억과 낭만적 경험들로 덧칠해버릴 위험이 상존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즉 “일상에 대한 관심이 비상한 체제의 특수성을 지워버리고, 자명한 가치들을 이도저도 아닌 것으로 상대화시켜버릴 위험성”(포이케르트, 2003: 22)을 안고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상사 연구는 엄밀하게 수립된 계획과 방향을 잃지 않고 수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포이케르트에게 일상은 가능한 최대 의미의 일상, 즉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경험 전체가 아니다. 그에게 일상은 “체제와 사람들이 조우하는 장(場), 사람들의 기존의 삶의 방식이 체제의 요구에 의해 영향 받는, 혹은 반대로 체제의 요구와 압력이 사람들의 기대와 태도에 의해 채색되는 장, 그리고 국가, 조직, 지역적·종파적·사회적 하위문화들, 가족, 개인의 영역을 서로 구분시켜주는 그러한 장의 범위”(포이케르트, 2003: 28)에 한정된다. 이때 일상사 연구는 일상 하나하나를 들여다봄으로써 문제의 본질과 해결에 도달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방법이 아니라, 다만 체제 변동의 역사, 그 격동의 역사를 들여다보는 하나의 전망이다. 일상의 경험(특히 체제와 조우하는 경험)을 통해서 연구자들은 사회사, 경제사, 정치

25) 이를테면 제국주의 지배체제 속에서의 친일과 반일이라는 문제를 규명하는 문제도 그럴 것이다.

사, 문화사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상사 연구를 통해서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관계들의 미로 속에서 길을 잃어서는 안된다.²⁶⁾ 간단하게 요약하면 일상사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는 일상세계는 체제와 작은 사람들이 조우하는 장, 사람들의 삶이 체제의 요구에 의해 영향 받는, 그리고 한편으로 체제와 국가의 정책과 운동에 이 사람들의 기대와 요구, 열망이 영향을 미치는 장이다. 즉 포이케르트에게는 체제와 연관되는 영역의 일상이 일상사의 영역이며, 작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체제의 역사가 일상사이다.

(3) 일상사 연구의 목적과 지향

그렇다면 우리는 지난 100년 동안의 한국 현대사를 포착하기 위해서 작은 사람들, 또는 사라져간 사람들의 일상세계의 경험으로부터 무엇을 찾아내야 하는가. 독일에서의 일상사 연구가 제2차 세계대전과 나치시대의 경험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고 있음은 우리의 일상사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유럽에서의 ‘극단의 시대’의 지배는 주로 전쟁을 통해 전개되고 경험되었다. 전체주의적 지배체제 속에서 동유럽의 피침략 국민들과 억압받던 민중들이 느낀 전쟁과 다른 방식으로 상황을 인식하고 경험한 사람들(대부분 독일 사람들)의 일상적 생존을 위한 인식, 감정과 실천이 문제가 된다. 즉 뤼트케는 그것을 현실을 ‘견디기 위해 복돋운 분노’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이 이른바 작은 사람들의 전쟁에 대한 태도와 경험, 실천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전쟁, 군대와 관련해서 만들어진 일상의 아비투스, 즉 조국과 가족을 위한 성실한 노동자이자 가장이라는 이념적 성향이 만들어낸 심성적 측면들이 전쟁과 피침략 국민들을 대하는 태도로 전화되는 양상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나치 체제에서 독일인들을 견디게 한 힘, 즉 ‘(비상한 상황을) 견뎌낼 수 있도록 복돋운 감정적 분노’를 기반으로 독일인들은 전쟁을 자신의 일로 여기고, (타자를 향한) 홀로코스트의 폭력을 방관하고 심지어 참여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살아남아야 한다는 감정적 분노가 전쟁을 자신들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살해행위임을 알면서도 타인에 대한 폭력을 수용하게 했고, 그 결과 독일인들은 대량학살 때문이 아니라 전쟁의 패배에 더 낙심했다는 것이다.(뤼트케, 2006: 54-55)

이것은 사적이고 비공식적인 공간에서의 배제와 차별, 조롱, 밀고, 참전 등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을 ‘위로부터의 동원’을 보강하고 강화하는 자기 동원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독일의 ‘작은 사람들’의 개인적 행위와 감정이 나치체제의 ‘위대한 전체’와 결합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러한 지적은 우리가 일제강점기의 조선인 일기를 읽어 가는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해준다. 이른바 극단의 시대, 제국주의의 폭력적 지배체제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역사적 행위자로서의 조선 민중의 ‘견디기 경험’과 세계에 대한 인식과 해석, 그리고 그것을 위해 스스로 동원해야 했던 감정(분노, 슬픔, 그리고 부르디외적 오인)과 다양한 실천들 사이의 관계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준다.

한국사회(조금 확대해서 동아시아)의 작은 사람들은 지난 100여 년간 어떻게 살았는가? 자

26) 이처럼 그가 나치시대의 일상사 연구에서 작은 사람들의 ‘모든 일상’이 아니라 체제와 조우하는 일상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앞에 언급한 일상성에 대한 관심이 비상한 체제의 자명한 사실을 상대화시켜버릴 위험성 때문이다.

신들의 삶의 시간과 공간에 침투해오는 근대성이라는 커다란 도전을 어떻게 경험하였는가, 그리고 그 경험으로부터 그들은 어떠한 태도를 발전시키고, 그 태두리 속에서 어떻게 행동했으며, 그 결과 그들은 (그리고 그들의 시공간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우리가 현대 일기를 읽으면서 일상사 속에서 답을 찾아야 할 질문들이다.

우선 우리는 제국주의의 지배, 전쟁 등 '비상한 시국'에 체제의 폭력 앞에서 쫓기던 사람들에게, 그리고 전쟁의 광기 속에 휩쓸려 있던 사람들에게 도대체 '일상'이 존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하게 된다. 삶 전체가 비상사태에 직면에 있던 사람들,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함과 분노, 슬픔, 좌절, 모멸의 감정들이 이들을 어떤 대응과 실천으로 나아가게 했을까.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일상의 모든 그림들을 짜 맞춰가는 모자이크가 아니라, 생활세계의 복잡한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들, 분명한 연구 목적을 향해 흔들리지 않는 분석적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현대 일기를 읽어가기 위한 방법론적 틀이라 할 수 있겠다.

현대 일기는 텍스트 속의 개인이 왜 그렇게 말하는가, 누구의 언어로 말하는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무엇을 드러내고 무엇을 드러내지 않는가 등에 대한 의문을 통해서 비로소 그 의미를 드러낸다. 다시 말하면 현대 일기를 분석하는 것은 주체로서의 개인에 주목하는 것이다. 텍스트 속의 개인은 자신의 외부를 인식하고,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의 시각으로 이해·해석하고, 그 (구조적, 체제적) 상황에 대해 행위/대응한다. 이것을 행위자의 관점(에미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일상사 연구의 첫 번째 원칙이다.

4. 한국사회의 압축근대와 현대일기 분석 - 네 편의 일기 사례

(1) 한국사회에서 일기쓰기의 의미

일기가 국가의 이데올로기 교육 장치라는 니시카와 유코의 주장은 20세기 한국사회의 학교 교육이 증명한다. 실제로 한국사회에서 현대 일기의 등장은 국가관, 근대적 세계관과 근대적 생활 습관을 길러내는 장치로 작동하였다. 적어도 1930년대 이후의 일제 강점기 기간 동안, 그리고 해방 이후의 근대 교육체제에서 일기쓰기는 근대 규율과 체제 유지 이데올로기 교육을 위해 활용되었다.

그렇다면 일기쓰기는 강요된, 동원된 근대성의 표상인가. 국민교육장치로서 강요된 일기쓰기는 (그것을 검사와 감시하는 국가를 향한) 개인의 의식과 행동을 드러내는 행위로, 즉 일탈로 드러나기도 했을 것이다. 거기에 더해 일기를 쓴다는 행위는 목표를 세우는 인간, 계획하는 인간, 실천하는 인간이라는 합리적 개인으로서 자신을 드러내는 행위이기도 했다. 근대적 인간으로서의 자신을 글쓰기를 통해 드러내는 행위가 주체로서의 개인의 발견이었던 것이다. 어쩌면, 현대 일기가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이러한 강제성과 자발성 사이의 다양한 층위들이 결합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즉 소수의 사회집단(귀족, 지식인, 성직자, 그리고 일부 상인층들)에게 국한되던 일기가 대중화된 배경에는 문자의 대중화가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문자를 읽고 쓸 수 있게 된 개인들의 확대(문자 보급의 대중화)가 일기쓰기를 부추긴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근대성이란 합리적 이성에 기반한 과학적, 분석적 지식의 확산과 일반화를 의미하는 것이라

는 이른바 이상적, 계몽주의적 정의를 받아들인다면, 그래서 근대성의 확산이 전통적, 일상적 지식의 배제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근대성과 개인의 일상 사이의 충돌은 필연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근대성은 일상성에 충격을 가하면서 등장하고, 일상은 그에 대응, 적응하면서 변화해가는 것이라는 일반적 정의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나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개인의 구체적 일상 속에서 근대와 전통은 서로 양극단에 있는 대립항이 아니다. 그것은 훨씬 다층적이고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근대는 전통을 흡수해서 자기화하면서 침투한다. 전통은 여기에 자신의 흔적을 반드시 남긴다. 그리고 근대성과 근대적 체제의 출현이 제국주의의 폭력, 억압적 국가체제의 지배 등 폭력적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전개될 때, 그것과 일상의 충돌은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현대일기를 통해서 한국사회의 작은 사람들의 일상과 근대 체제 사이의 충돌과 충격, 그 결과를 검토한다는 것은, 일기에 기록된 문장들 속에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는 상황과 드러내려 하지 않는 행간의 노력에 담겨 있는 의미들을 읽어내는 작업을 의미한다.

(2) 사례: 네 편의 일기

〈표〉 네 편의 현대 일기 사례

	지역	시기	저자	직업	제공자	비고
창평일기	전북 임실군 신평면	1969-1994	최○○ (1923-1994)	농민 (정미소)	유족	(회고록 및 일기) 전쟁과 1970년대 새마을운동
인천일기	서울, 인천	1956, 1959, 1964, 1966, 1967-1969 1970, 1973	박○○ (1926-2002)	노동자 (주물기술자)	유족	해방-60년대 기술변화와 공장조직
금계일기	충남 청주시 옥산면 금계리	1937-2000	곽○○ (1921-2000)	교사	유족	1930년대 이후 전시체제, 총동원체제 시기 학생, 교사 생활 경험
삼계일기	전북 임실군 삼계면	1954-1957	이○○ (1931-2015)	공무원	유족	전쟁 직후 사회와 농촌사회 징집제도와 지역주민의 인식 (편지 246편 별도 출간)

개인기록연구실에서 분석했던 현대 일기 자료들 중 네 편의 자료를 중심으로, 그간의 연구 성과들을 제시하면서 일기와 일상사 연구의 사례로 검토해보고자 한다.²⁷⁾ 여기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앞에서 포이케르트의 글을 통해서 제시했던 (비상한 시기에) 체제와 일상이 조우하는 현장이다. 예를 들어 일제강점기 후반 전시총동원체제 시기의 국민교육 제도와 농촌 청년(금계일기), 전쟁 기간 마을사회의 이념 대립(창평일기), 전쟁 직후 국민동원체제(징병제)와 면사무소 직원(삼계일기), 그리고 1960년대 공장조직과 기술변화에 직면한 노동자(인천일기)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려 한다. 이른바 ‘비상체제기’, 역사적 격동기에 처한 농촌 출신 청년들의 일상, 그들의 인식과 행동을 살펴보려는 것이다.²⁸⁾

27) 여기에 제시된 네 편의 일기는 각각 한국 현대사의 독립된 시기를 보여주는 사례로 선택한 것일 뿐, 자료적 가치를 고려한 선택은 아니다. 또한 여기서 정리하는 내용은 일기 내용 중 극히 일부를 임의로 선택한 것일 뿐, 일기 전체의 특징이 아니다.

현대일기를 읽는다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일기를 기록한 당사자와 직접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일기 텍스트와 연구자가 소통하는 것이다. 자료 제공자가 대체로 가족이거나 친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기의 저자와 그가 살았던 환경 및 조건에 대해서 듣거나 보아서 확인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어디까지나 보충적일 뿐이다.²⁹⁾ 따라서 일기 텍스트는 저자와 저자가 살았던 시공간과 소통하는 거의 유일한 통로이다.

네 편의 일기에 대한 개요는 위의 <표>에서 제시된 바와 같다. 우선 네 명의 일기 저자들 모두가 1920년대에서 1930년대 초반 농촌에서 출생하여, 일제강점기에 공식교육을 마쳤다는 특징을 공유한다. 이들에게는 1930년대 후반, 즉 일제의 전시총동원체제 아래에서 보통학교를 다니면서 일본어로 교육을 받은 것이 공식교육 경력의 전부이다. 출생지역은 전북, 충북, 경북으로 나뉘고, 직업도 정미소 운영(최○○), 공장노동자(박○○), 공무원(이○○), 교사(곽○○)으로 모두 다르지만, 그다지 내세울만한 이력을 지니지 않은 장삼이사, 즉 ‘작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한국사회의 현대사에서 압축적이고 폭력적으로 전개된 근대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이른바 한국사회의 ‘근대화 1세대’들이다.

네 편의 일기는 1937년부터 2000년까지의 기간 중에 기록되었고, 모두 장기간 글쓰기가 지속된 일기들이다. 네 편의 일기는 모두 국한문 혼용체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공통적이다.³⁰⁾ 다만 네 사람의 저자들의 문체는 조금 차이를 보이는데, 간단히 분류하면 최○○와 박○○의 글은 거침이 없고 거친 데 비해, 이○○과 곽○○의 글쓰기는 한결 부드럽고 순하다.³¹⁾

최○○(『창평일기』)는 1923년 전북 임실군 신평면 창인리에서 태어나 고향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조그마한 마을 정미소를 운영한, 농민이자 자영업자이다. 1941년 관촌보통학교를 졸업한 것이 학력의 전부이다.

박○○(『인천일기』)은 1926년 충북 옥천군 청산면 예곡리에서 태어났다.³²⁾ 10대 시절 주물공장에 취직하여, 1944년부터 1945년 해방 전까지 일본 오사카의 주물공장(토리시마 西島 펌프공장)에 파견되어 주물기술을 배우고 돌아왔다. 전쟁 직후 부산(극동금속), 서울의 영등포(대동공업), 그리고 1959년부터 인천의 인천전기에서 주물기술자로 일했다.

『금계일기』의 곽○○은 1921년 충북 청원군(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금계리에서 태어났다. 어릴 때 서당에서 한학을 배우다가 13세(1934)에야 옥산보통학교에 입학하여, 1941년 졸업하였다. 어린 시절부터 교사가 되는 꿈을 지녔으나,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제3종 교원시험을 준비하여 1942년 정식 교원 발령을 받았다.

28) 이들은 교사, 공무원, 노동자, 자영업자들로 당시 한국사회의 ‘작은 사람들’이다.

29) 제공자가 가족(특히 자녀)일 경우에도, 일기의 저자와 일생을 같이 산 경우는 흔치 않다. 우리 연구실의 경우, 저자와 직접 대면해서 조사할 수 있었던 것은 『아포일기』의 권순덕이 유일했다. 다만 『창평일기』는 저자 최○○의 장남이 일기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저자의 삶에 대한 많은 자료와 풍부한 구술을 제공해주었는데, 이것은 장남이 임실군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최내우 옹이 사망할 때까지 한 집에서 같이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30) 이중 곽○○의 『금계일기』는 1937년부터 2000년까지 약 64년 동안 계속된 장기 기록이다. 그는 해방 전까지는 일본어로, 해방 이후부터는 국한문 혼용체로 일기를 썼다. 여기에서는 그중 일제강점기의 일기만을 검토한다.

31) 이것이 저자들의 타고난 성품 탓인지, 아니면 직업과 관련된 외적 요인 때문인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

32) 호적에는 1928년 생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일기에서 곽부현은 자신을 1926년 생으로 기록하고, 자신의 나이를 언제나 1925년 출생으로 계산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북 임실군 오천면 덕천리에서 1931년에 출생한 이○○은 4세에 부친을 여의고, 9세 때에 외가가 있던 삼계면으로 이주하였다. 11세(1941년)에 삼계보통학교에 입학하여, 해방된 이듬해인 1946년(16세) 졸업하였다. 일자리를 찾아 광주로 나갔다가 돌아와 1948년 삼계면사무소에 사환으로 취직하였다. 전쟁 중이던 1951년 면 직원의 사망으로 결원이 생겨, 지방행정서기로 발령을 받고 면사무소의 정식 직원이 되었다.

1) 일제 강점기, 조선인 청년의 꿈

“경쾌하게 차린 소박한 흰 운동복, 바람에 나부끼는 검정 넥타이에 목에 호루라기, 한 손에 큼직한 메가폰을 쥔 운동회 날의 학교 선생님이 왕처럼 느껴졌다”(곽상영, 『교단수기』, 1985.8, 곽노필, 2016, 29쪽에서 재인용)

곽○○가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된 것은 7세 때부터였다. 운동장에서 단정하고 세련된 차림, 호루라기와 메가폰으로 운동장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힘, 그래서 왕처럼 느껴지는 교사가 곽○○의 꿈이 된 것은 아마도 1920년대 후반 어느 날이었을 것이다.³³⁾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교사가 되기 위해 사범학교에 진학하고 싶었으나, 가정 형편으로 좌절되었다.

“나는 선생님께 가서 상담하고 내 앞길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지원병에 합격하면 다행이지만, 합격하지 못하면 옥산면 청년단원이 되어 고등과 교과서나 강의록으로 열심히 공부해 내년 3종 교원시험을 볼 것을 선생님으로부터 권고 받았습니다”(1940.3.28.)³⁴⁾

교사가 되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는 지원병에 지원하기도 하고, 청년단에 가입하여 강의록을 받아서 공부하기도 했다. 그리고 보통학교 졸업을 앞둔 1941년 1월부터 금계간이학교에 사환으로 취직하여, 약간의 월급을 받으면서 교원시험을 준비했다. 그는 1940년부터 1942년까지 세 차례 3종교원시험을 치렀다. 그리고 1942년 최종합격자 명단에 올랐다.³⁵⁾ 그 사이 1941년부터 보은군 삼산국민학교에 촉탁교사로 발령을 받고, 그리고 최종합격 이후인 1942년 10월 9일부터 정식 교원이 되었다.

일제강점기 기간 동안(1937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3일까지)의 일기에서 곽○○은 거의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³⁶⁾ 그런데 1946년 자신의 과거 일기를 정리하다가, 일본어로 일기를 써야만 했던 당시의 상황을 떠올린다. “나는 조선 사람이다”라는 점을 느끼지 않아 할 수가 없는 때가 많았었다.…… 어긋하고 원통한 마음을 갖지 않은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당시 조선인 교사 몇 명과) 제방뚝을 건일면서 힘없이 지껄이는 말도 버젓하게 큰 소리로 못하였든 것이다”(1946.12.30.)라고 회상하고 있다.

제국주의 지배체제에서 근대적 욕망을 키우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배 질서와 제도 속

33) ‘왕’이 되고 싶다는 꿈을 지니게 되었다는 것은 7세 소년에게 이미 각인된 근대의식을 보여준다. 그 소년에게 근대는 단정함, 세련됨, 그러나 현대적 장비로 대중을 통제하는 강력하고 단호한 힘으로 인식되고 있다.

34) ()는 일기의 날짜임.

35) 『충독부 관보』 제4633호(소화17년 7.9.)

36) 1941년 촉탁교사 발령을 받았을 때, 1942년 3종 교원시험에 합격하였을 때, 기쁜 마음을 맘껏 드러내기는 한 다.

에 스스로 편입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래서 결국 자신의 꿈을 이루어낸) 조선 청년의 심성세계는 매우 복잡하고 다층적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조선에서 전시동원체제가 강화되던 1930년대 후반 이후, 조선인들의 삶은 일제의 제도와 체제를 벗어나서 유지될 수 없었다. 특히 교육제도와 학교라는 식민지 공공영역(윤해동, 2003; 2010)은 식민지 조선인들의 ‘비상한 시기에 살아남기 위한’ 훈련의 장소였다. 이 속에서 한편으로 세련된 통제자가 되고 싶었던 꿈을 이룬, 그러나 다른 한편 “힘없이 지껄이는 말도 버젓하게 큰 소리로” 말할 수 없었던, 감시당하는 조선인 청년의 모순적이고 다층적인 위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한국사회에서 근대성의 형성과정을 규명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해방, 미국식 생산체제의 도입과 전통 기술자의 삶

해방 직전 일본에서 주물기술을 습득한 박○○은 해방 이후 서울(대동공업)에서 일하다가, 전쟁 기간 동안에는 부산(극동금속)에서 주물 일을 계속했다. 1956년 다시 서울로 올라와 대동공업에 복귀했다가, 대동공업이 인천의 이천전기와 합병하게 되면서, 1959년 인천(이천전기)으로 이주하였다.³⁷⁾ 이 글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전쟁 이후부터 1960년대는 한국사회의 산업과 제도가 급속하게 미국식으로 전환되고 있던 시기였다. 이른바 일본식 식민지 지배체제와 서구식·미국식 제도와 규율, 생활방식이 충돌하던 시기에, 박○○은 구세대의 인물에 속해 있었다.

특히 미국식 교육제도가 도입되고 대학에 공과대학이 설치되면서, 일본식 기술과 도제식 교육 방식이 서구식 기계와 기술, 공식 제도교육에 의한 기술교육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당시 대공장 내에서 관리조직과 생산조직의 변화, 기술과 기계의 교체에 따른 생산방식의 변화를 초래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공장 내에서 전통기술의 전승자인 구세대 노동자와 신교육으로 무장한 신세대 노동자 간의 대립과 충돌을 발생시켰다. 1950-60년대 기계공업부문에 있어 전개된 관리조직의 변화, 생산기술과 기계의 변화, 인력과 조직 구성의 변화 등이 기업 내 노동자들과 그 가족의 일상에 미친 영향은 지대했다.

대학을 나온 신세대 기술자들과 그 ‘이전 세대’의 구세대 기술자 사이의 교체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은 단순히 세대교체에서 오는 진통이 아니었다. 이것은 과거의 식민지 시대의 기술(자)이 근대적, 서구식 기술(자)로 교체되는 과정이었고, 폭력적 도제식 교육·훈련 방식이 근대적 제도교육과 자격증으로 교체되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전통적, 연고주의적 기업관리 방식이 과학적 관리로 바뀌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진통과 적응의 과정이었다. 넓게 보아 이것은 공장 권력의 교체 과정이었고, 과거의 낡은 것과의 단절의 과정이었다. 구세대 기술자들은 이 전환의 과정을 달갑지 않지만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쇠퇴해가는 구세대와 점차 회사의 주요 세력으로 성장하는 신세대 기술자들 사이의 갈등에서 드러나는 특징은 구세대들이 대체로 회고적이고 과거의 기억에 기댄다는 점이다. 처음 들어온 대학 출신자들에 대하여 애송이 취급하고,³⁸⁾ 지금의 공장은 모두 자신들이 희생한 결과

37) 그가 처음 일했던 대동공업이 일제 강점기에 일본 에바라제작소(荏原製作所)의 조선 분공장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그의 첫 직장이 에바라제작소일 가능성도 있다. 참고로 이천전기는 전신이 1939년 설립된 도시바전기 인천 공장이다.

물이다. 결국 회사의 역사가 곧 자신들의 역사라고 생각한다.³⁹⁾ 그러나 결국 새로운 기술, 기계, 기술자들에 의해 구세대는 점차 밀려나게 된다. 한국사회의 초기 근대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구조적 변동은 어쩌면 이식된 근대성이 직면하게 되는 필연적 절차일지도 모른다. 이것이 현장의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끼친 영향, 그것을 대하는 노동자들의 해석과 대응은 일상사 연구의 주요 테마라 할 수 있다.

“慶□□가 課長이 되고 그 밋에 내가 係長이다. 係長 밋데 있든 係員니 課長이 되고 나니 나로서는 좀 씩스러웠다.”(1967.1.28.).

“나이 한 살 더 들기 前에 보다리를 싸자. 나중에 후해를 말자. 앞으로 더 이상 있어 보아서 무엇이러나. 잠이 많 온다. 午前 2時 20分 사발시개 소리가 뚜렷치 들어온다.”(1967.2.2.)

3) 징병제와 농촌사회의 군대 인식 사이에 낀 면사무소 공무원

전북 삼계면의 이○○(1931-2015)는 20대 시절이었던 1954-1957년 사이의 일기를 남겼다. 그는 당시 삼계면사무소의 공무원으로 병사계에서 징병 업무를 담당했다. 당시는 전쟁 직후 반공국가가 폭력적으로 재편되는 시기였다. 전쟁을 통해서 군부 권력이 강화되고, 군대 규모가 비대해지면서, 유명무실했던 징병제가 ‘국민의 의무’로 강제되고 있었다. 그러나 징병제가 법률로 제도화되고 또 그것을 시행하기 시작한 것과 농촌 주민들이 그것을 자신들이 반드시 지켜야하는 ‘국민의 의무’로 받아들이는 것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

당시 농촌사회에서 군에 입대하는 것을 당연한 의무로 인식하는 경우는 드물었다.⁴⁰⁾ 거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사유가 있다. 그 첫 번째는 말할 것도 없이 농촌 빈곤 문제였다. 전후 복구조차 엄두를 내지 못하는 형편에서, 빈곤에 시달리는 농촌 가구로부터 핵심 노동력인 청년을 국가가 빼가는 것은 농촌 주민들에게는 심각한 타격이었다. 둘째로는 전쟁 기간에 경험한 공포를 들 수 있다. 농촌사회 중 인명피해를 입지 않은 곳을 찾기가 힘들 정도의 전쟁 폭력을 경험한 농촌 주민들이 가족의 일원을 군에 보낸다는 것은 피하고 싶은 공포였다. 세 번째로 징병제의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였다.⁴¹⁾

마을 청년으로서의 이○○은 면사무소의 병사계 직원이라는 자신의 신분과 늘 모순적이고 갈등적인 관계에 있었다. 그의 업무는 위에서 내려온 징집영장을 삼계면의 징집 대상자와 그 가족들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징집일자에 면사무소 앞에 집결한 신체검사 대상자들을 (트럭이나 도보로) 약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임실군청 앞까지 인솔하고(임실에서 하루를

38) “책만 들여다보고 있을 뿐 무엇 하나 제대로 못하는 ‘아주 애송이’였고, 결국 그들이 이전의 공장에서 가져온 정보는 “내 손으로 서투르나 작도(作圖)되어 완성되었다”(1967.1.28.)

39) 1967년 1월 28일 『인천일기』에는 초기에 온갖 고생을 감내하며 공장을 만든 것은 우리들이며, 그 시절 우리는 회장과 진달래 담배를 나눠 피며 일했다고 적었다. 또 같은 날의 『일기』에서는 “책상도 현재 쓰고 있는 나의 것은 대동공업 시절에 가져온 일본인 야마모도(山本)가 쓰던 것이다.”고 적었다.

40) 1950년대 전 기간에 걸쳐 병역기피율은 20%를 넘었다. 그런데 이것도 이런저런 이유로 입영대상자에서 부적절하게 제외된 수를 뺀 것이다.

41) 병역법 제정 과정에서 심각한 쟁점이 되었던 대학생 입영 연기제도나, “(해외 유학을 떠난 자들 중) 돌아와서 입대한 자가 한명도 파악되지 않았다”(윤종현, 1957:185-186)거나 “일개 병사에 이르기까지 위로는 국회의원 정부고관으로부터 고급 장성에 이르기까지 명함이 날라 들어”와서 지휘관들이 병사들 인사이동도 마음대로 못한다는 탄식(최원각, 1957: 186) 등이 병역법 자체의 공정성, 형평성에 상처를 입혔다.

묵는다), 다음날 임실군 전체에서 모인 청년들을 다시 기차로 전주 공설운동장까지 인솔하였다.(그리고 다시 전주에서 하루를 묵었다) 여기에서 지구단위사령부로 징집대상 청년들을 인계하는 것으로 그의 공식 업무는 마무리 되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입영을 못할 사정이 있는 청년들의 입영 불가 또는 연기 사유서를 작성하고, 그것을 국방부 소속 검사관에게 전달하고 설명하는 것도 이○○의 일이었다. 그 때문에 신체검사가 끝나고 최종 발표가 있을 때까지 그는 공설운동장 주변에서 기다리다가, 자신이 사유서를 쓴 대상자들에 대한 판정을 확인했다.⁴²⁾ 자신이 입영이 어렵다고 사유서를 써 준 청년들 중 몇 명이나 귀가 조치되는지는 그에게 매우 중요했다. 높은 확률로 귀가 조치 처분을 얻어내는 것은 병사계 담당 공무원으로서의 자신의 일에도 매우 유리했다.

그는 국가의 청년 강제 동원을 위한 징병 업무를 담당하는 하급 공무원이었지만, 삼계면에서 흠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학교를 다니고 취직을 한 마을 청년이었다. 마을 청년의 징병율을 높이는 것이 주어진 업무였지만, 늙은 부모를 모신, 가난한, 병약한 동네 청년이 군대에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서류를 꾸미고 사유서를 써줘야 하는 것도 마을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그의 임무였다. 그래서 이○○은 징집영장을 받지 않겠다고 버티는 청년의 부모 앞에서 돌아서야 했고, 집에 숨어서 나오지 않는 동네 청년을 눈감아줘야 했다. 심지어 병역을 기피한 동창을 오수 시장에서 만나고도 모른 척 해야 했다. 포이케르트(2003)가 넓게 해석했던 ‘저항’, 즉 직접적 대항만이 아니라 태업, 게으름피우기, 불참하기, 모른 척하기 등은 당시 한국의 농촌사회 주민들이 국가의 제도와 강제에 대해 일상적으로 전개하던 대응전략이었는데도 모른다. 그리고 이러한 체제의 권력에 대한 (개인의) 저항 행위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공동체성에서 비롯되었다.

4) 농촌사회의 전쟁 경험과 이념 대립의 지속

『창평일기』의 저자 최○○의 인식을 관통하는 핵심 이념을 필자는 ‘반공’이라고 정리했다. 그는 해방 직후인 1946년부터 17년 동안 마을 구장(이장)을 지냈고, 마을사회에서 ‘우파’를 대표하는 인물이었다. 남한 단독선거 반대 투쟁(2.7구국투쟁)의 임실 지역판인 ‘2·26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그는 창인리 구장이었다. 당시 마을 주민 중 2·26사건에 가담한 좌익인사를 체포하러 온 경찰을 따돌리고, 당사자에게 도피할 시간을 줬던 최○○은 1950년 7월 이후 인민군 지배 하에서 면 인민위원회 소속 마을 좌파세력의 보호를 받아 피해를 입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전쟁 기간 중에는 이 마을에서 전쟁으로 인한 피해자는 나타나지 않았다.⁴³⁾ 수복 이후에도 그는 산으로 올라간 마을 좌익세력들이 산에서 내려오게 하는데 열심이었고, 그 후에도 마을 좌익들이 복권되도록 하는데 힘을 썼다.⁴⁴⁾ 실제로 입산 후 자수한 동네 청년을 군에 입대시켜 신분 문제를 해결해줬고, 그 청년은 부상으로 제대한 이후 1960년대에 마을 이장에 당선됨으로써 마을사회에서 복권되었다. 또한 마을의 유일한 지식인 좌익이었던 정□□는 전쟁

42) 그는 ‘몇 명 중 몇 명’으로 그 결과를 늘 일기에 적었다.

43) 1948년 ‘2·26사건’ 당시에는 여러 사람이 죽거나 행방불명되었다.

44) 그러나 그는 공화당 지역 간부였고, 전쟁 중에도 경찰과 주둔군의 유지에 물적, 인적 지원을 다했다. 그리고 그 인맥은 그의 생애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후 학교교사로 복직했다.

이렇게 완전히 잊혀진 것처럼 보이던 마을사회의 이념 문제가 다시 되살아난 것은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 과정에서였다. 농촌사회에서 국가동원체제가 강화되고, ‘퇴폐풍조 일소’, ‘가정의례준칙’, ‘근검절약’, ‘산아제한’ 등 규율체제가 강화되면서, 거의 20년 동안 묻혀있었던 이념, ‘공산당’, ‘빨갱이’ 등이 부활했다. 동원 체제에 비판적인 주민의 과거가 소환되고, 복권되어 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과거 면 인민위원장은 마을 앞 논길에서 구타당했다. 과거 활동경력이 마을사업 참여(와 그로부터 얻어지는 자잘한 이권들)로부터 배제되는 여과장치가 되기도 했다.

국가 동원체제가 효율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시점에서 어김없이 되살아나는 이념, 그리고 과거의 소환은 전쟁 당시 ‘작은 사람들’이 생존전략으로 선택했던 이른바 ‘공포에 의한 충성’의 다른 버전으로 읽힌다. 1970년대의 근대국가가 농촌사회의 인력과 자원을 폭력적으로 동원하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스스로의 신체와 정신을 ‘자발적으로 동원’하는 상황에서 이념은 자발성을 강제하는 ‘공포’인 것이다.

지역사회에서의 국민적 정체성 형성은 일차적으로 포섭과 동원-차별과 배제를 통한 국가의 국민 만들기를 통해서 진행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주민들의 순응과 저항을 동반한다. 뤼트케(2006: 56)의 지적처럼 국민 만들기를 위한 “‘위로부터의’ 동원은 (주민 스스로의) 자기 동원에 의해 준비되고 강화되었다.” 말하자면 반공국가의 ‘국민 만들기’는 주민의 자발적인 ‘국민 되기’와 결합하면서 전개되었다. 이때 지역사회는 반공국가의 건설과 국민 만들기 전략이 전통적 주민 공동체와 만나는 현장이었다.

참고로 최〇〇가 ‘이념의 문제’를 마음 속에 덮어두고 (말하지 않고) 있었을 뿐, 잊은 적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최〇〇는 일기 이외에 1993년 회고록을 작성하였다.⁴⁵⁾ 회고록의 내지 첫 장에 그는 회고록을 작성하는 근거로 보이는 메모를 남겼다. 여기에 첫 번째 항목이 “一九八八年 七月 共產黨 主務者 全員 死亡”이다. 그리고 내지의 끝에 1988년 7월 마지막 막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하여, 좌익 활동을 했던 마을 주민 아홉 명의 이름을 적어 놓았다. 그는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에서 지울 수는 없었던 이념대립의 경험과 기억을, 그 당사자들이 모두 사망한 이후에야 비로소 글쓰기를 통해서 말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세상을 떠나지 불과 1년 전인 1993년이었다.

5. 논의의 요약: 남은 이야기들

근대사회가 등장하고 진전되는 흐름 속에서 (작은 사람들의) 일상세계는 결코(또는 절대로) 직선적이지 않은 굴곡과 왜곡을 보여준다. 굴곡과 왜곡으로 이어지는 근대성의 파동이 일상성 속에서 하나의 흐름으로, 또는 양가적-다층적 분열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포이케르트가 체제와 일상이 조우하는 지점이라 얘기한 역사적 계기들은 그 충격이 훨씬 선명하게 드러나는 지점이다. 개인성과 집단성, 중심과 주변, 침묵과 소음 그리고 외면, 방관 등과 참여, 저항 등

45) 그의 회고록은 그의 호를 따서 『월파유고』라는 이름으로 『창평일기1』에 수록되었다.

이 텍스트 상에서 직접적 언어로 표현되거나 혹은 숨겨진 이미지로 드러나는 것이 현대 일기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을 독해하고 해석하면서 한국사회의 (압축적, 폭력적) 근대성을 읽어가는 것⁴⁶⁾, 그 속에서 작은 사람들의 삶을 역동적으로 파악해내는 것이 일상사의 관점에서 한국 현대사를 바라보는 의미일 것이다. 그때,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넘어, 거기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그 일을 어떻게 느끼고 해석하고 어떻게 행동했는가. 이것을 작은 사람들이 스스로 드러낸 내용과 말하지 않고(또는 못하고) 숨겨둔 것들을 찾아내고 해석함으로써, 설명해 내는 것이 현대 일기를 읽는다는 것의 학술적, 실천적 의미가 될 것이다.

이것을 롤랑바르트(2006)가 말하는 개념에 기대어 말하면, 이른바 문화적으로 약속된(지시된) 의미대로 대상을 이해하는, 보편타당한 의미로 해석되는 문화적 코드인 스튜디오(studium)을 넘어서는 작업이다. 그 너머에서 응시자의 주관적 시각에 의해서(만) 감지되는 폰크툼(punktum), 즉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 경험을 바탕으로 기호를 해석하는 코드가 현대 일기를 읽어가는 주요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인도 힌두 여성의 순장풍습을 해석하는 가야트리 스피박(2013)이 자신의 언어를 가지지 못해서 자신들의 얘기를 할 수 없었던 ‘서발턴’의 얘기를 듣고 해석해 내야 한다는 주장과도 상통한다.

포이케르트가 말하는 일상사 연구에서는, 체제와 일상이 충돌하는 지점, 체제의 전복과 일상의 일탈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개인의 체제 경험, 기억, 생각을 담은 실천 행위(글쓰기)로서의 「일기」가 위치한다. 이것은 짐멜이 「사회학의 근본문제」라 불렀던 ‘구조와 개인의 관계’ 문제에 대한 성찰을 요구한다. 즉 (사회) 구조의 억압과 개인의 자율성(일탈 의지) 사이의 복합적, 다층적 관계에 관한 문제이다.

이 난제를 부르디외(P. Bourdieu)는 장(Champ)과 아비튀스(habitus)의 관계 설정을 통해 풀어나가고 있다. 이른바 체제의 규율(압력, 폭력)이 개인의 자율적 행위를 규제하는 장과 개인의 실천적 성향인 아비튀스는 장내의 투쟁을 감행한다. 이것을 이타가키 류타는 사회물리학과 사회현상학의 관계로 설명하며, 그것을 매개하는 자료로 일기를 든다. 다시 포이케르트로 돌아와서 체제와 개인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개인의 글쓰기 행위로서의 아비튀스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대 일기에 담겨있는 다양한 수준의 정보의 분석을 위해서 장기 융복합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일기에는 가족생활 등 개인의 가장 사적인 영역에서부터 지역 사회 내의 사건들 및 사회관계, 더 나아가 국가 수준의 사건들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차원의 일들까지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정보들 중에는 장기간에 걸친 시계열적 자료를 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십 년간 꼼꼼하게 기록되어있는 것들도 있다.

또한 현대일기를 통해서 현대사(또는 지역사)를 재구성한다는 목표는 매우 방대하고 원대한 학술적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자료의 수집·분류·정리, 독해·분석, 연구방법 및 이론화 작업 등을 위한 다양한 시각과 전공을 지닌 연구자들의 집단을 구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46) 우리 연구실은 개인을 지배·억압하는 체제의 힘, 그 폭력성(어떤 의미에서 모든 근대는 폭력적이다)을 ‘근대성’이라고 보기로 했다. 그것은 한국을 포함한 많은 후발 자본주의사회들에서 “압축근대”, “동원된 근대”의 형태로 등장하였다.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곽노필, 2016, “교육인 곽상영의 생애사”, 이정덕 외, 『금계일기 1』, 지식과 교양
- 곽차섭, 2018, “일기 연구의 이론과 실제 - 서양의 경우를 중심으로”, 국사편찬위원회, 『일기로 역사를 읽다』, 국사편찬위원회
- 뤼트케, 알프 외(나종석 외 옮김), 2002, 『일상사란 무엇인가』, 청년사.
- 뤼트케, 알프, 2006, “일상사 - 중간보고”, 이상록 외, 『일상사로 보는 한국 근현대사』, 책과함께
- 니시카와 유코, 2013, “근대에 일기를 쓴다는 것의 의미”, 정병욱·이타가키 류타 편, 『일기를 통해 본 전통과 근대, 식민지와 국가』, 소명출판
- 바르트, 롤랑., 김용권 옮김, 2006, 『밝은 방』, 동문선
- 반 뢰멘, 리하르트, 최윤영 옮김, 2005, 『개인의 발견 - 어떻게 개인을 찾아가는가 1500~1800』, 현실문화연구
- 스피박, 가야트리., 로절런드 C. 모리스 역음, 태혜숙 옮김, 2013,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그린비
- 오타 오사무, 2013, “해방 직후 어느 노동자의 일상생활-인천의 전기공 I씨의 일기로부터”, 정병욱·이타가키 류타 편, 『일기를 통해 본 전통과 근대, 식민지와 국가』, 소명출판
- 울리히, 로렐 대처, 윤길순 역, 2008, 『산파일기 : 27년간 기록된 한 산파의 일기에서 탄생한 미시사의 조각』, 동녘.
- 윤종현, 1957, “병무행정 깃뚫는 「특권계급」”, 『신태양』(1957.5.)
- 윤태림, 2003, 『인류학자의 과거여행: 한 빨갱이마을의 역사를 찾아서』, 역사비평사.
- 윤해동, 2003, 『식민지의 회색지다』, 역사비평사
- 윤해동, 2006, “식민지 근대와 공공성: 변용하는 공공성의 지평”, 윤해동·황병주 역음, 『식민지 공공성-실체와 은유의 거리』, 책과함께
- 이케다 유타, 2014, “역사와 개인기록-일본 근대 농촌일기로부터의 고찰”, 이정덕·안승택 편저, 『동아시아 일기 연구와 근대의 재구성』, 논형
- 이타가키 류타, 2018, 「식민지 시기 조선의 민중일기를 읽는다는 것」, 국사편찬위원회, 『일기로 역사를 읽다』, 국사편찬위원회
- 정병욱, 2013, “식민지 조선 청년과 재일조선인 사회-경남 함안군 周씨의 일기(1933) 검토”, 정병욱·이타가키 류타 편, 『일기를 통해 본 전통과 근대, 식민지와 국가』, 소명출판
- 진정원, 2014, “일기 자료로 돌아본 대만사 연구 20년”, 이정덕·안승택 편저, 『동아시아 일기 연구와 근대의 재구성』, 논형
- 최원각, 1957, “국민의 의혹을 풀길은 없는가?”, 『신태양』(1957.3.)
- 클라우디아 울비르히, 2013, “역사적 시각으로 본 유럽의 자기증언-새로운 접근들”, 정병욱·이타가키 류타 편, 『일기를 통해 본 전통과 근대, 식민지와 국가』, 소명출판
- 포이케르트 데틀리프, 김학이 옮김, 2003, 『나치 시대의 일상사 - 순응, 저항, 인종주의』, 개마고원
- 西川祐子, 2009, 『日記をつづるということ-國民教育装置とその逸脱』, 吉川弘文館
- A. Alaszewski, A., 2006, *Using Diaries for Social Research*, SAGE
- Lejeune, Philippe(Popkin, Jeremy D. and Julie Rak ed.), 2009, *On diary*, Univ. of Hawai'i Press.

- MacFarlane, Alan, 1970, *The Family Life of Ralph Josselin: a Seventeenth-Century Clergyman*, Cambridge Univ. Press.
- Redlich, Frederick, 1975, "Autobiographies as sources for social history: a research program", *Vierteljahrschrift für Sozial und Wirtschaftsgeschichte*, 6.
- Samuel Pepys, (Robert Latham ed.), 1983, *The Diary of Samuel Pepys, Vol. 11: Index*, Univ. of California Press

자료

- 이정덕 외, 2016, 『금계일기 1』, 『금계일기 2』, 지식과교양
- 이정덕 외, 2012, 『창평일기 1』, 『창평일기 2』, 지식과교양
- 이정덕 외, 2017, 『인천일기 1』, 『인천일기 2』, 지식과교양
- 이정덕 외, 2020, 『삼계일기』 전북대학교출판문화원

· 토론 ·

· 湖南 ·

현대 일기를
읽는다는 것

日記

정훈

군산대학교

· 資料 ·

〈현대 일기를 읽는다는 것

‘말한 것’과 ‘말하지 않은 것’이 말하는 체제와 일상의 충돌〉에 대한 토론문

정훈(군산대학교)

이성호 선생님께서는 전북대학교의 〈쌀, 삶, 문명연구소〉에서 오랫동안 일기관련 연구를 진행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일기전공자도 아니고, 현대 문학전공자도 아닌 고전문학 전공자입니다. 일기문학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는 제가 토론을 맡게 되어서 부끄럽습니다. 다만 토론자의 소임으로서 토론문을 읽고,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일상사 연구를 위한 기본자료로서 개인의 일기 기록에 관심이 모아지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즈음이고, 초기 일기류에 대한 관심은 국가, 민족과 같은 거대담론에서 벗어나 개인이라는 미시적 존재를 통해서 사회와 역사를 바라보자는 의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에 대한 공식적 기록에서는 볼 수 없는 개인의 해석이나 느낌까지 기록되어 있는 일기는 사회를 새롭게 볼 수 있는 전도된 시각을 제공해 줄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일기류가 존재하였습니다. 김미선(2016)은 호남문집에 소재한 일기 562편을 시기별, 내용별로 분석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내용별로 생활일기 40편, 강학일기 41편, 관직일기 33편, 기행일기 320편, 사행일기 10편, 유배일기 7편, 전쟁일기 48편, 의병일기 9편, 사건일기 31편, 장례일기 22편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분류한 일기류의 제목을 살펴보면, 생활일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목적성이 뚜렷한 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특수한 상황 하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기록한 기록물의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기행일기의 경우, 명산대첩을 두루 여행하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시문을 논하고, 호기를 기른다는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이러한 1차 자료는 훗날 일기 작성자의 문집을 발간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일기류의 특징으로는 대부분의 저자들이 상류층 혹은 엘리트 집단이라는 점입니다. 한자를 해독하고, 짓는다는 행위는 곧 이들이 식자층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때문에 이들의 일기는 곧 저자의 문학, 철학, 사상 등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중요한 기본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규보(李奎報)의 <남행월일기 南行月日記>는 호남 전주 지역의 여행기이며, 이곡(李穀)의 <동유기 東遊記>는 오래된 금강산(金剛山) 기행문학 중 한 작품이다. 김종직(金宗直)·김일손(金駟孫)의 <두류산기행 頭流山紀行>과 조식(曹植)의 <유두류록 遊頭流錄>등은 문학 작품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송강 정철의 <관동별곡>도 넓게 보면 기행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 일기라는 장르가 “어떠한 정형도 없고 무슨 특정 내용도 요구되지 않는다. 마음대로

써도 된다”. 즉 일기가 지닌 가장 중요한 특성은 형식과 내용 모두가 자유롭다는 것이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자유로움이야말로 문학적으로나 역사학적으로나 일기의 가치가 폄하되어 온 주요한 이유라고 르젠(philippe Lejeune, 2009:168)은 말했습니다. 일기라는 장르가 시나 소설처럼 특정한 형식을 갖추었다면, 이에 대한 연구방법론을 설정하기도 쉬웠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기라는 장르가 워낙 자유로운 방식으로 무규칙, 무형식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고정된 분석도구를 마련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선시대의 일기 작성자와 비교하여 보면, 13쪽에 제시된 일기 저자들의 신분은 농민, 노동자, 교사, 공무원으로 사회적으로나 문학적, 철학적으로 뛰어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에 이성호 선생님께서는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일기의 저자를 ‘작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들의 일기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생님께서는 ‘근대’라는 시대 배경을 설정하셨습니다.

6쪽의 중간을 보면, 선생님께서는 근대를 ‘압축적’이고, ‘폭력적’이라고 보거나, 서민들의 경우 근대화과정에서 배제되거나 주변화 된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특히 각주 46) 근대화 과정을 폭력적이고, 압축적이라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뒤에 제시된 4명의 일기를 분석함에 있어 “현대일기를 통해서 한국사회의 작은 사람들의 일상과 근대 체제 사이의 충돌과 충격, 그 결과를 검토한다”고 설정하셨습니다.

고전문학을 전공한 저의 입장에서는 14쪽의 “이들은 한국사회의 현대사에서 압축적이고 폭력적으로 전개된 근대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이라는 표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에게 가해진 어떤 압축적인 경험, 폭력적인 경험이었는데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혹은 네 편의 일기에서 근대 체제와 충돌, 혹은 충격이라는 용어 대신에 ‘근대 체제에 순응’하였다거나 근대 체제에 매몰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결론 부분에서 선부른 질문이지만 일기를 통해서 재구성된 현대사는 기존의 역사와 어떤 차이점을 보일 것인지 선생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일기에 대한 전공자가 아니라 두서없이 질문을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일기에 대한 안목을 넓힐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